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10권 (제91회 ~ 제10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91회 — 금평부의 원나라 밤에 등불을 구경하고, 현영동에서 당승의 고발장이 나오다	5
제92회 — 세 스님이 청룡산에서 크게 싸우고, 네 별이 코뿔소 괴물을 협박하여 붙잡다	31
제93회 — 급고원에서 옛이야기를 물으니, 천축국 왕이 우연히 만남을 얻다	58
제94회 — 네 스님이 어선원에서 잔치를 즐기고, 한 괴물이 헛되이 정욕을 품으며 기뻐하다	81
제95회 — 제시해주신 입력값이 "第九十五回 假合{{另}}와 같이 불완전하여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전체 한자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규칙에 맞춰 즉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02
제96회 — 구원외는 고승을 맞이하기를 기뻐하고, 당삼장은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125
제97회 — 금빛 보답으로 외적의 호위를 받다 마귀의 침입을 당하고, 성스러운 영혼이 나타나 근원을 구하다.....	148
제98회 — 원숭이는 길들여지고 말은 순종하여 껍질을 벗어던지고, 공을 이루고 수행이 차니 진여를 마주하다.....	177
제99회 — 구구의 수가 다하니 마귀가 나타나다	203
제100회 — 동토로 돌아가니, 다섯 성인이 진정한 모습이 되다	220

제91회 — 금평부의 원나라 밤에 등불을 구경하고, 현영동에서 당승의 고발장이 나오다

金平府元夜觀燈 玄英洞唐僧供狀

선 수행은 어디에 공을 들여야 하는가,
못난 말과 날뛰는 원숭이를 얼른 잘라 없애야 하네.
단단히 붙잡고 꼼꼼 묶어두면 오색 광채가 피어나지만,
잠시라도 멈추고 머무르면 삼도(三途)의 나락으로 떨어지리라.
멋대로 풀어 자유롭게 두면 신령한 단약(神丹)이 새어 나가고,
조금이라도 한가로움을 허락하면 옥 같은 본성이 메말라 버리네.
기쁨과 노여움, 근심과 생각을 모두 깨끗이 쓸어내야,
그윽하고 오묘한 진리를 얻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하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승 일행 네 사람은 옥화성을 떠난 뒤 줄곧 평탄한 길을 걸었으니, 그야말로 극락정토가 따로 없었다. 닷새나 여섯

날 정도 길을 가니 또 다른 성곽 하나가 나타났다. 당승이 손오공에게 물었다.

"이곳은 또 어디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성곽이긴 한데, 성 위에 깃발이 꽂힌 것이 없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물어보지요."

일행이 동쪽 성문 근처에 이르니, 양옆으로 찻집과 술집에서는 북적이는 소리가 들리고 쌀 시장과 기름 가게는 활기가 넘쳤다. 거리에는 한가롭게 노니는 한량들이 몇몇 있었는데, 저팔계의 긴 입과 사오정의 검은 얼굴, 그리고 손오공의 붉은 눈을 보고는 모두 웅기종기 모여들어 구경하면서도 감히 가까이 다가와 묻지는 못했다. 당승은 제자들이 혹여나 사고라도 칠까 봐 조마조마하며 손에 땀을 쥐었다. 골목 몇 군데를 더 지나갔으나 아직 성안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문득 산문 하나가 보였는데 그 문 위에는 '자운사'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당승이 말했다.

"이곳에 잠시 들어가 말도 쉬게 하고, 공양이라도 한 끼 하는 게 어떨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네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풍경은 이러했다.

화려한 누각은 웅장하고 보좌는 드높구나. 불전은 구름 너머 높이 솟았고, 승방은 달빛 아래 고요하네. 노을빛 아스라한 탑은 우뚝 솟아 있고, 푸른 나무 그늘 아래 경전 보관함은 맑구나. 진정한 정토 같고 가히 용궁이라 할 만하니, 대웅전 위에는 자줏빛 구름이 감도네. 복도에는 한가로이 노니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탑에는 손님들이 수시로 오르 내리네. 향로에서는 끊임없이 향이 타오르고, 제단 위 등불은 밤마다 밝게 빛나니, 문득 들려오는 큰 종소리에 맞춰 스님들이 부처님을 찬탄 하며 경을 읊는구나.

일행이 한창 구경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한 스님이 걸어 나오더니 당승에게 예를 갖추며 물었다.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제자는 중화 땅 당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몸을 굽혀 큰절을 올렸다. 당승이 당황하여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원주 스님, 어찌 이리 큰 예를 올리십니까?"

그 스님이 합장하며 말했다.

"이곳에서 선한 일을 하며 경을 읽고 불공을 드리는 이들은 모두 중화 땅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스님의 풍채와 옷차

림을 뵈니, 과연 전생에 덕을 많이 쌓으신 모양입니다. 덕분에 이런 복을 누리시니 마땅히 절을 올려야지요."

당승이 웃으며 말했다.

"황송할 따름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떠돌이 승려일 뿐인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원주 스님께서 이곳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지요."

스님이 당승을 정전으로 안내하여 불상에 절을 올리게 하자, 그제야 당승은 제자들을 불러들였다. 사실 손오공 일행 세 사람은 스님이 원주와 대화하는 동안 등을 돌린 채 말을 끌고 짐을 지고 한쪽에 서 있었는데, 스님은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당승이 "제자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세 사람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고, 세상에! 스님의 제자들은 어찌 이리 못생기게 생겼단 말입니까?"

당승이 말했다.

"못생기긴 해도 법력이 제법 뛰어납니다. 오는 길에 이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편, 사찰 안에서 스님 몇 분이 더 걸어 나와 예를 갖추었다. 먼저 나온 스님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말했다.

“이분은 중화 대당에서 오신 귀한 분이시며, 저 세 분은 그분의 뛰어난 제자들입니다.”

스님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심을 느끼며 물었다.

“스님, 중화라는 큰 나라에서 이곳까지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나는 당나라 임금님의 성지를 받들어, 영산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이 근처를 지나던 차에 잠시 이곳에 들렀으니, 지명도 여쭙고 공양도 한 끼 대접받고자 합니다.”

스님들은 모두 기뻐하며 당승을 방장실로 정중히 모셨다. 방장실 안에는 이미 공양을 준비하던 스님들이 몇 분 더 있었다. 먼저 들어갔던 스님이 다시 소리쳤다.

“모두 나와서 중화에서 오신 귀한 분들을 좀 보시오! 과연 중화에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구려. 잘생긴 이는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못생긴 이는 아주 기이하게 생겼소!”

그러자 많은 스님과 공양을 맡은 이들이 모두 나와 인사를 나누었고, 인사가 끝난 뒤 각자 자리에 앉았다. 차를 다 마신 뒤 당승이 물었다.

“이곳의 지명이 무엇입니까?”

스님들이 대답했다.

“이곳은 천축국 외곽의 군으로, 금평부라고 합니다.”

당승이 다시 물었다.

“이곳에서 영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스님들이 말했다.

“여기서 도성까지는 이천 리 정도 됩니다. 그 거리는 저희가 직접 걸어보아 잘 압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영산까지 가는 길은 저희가 가보지 못하여, 얼마나 더 남았는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승은 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잠시 후 공양을 차려 내왔다. 공양이 끝나자 당승이 길을 떠나려 하자, 스님들과 자운사 원주가 간곡히 만류하며 말했다.

"스님, 하루 이틀만 더 머물다 가십시오. 원소절 축제가 지나고 나서 가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당승이 놀라며 물었다.

"제자는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그저 산과 물을 지나며 요괴나 마물을 만날까 두려울 뿐이지요. 그러다 보면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할 텐데, 원소절 명절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스님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선(禪)을 깨닫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니, 이런 축제 따위는 개의치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정월 열사흘이니, 오늘 저녁부터 등불 시험이 시작됩니다. 모레가 바로 보름인 원소절이지요. 열여덟이나 열아홉 날까지 축제가 이어지다가 그제야 등불을 거둡니다. 이곳 금평부는 경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태수 어른께서 백성을 아끼시는 덕분에 각 지방에서 등불을 높이 올리고 밤새도록 악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옛날부터 내려온 금등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풍경이 아주 화려합니다. 며칠만 넉넉히 머물다 가십시오. 저희 절에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당승은 어쩔 도리가 없어 결국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불전에 종과 북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는데, 이는 마을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릴 등불을 가져와 공양하는 소리였다. 당승 일행도 방장에서 나와 등불 구경을 한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절의 스님들이 다시 재를 올렸다. 공양을 마친 뒤, 일행은 스님들과 함께 후원을 거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과연 그곳은 다음과 같은 절경이었다.

: 때는 정월이라 새봄이 찾아왔구나. 정원은 그윽하고 우아하며, 풍경은 울창하고 아름답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저마다 뽐내고, 첩첩산중은 푸른 빛으로 겹쳐 있구나. 계단 앞에는 향긋한 풀이 돋아나고, 높은 매화 가지에는 향기가 배어 나오네. 복숭아꽃은 붉게 물들어 어리고, 버들잎은 푸르게 변해 싱그럽구나. 금곡원의 화려함은 무엇이라 말할 것도 없고, 망천도의 풍류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네. 흐르는 물줄기에는 들오리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천 그루 대나무 숲

은 문인들이 시를 짓느라 분주하구나. 작약, 모란, 배롱나무, 함소화가 피어나며 하늘의 기운이 깨어나고, 동백, 홍매, 영춘, 서향화가 화려한 빛깔을 먼저 뽐내네. 그늘진 절벽의 쌓인 눈은 아직 차갑지만, 먼 나무에 피어오른 안개에는 이미 봄기운이 서려 있구나. 연못가에서 제 그림자를 비춰보는 사슴과, 소나무 아래에서 거문고 소리를 듣는 학을 보라. 동쪽에는 몇 채의 집이 있고 서쪽에는 정자가 있어 손님들이 머물다 가며, 남쪽에는 대청이 있고 북쪽에는 탑이 있어 스님들이 고요히 참선하는구나. 꽃과 나무 사이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누각이 높이 솟아 있고, 산과 물 사이에는 도를 닦는 방이 창을 통해 밝게 빛나네. 참으로 은거하기에 천연의 명소이니, 굳이 다른 곳에서 신선이 사는 곳을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스승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풍경을 감상하더니, 전각에서 등불을 구경한 후 다시 거리로 나가 축제를 즐기러 나갔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 마노로 만든 꽃의 성과 유리로 된 선계의 동굴, 수정과 운모로 지은 궁궐들이 겹겹이 쌓인 비단처럼 영롱하게 빛나네. 별빛 같은 다리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천지를 뒤흔들고, 불꽃 나무가 붉게 흔들리는 모습이 장관이로다. 여섯 거리에는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문마다 달빛이 비치며 만 가구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네. 높이 솟은 거북 모양의 봉우리 위로는 물고기와 용이 바다에서 솟구치고, 난새와 봉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하구나. 등불 빛과 달빛이 어우러져 화기애애하니, 비단옷을 입은 무리들은 저마다 악기 소리와 노래를

즐겁게 듣는다. 수레와 말 소리가 요란한 거리에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풍류 넘치는 호걸들이 가득하니, 그 경치가 끝이 없구나.

당승은 스님들과 함께 절 안에서 등불을 구경한 뒤, 동관 쪽의 여러
거리로 나가 축제를 즐겼다. 밤이 깊어 이경(밤 9시~11시 사이)이 되어
서야 비로소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당승이 스님들에게 말했다. "제게는 예부터 탑을 청소하고
싶다는 서원이 있었습시다. 마침 오늘이 원소절 명절이니, 주지 스님
께 청하여 탑 문을 열어 주신다면 이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스님들
이 이에 탑 문을 열어 주었다. 사오정은 가사를 챙겨 들고 당승을 수행
했다. 탑의 1층에 이르자 사오정은 가사를 당승에게 입혀 드렸고, 당승
은 불상 앞에 절을 올리며 축원을 마친 뒤 빗자루로 1층을 깨끗이 쓸었
다. 그리고 나서 가사를 벗어 사오정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2층을
쓸고, 그렇게 한 층 한 층 정성을 다해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청소
했다. 탑은 층마다 불상이 모셔져 있고 곳곳에 창문이 나 있어, 한 층을
쓸 때마다 그 경치에 감탄하며 구경하기 바빴다. 청소를 모두 마치고
내려오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등불을 밝히고 있
었다.

이날 밤은 마침 정월 대보름인 원소절이었다. 자운사의 스님들이 말
했다. "스승님, 지난밤에는 황량한 산과 성곽 근처에서만 등불을 보았
으니, 오늘 같은 명절에는 성안으로 들어가 화려한 금등을 구경하는 게
어떨겠습니까?" 당승이 흔쾌히 응낙하자, 제자 세 명과 자운사의 여러
스님이 함께 성안으로 등불 구경을 나섰다.

마침 이러하였다.

"삼오(三五) 좋은 밤, 원소절 봄빛 화사하니, 시끌벅적한 저잣거리에 꽃등이 걸려 있고,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태평성대를 노래하네. 여섯 거리와 세 시장에 등불은 환히 밝았는데, 허공에는 둥근 달이 갓 떠올랐구나. 달은 마치 물의 신 풍이가 은쟁반을 밀어 올린 듯하고, 등불은 마치 선녀가 짠 비단 길을 깔아놓은 듯하네. 등불은 달빛을 받아 광채가 두 배로 빛나고, 달빛은 등불을 비추어 찬란함이 열 배로 더해지니, 별이 흐르는 은하수 다리도 다 못 보고, 불꽃이 타오르는 나무 같은 등불의 향연도 끝이 없구나. 눈꽃등과 매화등은 봄 얼음을 조각낸 듯하고, 수놓은 병풍등과 그림 병풍등은 오색 빛깔로 어우러졌네. 호두등과 연꽃등은 높은 누각에 걸려 있고, 청사자등과 백상등은 높은 등대 위에 솟았구나. 새우등과 자라등은 가설 천막 앞에서 높이 흔들리고, 양등과 토끼등은 처마 밑에서 생동감이 넘치네. 매등과 봉황등은 서로 이어져 늘어서 있고, 호랑이등과 말등은 나란히 달리는 듯하네. 학등과 백록등은 수노인이 타고 앉은 모습이며, 금어등과 고래등은 마치 시인 이백이 타고 노니는 듯하네. 오산등에는 신선들이 모여들고, 주마등에는 무장들이 격돌하네. 수만 가구의 등불이 누각을 이루니, 십여 리 땅이 구름과 안개 속 신선 세계로구나. 이쪽에서는 옥으로 장식한 휘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저쪽에서는 향기로운 수레가 바퀴 소리를 내며 지나가네. 붉은 화장을 한 여인들은 누각 난간에 기대어, 발을 맞추고 손을 잡은 채 짝을 지어 즐거움에 빠져 있고, 푸른 물 흐르는 다리 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비단 옷차림의 인파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술에 취해 웃고 떠들며 나그네들과 즐겁게 노니네. 성안 가득 피리 소

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니, 밤새도록 악기 소리와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이에 시로 이르되,

"비단 수놓은 장터에 채련곡 노래 흐르고, 태평한 세상 속에 사람 사는 온기 가득하네. 등불 밝고 달빛 고운 원소절 밤이니, 비바람 순조로워 풍년이 들리라."

이때는 마침 금오의 금지령도 풀린 시기라, 성안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무척이나 북적거렸다. 춤추는 이, 묘기를 부리는 이, 귀신 가면을 쓴 이, 코끼리를 탄 이들이 동서로 떼를 지어 모여드니, 그 광경은 참으로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다.

한편, 금등교에 다다르자 당승과 스님들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과연 커다란 금등 세 개가 걸려 있었다. 등 모양은 항아리만큼 컸고, 그 위로는 영롱하고 투명한 2층 누각이 비치고 있었다. 등은 모두 가는 금사로 엮어 만들었으며, 안에는 유리판을 받쳐 두었는데, 그 빛은 달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눈부셨고 기름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 나왔다.

당승이 스님들에게 물었다. "이 등에는 어떤 기름을 쓰기에 이토록 기이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까?"

스님들이 대답했다. "스님께서서는 모르셨군요. 우리 부(府) 뒤편에는 민천현이라는 현이 있는데, 그 크기가 240리에 달합니다. 매년 세금을 거두고 부역을 정할 때, 등불 기름을 대는 부유한 집이 총 240가구에

이름입니다. 부와 현의 다른 부역은 건딜 만하지만, 이 부유한 집들은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집집마다 일 년에 200냥이 넘는 돈을 내야 하거든요. 이 기름은 평범한 기름이 아니라 소합향유(소합향을 섞은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한 냥에 은 2냥씩 하고, 한 근에는 은 32냥이나 합니다. 저 등 세 개는 향아리 하나당 500근씩이니, 세 향아리를 합치면 1,500근입니다. 그러면 기름값만 4만 8천 냥이 들지요. 여기에 잡다한 비용까지 합치면 5만 냥이 넘게 들지만, 고작 사흘 밤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기름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찌 사흘 밤 만에 다 써버린단 말입니까?"

스님이 말했다. "이 향아리 안에는 커다란 등심지 몽치가 향아리마다 49개씩 들어 있습니다. 등초를 묶어 명주솜으로 감싼 것이 닭알만한 크기지요. 오늘 밤을 밝히고 나면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내일 밤이면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이 흐릿해질 것입니다."

옆에 있던 저팔계가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부처님이 기름까지 싹 다 가져가시려나 보군요."

스님이 대답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성안 사람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기름이 다 마르면 사람들은 부처님이 등불을 거두어 가신 덕분에 오곡이 풍년이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기름이 다 마르지 않는 해가 있으면, 그해는 가뭄이 들고 날씨가 뒤숭숭하여 농사가 망한다고 믿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 기름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늘 한가운데서 휘잉 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니, 등불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곁에 있던 스님들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외쳤다.

“스님, 어서 돌아가시지요! 바람이 부는 걸 보니 부처님께서 복을 내리러 오시는 모양입니다. 이리로 등불을 보러 오시려는 거예요.”

그러자 당승이 물었다.

“어째서 부처님이 등불을 보러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스님들이 대답했다.

“매년 이맘때면 늘 그랬습니다.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 되기 전에 꼭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건 제불보살께서 복을 내리시는 징조라는 걸 알기에, 사람들이 모두 길을 비켜주는 것입니다.”

당승이 말했다.

“이 몸은 본래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며 절을 올리는 사람이니, 이렇게 좋은 경치를 마주한 김에 정말 부처님이 강림하신 것이라면 여기서 절이라도 올리는 것이 좋겠구나.”

스님들이 만류하며 돌아가자고 권했으나, 잠시 후 정말로 바람 속에서 세 분의 부처 형상이 나타나더니 등불 쪽으로 다가왔다. 당황한 당승은 급히 다리 꼭대기로 달려가 몸을 굽히며 절을 올렸다.

손오공이 급히 당승을 잡아끌며 말했다.

“스승님, 저건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분명 요괴일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불 빛이 어둑해지더니,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요괴들이 당승을 덮석 안아 들고는 바람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아이고! 대체 어느 산 어느 동굴에 사는 진짜 요괴길래, 해마다 부처로 변장하여 금등을 보러 온단 말인가. 저팔계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찾고, 사오정은 좌우를 살피며 소리쳤다.

손오공이 소리쳤다.

“형제들아, 여기서 소리쳐 봐야 소용없다! 스승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슬픈 일을 당하셨으니, 이미 요괴에게 납치된 것이야!”

스님들이 겁에 질려 물었다.

“여보게, 요괴가 납치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손오공이 비웃듯 말했다.

“너희 범인들이 수년 동안 몰라서 요괴에게 홀린 것이로구나. 저들이 진짜 부처가 복을 내리러 와서 등불을 공양받으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방금 바람이 불고 부처 형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저 세 마리 요괴였다. 내 스승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리 위로 올라가 절을 하시는 바람에, 저들이 등불 빛을 가리고 그릇으로 기름을 채우는 와중에 스승님까지 낚아챈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 셋이 바람을 타고 도망쳐 버렸구나.”

사오정이 물었다.

“사형,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망설일 것 없다. 너희 둘은 스님들과 함께 절로 돌아가서 말과 짐을 지키고 있거라. 나는 이 바람을 타고 쫓아가겠다!”

손오공은 급히 근두운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비릿한 바람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동북쪽으로 길을 잡고 몰아쳤다. 날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었다. 눈앞에는 험준하고도 높이 솟은 거대한 산이 나타났는데, 참으로 장관이었다.

첩첩이 쌓인 고개와 골짜기, 굽이치는 샘물. 깎아지른 절벽에는 덩굴이 매달려 있고, 허공에 솟은 바위 위로는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꽃꽂이 서 있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는 학이 울고, 아침 구름 사이로는 기러기가 울어댔다. 뽕족한 봉우리들은 창을 세운 듯 줄지어 솟았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봉우리는 만 길 높이로 솟아 있고, 험한 고개는 천 갈래 만 갈래로 얹혀 있었다. 들꽃과 나무들은 봄을 맞아 꽃을 피우고, 두견새와 꿩꼬리는 경치에 어울려 아름답게 노래했다. 산세는 웅장하고 바위는 깎아지른 듯 기괴하고 험하며, 길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참을 머물러 구경해도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호랑이와 표범의 낮은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향기로운 노루와 흰 사슴이 오가고, 옥토끼와 푸른 이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했다. 깊은 골짜기에는 물줄기가 만 리를 흐르듯 굽이치며 바위에 부딪혀 줄줄 소리를 냈다.

손오공이 산 절벽 위에서 길을 찾고 있을 때, 네 사람이 양 세 마리를 몰고 서쪽 비탈 아래에서 “개태(開泰)!”라고 일제히 외치며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화안금정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정체를 숨기고 변신해 나타난 년, 월, 일, 시를 관장하는 사치 공조들이었다. 손오공은 즉시 여의봉을 뽑아 들었다. 봉을 한 번 흔드니 굽기는 사발만 하고 길이는 한 길 두 자(약 3.6미터)에 이르렀다. 절벽 아래로 뛰어 내려간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어디로 머리를 처박고 도망가느냐!”

사치 공조들은 손오공이 정체를 알아챈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몰고 오던 양 세 마리를 흘뜨려 놓으며 본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길가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대성,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동안 너희를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하나같이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얼굴 한번 비추러 오지도 않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게다가 어째서 스승님을 몰래 보살피지도 않고 다 어디로 가 있었느냐?”

공조들이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수행의 경지가 느슨해지신 탓에, 금평부 자운사에서 즐거움에 빠지셨습니다. 즐거움이 극에 달하니 불행이 찾아온 격이라, 지금 요괴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다행히 스승님 곁에는 호법 가람신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성께서 밤새 추격 중이신 것을 알고, 혹여 산세를 잘 모르실까 하여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소식을 전하러 왔다면 왜 정체를 숨기고 양 세 마리를 몰며 소란을 피운 것이냐?”

공조가 말했다. “이 양 세 마리를 통해 ‘삼양개태(三陽開泰, 세 마리의 양이 나타나 태평성대가 온다)’를 상징하게 하여, 스승님의 불행을 깨뜨리고 복을 부르고자 한 것입니다.”

손오공은 당장이라도 매질을 하고 싶었으나, 그 뜻을 알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의봉을 거두었다. 그러고는 화를 내던 기색을 거두고 물었다.

“이 산이 요괴들이 사는 곳이냐?”

공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청룡산이며, 그 안에 현영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는 세 마리의 요괴가 있는데, 첫째는 벽한대왕, 둘째는 벽서대왕, 셋째는 벽진대왕입니다. 이 요괴들은 이곳에 천 년 동안 머물러 왔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소합향유(향기로운 기름)를 먹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요괴가 된 뒤에는 이곳에서 불상으로 변장하여 금평부 관리들을 속여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금등 축제를 열게 하여 등불 기름으로 소합향유를 쓰게 했지요.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불상으로 변신해 그 기름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스승님을 보고 성스러운 승려임을 알아채더니, 스승님을 동굴에 가두고 머지않아 살점을 베어내 소합향유에 튀겨 먹으려 합니다. 어서 서둘러 구하러 가셔야 합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사치 공조들을 물러나게 한 뒤, 산 절벽을 돌아 동굴을 찾아 나섰다. 몇 리쯤 갔을까, 계곡 옆에 커다란 바위 절벽이

나타났다. 절벽 아래에는 돌로 만든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두 개의 돌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 옆에는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청룡산 현영동'이라는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손오공은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발을 멈춰 선 채 크게 외쳤다. "요괴 놈들아! 어서 내 스승님을 내놓아라!"

그러자 안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리며 소뿔이 달린 우두 형상의 요괴가 튀어나왔다. 요괴는 쿵쾅거리며 위협적으로 물었다. "네놈은 누구냐? 감히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동토 대당에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성스러운 승려, 당승의 첫째 제자다. 금평부에서 등불 축제를 구경하던 중, 내 스승님이 너희 마물에게 납치당했다. 어서 스승님을 돌려보내야 너희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만약 거절한다면, 네놈들의 소굴을 뒤엎어 버리고 요괴 놈들을 모조리 피떡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요괴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세 요괴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당승을 붙잡아 두고 있었다. 사정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부하들에게 옷을 벗겨서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낸 다음, 잘게 썰고 다져서 향기로운 기름에 볶아 먹으려 모의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일 났다"는 보고가 들려오자, 우두머리 요괴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요괴가 대답했다. "대문 앞에

털이 덩수룩하고 입술이 툭 튀어나온 스님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왕님께서 스승을 납치해 갔으니, 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굴을 통째로 뒤엎어버려서 우리 모두를 피떡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괴들은 모두 겁에 질려 말했다. "이 자를 잡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과 내력이 무엇인지 묻지도 못했다. 애들아, 일단 저 자에게 옷을 입혀서 이쪽으로 데려오너라. 대체 누구인지,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자세히 심문해 봐야겠다."

요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당승의 밧줄을 풀고 옷을 입힌 뒤, 좌석 앞으로 밀어 넣었다. 당승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무릎을 꿇은 채 "대왕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애걸했다.

세 요괴가 입을 모아 물었다. "너는 어느 곳에서 온 스님이냐? 어찌 하여 불상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감히 나의 구름 길을 가로막느냐?"

당승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천축국 대뢰음사에 가서 부처님께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금평부 자운사에 들러 공양을 하던 중, 자운사 스님들의 배려로 원소절 등불 축제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금등교 위에서 대왕님께서 불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육안을 가진 범인인 제가 부처님을 뵈고 절을 올리려다 그만 대왕님의 길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동토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아주 멀었겠구나. 일행은 모두 몇 명이며, 이름은 무엇이나? 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당승이 말했다. “빈승의 속명은 진현장이며, 어려서부터 금산사에서 승려로 지냈습니다. 이후 당나라 황제의 은덕으로 장안 홍복사에서 승관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위징 승상이 꿈속에서 경하의 노릇을 베고, 당나라 왕께서 저승을 다녀와 양세에 수륙대회를 열어 망자의 영혼을 달래줄 때, 당나라 왕께서 빈승을 단주로 뽑아 법도를 널리 알리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관음보살께서 나타나 빈승을 인도하시며, 서천 대퇴음사에 삼장진경이 있어 망자를 구제해 하늘로 올릴 수 있으니 가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장이라는 호를 하사받았고, 당나라의 성을 썼기에 사람들이 저를 당삼장이라 부릅니다. 저에게는 세 제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이 손이고 이름은 오공 행자인데, 제천대성이 마음을 다스려 귀의한 자입니다.”

요괴들이 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 제천대성이라는 자가 혹시 오백 년 전에 천궁을 크게 어지럽혔던 그 자냐?”

당승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둘째는 성이 저이고 이름은 오능 팔계인데, 천봉원수가 환생한 자입니다. 셋째는 성이 사이고 이름은 오정 화상인데, 권렴장 출신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자입니다.”

세 요괴 왕은 그 소식을 듣고는 모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직 잡아먹지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애들아, 어서 당승을 쇠사슬로 묶어 뒤

에 세워두어라. 나중에 그의 제자 셋까지 잡아와서 함께 잡아먹자꾸나.” 그러고는 산소, 물소, 황소의 정령들을 한 무더기 불러 모았다. 요괴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문밖으로 나가 호령하며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렸다. 세 요괴 왕은 옷차림을 단정히 갖추어 입고 문밖으로 나와 크게 외쳤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손오공은 바위 절벽 위로 잽싸게 몸을 숨긴 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요괴들의 생김새는 이러했다.

얼굴은 화려하고 눈은 형형하며, 두 뺨은 험상궂게 솟아 있었다. 뽀족한 귀가 네 개나 달렸는데 그 구멍에서 영험한 빛이 번뜩였다. 온몸에는 채색화처럼 화려한 무늬가 가득했고, 입은 비단처럼 아름다웠다. 첫 번째 요괴는 머리에 여우 털로 만든 화려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뽀뽀한 털이 돌아 있어 열기가 펄펄 나는 듯했다. 두 번째 요괴는 가벼운 비단옷을 걸쳐 불꽃이 휘날리는 듯했고, 네 발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매끄럽고 빛났다. 세 번째 요괴는 천둥이 치는 듯 위엄 있게 포효했으며, 송곳니는 은침처럼 날카로웠다. 모두 용맹하고 사나운 기세로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한 명은 커다란 도끼를 쓰고 다른 한 명은 큰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세 번째 요괴는 어깨에 덩굴 채찍을 가로질러 메고 있었다.

그 곁에는 키가 크고 작은 요괴들, 뚱뚱하고 마른 요괴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는데 모두 소 머리를 한 귀신들이었으며 저마다 창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세 개의 큰 깃발이 있었는데, 깃발에는 분명하게 ‘벽한대왕’, ‘벽서대왕’, ‘벽진대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오공은 잠시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이 요괴 놈아! 이 몸이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그러자 요괴가 호통을 쳤다. “네놈이 바로 하늘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손오공이냐? 이름은 익히 들었으나 실제로 보니 천신들도 부끄러워할 만큼 보잘것없구나. 네놈이 고작 이런 원숭이였더냐?” 손오공은 크게 분노하여 옥설을 퍼부었다. “기름이나 흠치는 도둑놈 같은 요괴 놈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우리 스승님을 돌려주어라!” 손오공은 곧장 달려들어 철봉을 휘둘렀고, 세 요괴도 각자의 병기를 치켜들고 급히 맞서 싸웠다. 산골짜기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시로 이르되, 도끼와 칼이 창강거리고 덩굴 채찍이 휘둘러질 때, 원숭이 왕은 철봉 하나로 당당히 맞서네. 벽한, 벽서, 벽진 세 요괴는, 제 천대성의 이름을 알아보네. 철봉이 치솟으니 귀신도 벌벌 떨고, 도끼와 칼이 난무하니 어지러이 날뛰네. 장하다, 혼원(混元)의 도법을 지닌 진공(眞空)의 화신이며, 가짜 부처로 둔갑한 세 요괴를 막아서네. 기름 흠쳐 콧속 적시려는 저 세 요괴는 올해도 죄를 짓고, 임금님의 명을 받든 승려를 기어이 잡으려 하네. 이쪽(손오공)은 스승을 위해 먼 산길도 마다않고, 저쪽(요괴)은 제 입맛을 채우려 해마다 등불 공양을 차리게 했네. 창강창강 도끼와 칼 부딪치는 소리뿐, 퍽퍽 하며 철봉 치는 소리 요란하구나. 세 요괴가 한데 엉켜 하나(손오공)에게 몰아치니, 각자 막고 가리며 능력을 뽐내네. 싸움이 이어져 어느덧 해는 저무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알 길이 없구나.

손오공은 철봉을 휘두르며 세 요괴와 백오십 합을 넘게 싸웠으나, 날이 저물 때까지 승부는 나지 않았다. 그때 벽진대왕이 덩굴 채찍을

한 번 휘두르며 진영 앞으로 뛰어오더니 깃발을 흔들었다. 그러자 소빨이 달린 요괴 무리가 우르르 몰려나와 손오공을 가운데 두고 에워싼 채, 각자의 병기를 휘두르며 어지럽게 공격해 왔다. 손오공은 상황의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는 즉시 근두운을 타고 잽싸게 자리를 피했다. 요괴들은 굳이 쫓아가지 않고 줄개들을 불러 모아 저녁 식사를 차려 먹었다. 그러고는 작은 요괴를 시켜 당승에게 밥 한 그릇을 가져다주게 했는데, 손오공 일행을 완전히 붙잡아야 본격적으로 손을 쓰겠다는 심산이었다. 당승은 본래 오래도록 채식 정진을 지켜 온 데다 마음마저 괴로워, 눈물을 흘리며 차마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울기만 했다.

한편,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자운사로 돌아와 "사제들아!" 하고 크게 불렀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마침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며 애를 태우던 참이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제히 뛰어나와 맞이하며 말했다.

"형님, 어찌하여 하루 종일 안 보이다가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 스승님의 행방은 좀 어찌 되었나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바람처럼 달려 새벽녘에 어느 산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구나. 다행히 사치 공조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 산은 청룡산이라 하고 산속에 현영동이라는 동굴이 있단다. 그 동굴에는 벽한대왕, 벽서대왕, 벽진대왕이라고 불리는 요괴 세 마리가 살고 있더구나. 원래 이 근방에서 오랫동안 기름을 훔치려고 불상으로 변신해 금평부의 관리들과 사람들을 속여 왔단다. 그런데 올해 우리를 만나자, 주제 파악도 못 하고 도리어 스승님까지 낚아채 간 것이야. 내가 상황

을 파악하고 공조들에게 스승님을 몰래 보호하라고 일러둔 뒤, 나는 가까운 문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유인했지. 그러자 그 세 괴물이 한꺼번에 튀어나왔는데, 모두 소 뿔이 달린 귀신 형상을 하고 있더구나. 첫째는 큰 도끼를 쓰고, 둘째는 큰 칼을 쓰고, 셋째는 덩굴 몽둥이를 썼다. 그 뒤로는 소 머리 귀신 무리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몰려와서 나랑 하루 종일 싸웠는데, 결국 승부를 내지 못했어. 요괴 왕이 깃발을 흔드니 작은 요괴들까지 다 몰려오더구나. 날이 저물어 가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근두운을 타고 돌아온 것이다."

저팔계가 말했다. "설마 풍도성의 귀신 왕들이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요?"

사오정이 물었다. "형님은 어째서 풍도성의 귀신 왕들이라고 짐작하십니까?"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이 소 머리 귀신들이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알 것 같아서 그렇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 괴물들은 코뿔소 세 마리가 정령이 된 것이야."

그러자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만약 코뿔소라면, 얼른 잡아서 뿔을 톱으로 잘라 봅시다. 그러면 은자 몇냥은 족히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한편, 스님들이 말했다. "손 대인, 저녁 공양을 좀 하시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대충 좀 먹으면 되지, 안 먹어도 상관없소." 스님들

이 다시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싸우며 돌아다니셨는데, 어찌 배가 고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좀 돌아다녔다고 배가 고프겠소? 이 손오공은 오백 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낸 몸이란 말이오.” 스님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고 그저 농담하는 줄로만 알았다. 잠시 후 음식이 차려지자, 손오공도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잠을 좀 잡시다. 내일 다 같이 가서 요괴 왕을 붙잡아야 스승님을 구할 수 있지 않겠소.”

옆에 있던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부터 ‘오래 지체하면 변고가 생긴다(머뭇거릴수록 일이 꼬인다)’고 하잖습니까. 만약 그 요괴가 오늘 밤 잠을 자지 않고 스승님을 해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차라리 지금 당장 가서 놈이 손쓸 틈도 없이 소란을 피워야 스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이 날지도 몰라요.”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기세를 떨치며 말했다. “사 형제 말이 맞다! 우리 모두 이 달빛을 빌려 마귀를 잡으러 가자꾸나.”

손오공도 그 말에 따르며 자운사 스님들에게 당부했다. “짐과 말들을 잘 지켜주시오. 우리가 요괴를 잡아 오거든, 이 지역 자사에게 가서 저것들이 가짜 부처였음을 증명해 보이겠소. 그리하여 등불 기름 공납을 면제시켜 온 현 백성들의 곤란을 덜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스님들이 명을 받들었다. 세 사람은 곧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성 밖으로 날아갔다.

시로 이르되, “게으름 피우며 구속 없이 지내니 선한 성품이 어지러
워지고, 재앙과 위기가 닥칠 때 도를 닦는 마음은 이미 흐려졌구나.”

결국 이번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2회 — 세 스님이 청룡산에서 크게 싸우고, 네 별이 코뿔소 괴물을 협박하여 붙잡다

三僧大戰靑龍山 四星挾捉犀牛怪

한편, 손오공은 두 사제와 함께 바람을 일으키며 구름을 타고 북동쪽 간방(艮方)을 향해 달려갔다. 순식간에 청룡산 현영동 입구에 도착한 손오공이 구름에서 내려오자, 저팔계가 골장 문을 부수려 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스승님의 생사가 어떠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놈들과 한판 붙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오정이 물었다. “문이 이토록 짝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에게는 다 방법이 있다.”

"좋아, 대성님!"

손오공은 여의봉을 거두고 주문을 외우며 소리쳤다. "변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오공은 정말로 번쩍번쩍 빛나는 화염충으로 변신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신묘했다.

시로 이르되, "날갯짓에 별빛 흐르고 빛이 찬란하니, 썩은 풀이 반딧불이 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구나. 신통한 변화는 결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니, 저 스스로 떠도는 성질을 지녔도다."

손오공은 날개를 펴고 돌문 근처로 날아가 틈새로 안을 살폈다. 그리고는 몸을 쭉 날려 어두운 안뜰로 들어간 뒤, 요괴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가 안으로 날아 들어가 보니, 소 몇 마리가 여기저기 쓰러져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중앙 대청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사방의 문과 출입구가 모두 닫혀 있어, 세 요괴가 대체 어디서 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손오공이 대청을 돌아 뒤편을 살펴보니,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당삼장이 뒷방 기둥에 묶인 채 울고 있는 것이었다. 손오공은 그가 왜 저토록 서럽게 우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당삼장은 울며 이렇게 읊조리고 있었다.

"장안을 떠난 지 벌써 십수 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고생만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다행히 서역에 와서 명절을 맞이하고, 기쁘게 금평부에 이르러 원소절을 만났건만, 등불 속 가짜 불상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 또한 내 팔자에 닥친 재앙이로구나. 어진 제자들이 위엄을 떨치며 쫓아와, 부디 영웅들이 큰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랄 뿐이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날개를 펴고 스승님 곁으로 날아갔다. 당삼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 서방의 풍경은 다르다더니, 지금은 정월이라 벌레들이 막 깨어날 때인데 어찌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이냐?"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당삼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오공아! 정월에 어찌 반딧불이가 있나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손오공은 즉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께 서 가짜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바람에 얼마나 길을 헤매고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일행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다고 절을 하시려는데, 저 요괴 놈들이 가짜 등불로 눈을 속이고 향과 기름을 훔치더니 급기야 스승님까지 납치해 갔지 뭐니까. 제가 팔계와 사오정에게는 절을 지키라고 일러두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곳까지 쫓아왔는데 지명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사치공조(하늘의 관리를 돕는 신들)가 이곳이 청룡산 현영동이라고 알려주더군요. 낮에 요괴들과 싸우다 밤이 되어서야 돌아와 사제들에게 이 사정을 말했는데, 녀석들이 잠도 안 자고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이 깊어 싸우기 불편하기도 하고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서, 변신해서 몰래 들어와 살펴보러 왔습니다."

당삼장이 반가워하며 물었다. "팔계와 사오정은 지금 밖에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네, 밖에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니 요괴들은 모두 잠들었더군요. 제가 얼른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어 스승님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당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손오공은 자물쇠를 푸는 법을 써서 손으로 숙 문지르니, 자물쇠가 금세 저절로 열렸다. 손오공이 스승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갑자기 요괴 대왕이 중청 안쪽 방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들아, 문을 꼭 닫고 촛불 조심해라! 그런데 왜 순찰을 돌라고 소리를 안 지른 게냐? 딱딱이(경을 치는 도구) 소리조차 들리지 않다니!"

알고 보니 요괴 무리가 하루 종일 싸우느라 모두 고생하며 잠들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잠에서 깬 것이었다. 딱딱이 소리가 울리자 무기를 든 요괴 몇 명이 징을 치며 뒤에서 걸어오다가, 스승과 제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요괴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이놈, 스님! 자물쇠를 따고 어디를 가느냐?"

손오공은 대꾸할 겨를도 없이 여의봉을 휘 꺼내 들었다. 몽둥이가 그릇만큼 굵직하게 변하더니 사정없이 휘둘러졌고, 봉이 휘둘러질 때마다 요괴 둘이 맞아 죽었다. 남은 요괴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내팽개치고 중청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털북숭이 스님이 집에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 요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없이 벌떡 일어나 "잡아라! 잡아!"라고 소리쳤다. 당삼장은 겁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떨렸다. 손오공은 스승을 돌볼 겨를도 없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앞으로 돌진했다. 요괴들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손오공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두세 명은 쓰러지고 두세 명은 밀려났다. 손오공은 문을 몇 겹이나 뚫고 단숨에 밖으로 나오며 외쳤다.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저팔계와 사오정이 갈퀴와 지팡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다.

"형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오공은 변신해서 안으로 들어가 스승을 풀어드리고 막 나오려다, 요괴들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스승을 챙기지 못한 채 싸워서 빠져나온 일을 두 사제에게 한 차례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적지 않는다.)

요괴 왕은 당삼장을 붙잡아 여전히 쇠사슬로 꽂꽂 묶어 두었다. 그는 칼을 움켜쥐고 도끼를 휘두르며 등불을 밝히고는 위협적으로 물었다.

“이놈아, 자물쇠는 어떻게 열었느냐? 그 원숭이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지? 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몸을 두 동강 내버리겠다!”

당삼장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왕님, 대왕님! 제 제자 손오공은 일흔두 가지 변신술을 부릴 줄 압니다. 방금 불꽃 벌레로 변신해서 저를 구하러 날아 들어왔는데, 대왕님께서 눈치채시는 바람에 소대왕님 일행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 제자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두 놈을 다치게 하는 바람

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불길이 치솟자 저를 돌볼 겨를도 없이 급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세 요괴 왕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진작에 눈치를 챘으니, 도망치지는 못했겠구나.”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앞뒤 문을 꼭 닫아걸고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사오정이 말했다. "문을 닫아걸고 소란도 피우지 않는 걸 보니, 분명 우리 스승님을 몰래 해치려는 것이 분명해요. 어서 공격합시다."

손오공이 맞장구쳤다. "그 말이 맞다. 어서 문을 부수자!"

저팔계가 신통력을 뽐내며 쇠갈퀴를 높이 들고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그러자 돌문이 가루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 저팔계는 기세를 몰아 크게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기름이나 흠쳐 먹는 도둑놈 같은 요괴 놈들아! 어서 우리 스승님을 내놓아라!"

문 안쪽에 있던 작은 요괴가 깜짝 놀라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앞문이 스님한테 부서졌습니다!"

세 명의 요괴 왕은 몹시 짜증이 났다. "이놈들이 정말 무례하구나!" 그들은 즉시 갑옷을 갖춰 입고 무기를 챙긴 뒤, 부하 요괴들을 거느리고 적을 맞이하러 문밖으로 나섰다.

때는 마침 한밤중(삼경)이라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요괴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말 한마디 섞을 것도 없이 곧바로 무기를 휘둘렀다. 손오공은 도끼를 막아냈고, 저팔계는 큰 칼을 상대했으며, 사오정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맞섰다. 싸움은 그야말로 격렬했다.

시로 이르되,

세 스님과 세 요괴가 몽둥이와 갈퀴를 들고 맞서니 세 요괴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도끼와 칼이 부딪치며 바람 소리와 먼지바람이 일고 처음에는 안개처럼 뿌옇더니 이내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흩날리네. 쇠갈퀴는 몸을 굴리며 요리조리 움직이고 철몽둥이를 휘두르는 영웅의 기개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요괴를 물리칠 보배로운 지팡이는 세상에 드물건만 요괴들의 고집도 만만치 않아 물러서질 않네. 날카로운 도끼와 예리한 창끝이 번뜩이고 덩굴 채찍은 마디마디 요란하게 휘둘러지네. 번쩍이는 큰 칼은 문짝처럼 흔들거리는데 스님들의 신통력은 요괴들에게 뒤지지 않네. 이쪽에서는 스승님의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저쪽에서는 당삼장을 해칠 기세로 몰아붙이네. 도끼와 몽둥이가 맞부딪치며 승부를 다투고 갈퀴와 칼이 번갈아 가며 쉴 새 없이 오가네.

세 스님과 세 요괴가 한참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싸우고 있을 때였다. 피한대왕이 소리쳤다. "애들아, 모두 올라와라!"

요괴 정령들이 각자 무기를 들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러자 저팔계가 순식간에 땅에 넘어졌고, 물소 요괴 몇 명에게 붙잡혀 덩굴 안으로 끌려가 뽕뽕 묶여버렸다. 사오정은 저팔계가 사라진 것을 보고, 또

소 떼가 고함을 지르며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보배로운 지방이를 뽑아 들고, 피진대왕을 향해 거짓으로 한 번 겨누는 시늉을 한 뒤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요괴 떼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일어서지도 못한 채 붙잡혀 함께 묶이고 말았다.

손오공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즉시 근두운을 타고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사이 요괴들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당삼장 앞으로 끌고 갔다. 당삼장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여운 제자들아, 어찌 이런 험한 일을 당했느냐. 오공은 어디 있느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스승님, 손오공 형님이 저희가 잡히는 걸 보고 도망쳤습니다."

당삼장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가 도망쳤다면 분명 어딘가에 구원을 요청하러 갔을 게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쯤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스승과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다시 자운사로 돌아오자, 절의 스님들이 달려 나와 물었다.

"당승 어른을 구하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네, 어려워. 그 요괴가神通력이 워낙 막강해서 우리 형제 셋이서 요괴 셋과 한참을 싸웠지만, 요괴가 부른 잔챙이

들에게 저팔계가 먼저 붙잡히고 사오정까지 잡히고 말았네. 나만 겨우 빠져나왔다네."

스님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제천대성처럼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분께서도 잡지 못하셨다니, 스승님께서 큰 화를 당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달랐다.

"걱정 말게, 걱정 말게. 우리 스승님은 가람신이나 게체(揭諦), 정갑(丁甲) 같은 신령들이 몰래 보살펴주고 계시니 괜찮을 걸세. 게다가 예전에 초환단(草還丹, 장생의 영약)도 드셨으니 목숨을 잃지는 않을 거야. 다만 그 요괴가 워낙 재주가 좋으니, 자네들은 말과 짐을 잘 지키고 있게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 구원병을 구해 오겠네."

스님들이 겁을 먹고 물었다.

"대성께서 하늘로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천계는 원래 내 집이나 다름없네. 예전에 내가 제천대성 노릇을 하며 반도회(천계의 잔치)를 어지럽혔다가 부처님께 항복했지 뭐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승을 모시고 경전을 구하며, 길 위의 악을 물리쳐 공을 세우고 죄를 씻으려 하는 중이라네. 우리 스승님께 이런 고난이 닥친 줄도 모르고 있었구먼."

스님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손오공은 문밖으로 나가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좋다, 대성! 서천문 밖까지 일찍도 왔구나.”

손오공이 도착하자 태백금성과 증장천왕, 그리고 은, 주, 도, 허 네 명의 영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손오공이 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예를 갖추며 물었다.

“대성,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당삼장을 모시고 인도 동쪽 경계인 금평부 민천현까지 왔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고을 자운사의 승려가 원소절 잔치에 초대하여 머물고 계셨지요. 그런데 금등교에 이르니 금등 세 개가 놓여 있는데, 그 등불을 켜는 데 쓰는 기름이 아주 귀한 백금 오만 냥이나 하는 것이라 매년 여러 부처님이 내려와 복을 받으신다고 하더군요. 마침 그때 정말로 세 분의 불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다짜고짜 다리 위에서 절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싶어 말리려 했으나, 그만 등불의 빛과 기름, 그리고 스승님의 기운까지 바람을 타고 몽땅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따라 쫓아갔고, 날이 밝을 무렵 어느 산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네 명의 공조가 알려주기를, 그 산의 이름은 청룡산이며 그 안에 현영동이라는 동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동굴에는 피한대왕, 피서대왕, 피진대왕이라는 세 요괴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급히 찾아가 한바탕 싸워보았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변신

시켜 몰래 들어갔더니 스승님이 쇠사슬에 묶인 채 다치지 않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스승님을 풀어드리고 나가려는데, 그놈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뒤에 팔계와 사오정도 함께 싸웠지만, 결국 그놈들에게 붙잡혀 꿈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황제께 이 사실을 특별히 보고하여, 그놈들의 정체를 밝히고 처단할 명을 얻고자 합니다.”

태백금성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대성께서 요괴와 맞서 싸우셨으니, 그놈들의 출처 정도는 이미 눈치채셨을 것 아닙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알고말고요, 알고말고요. 전부 소의 정령들입니다. 다만 그놈들이 신통력이 워낙 뛰어나서 단번에 제압하기가 쉽지 않군요.”

태백금성이 설명했다.

“그놈들은 코뿔소 요괴 세 마리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기운을 받아 오랫동안 수련하여 진정한 영물로 거듭났기에, 구름을 타고 안개를 밟으며 날아다닐 수도 있지요. 그놈들은 아주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평소 자신의 몸이 더럽다며 자주 물에 들어가 씻으려 합니다. 이름도 아주 다양하지요. 사이서, 웅서, 고서, 반서라 불리기도 하고, 호모서, 타라서, 통천화문서라고도 합니다. 모두 코 하나에 털 세 가닥, 뿔 두 개를 가진 모습으로 강과 바다를 누비며 물길을 가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한, 피서, 피진이라는 이름도 뿔에 귀한 기운이 서려 있어

대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놈들을 잡으려면 사목금성(네 별의 정령)만 만나게 하면 바로 굴복할 것입니다.”

손오공이 서둘러 물었다.

“그 사목금성이 대체 누구입니까? 부디 장경 노인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태백금성이 웃으며 말했다.

“그 별들은 두우궁 밖에 있으며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옥황제께 보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손오공은 두 손을 모아 감사를 표하고는 곧장 천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손오공은 통명전에 내려가 먼저 갈, 구, 장, 허 네 명의 천사를 만났다. 천사들이 길을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금평부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정월 대보름을 맞아 등불 구경을 하러 가셨다가, 요괴에게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 옥제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네 천사는 즉시 손오공을 영소보전으로 안내하여 옥제에게 보고하도록 도왔다.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친 뒤 손오공이 그간의 일을 상세히 아뢰자, 옥제가 명을 내렸다. "어느 길의 천병들을 보내 도와주도록 할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제가 막 서천문에 도착했을 때 장경성(금성)을 만났는데, 그 괴물이 코뿔소 정령이라 사목금성만이 그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옥제는 즉시 천사들을 보내 두우궁에 있는 사목금성을 불러 하계로 내려가 요괴를 잡도록 명했다.

궁궐 밖에 이르니, 이미 이십팔수 별의 정령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나는 성지를 받들어, 사목금성(네 명의 나무 정령)과 손대성을 내려보내 요괴를 잡으라고 명받았다."

그러자 각목교, 두목해, 규목랑, 정목안이 번쩍이며 나타나 소리쳤다. "손대성님, 저희더러 어디로 가서 요괴를 잡으라 명하시겠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너희들이었구나. 장경성 그 늑은이가 왜 숨어 있는지 도통 모르겠군. 처음부터 이십팔수 중 사목금성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직접 부탁하러 왔을 텐데, 굳이 성지까지 내리게 해서 번거롭게 만들었지 않느냐?"

사목금성이 대답했다. "대성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성지를 받들지 않고 어찌 감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대체 요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금평부 동북쪽 간방에 있는 청룡산 현영동에 코뿔소 요괴가 나타났다."

그러자 두목해, 규목랑, 각목교가 말했다. “정말로 코뿔소 요괴라면 저희까지 나설 필요 없습니다. 정목안만 보내면 됩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 호랑이를 잡아먹고, 바다에 들어가 코뿔소를 잡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그 코뿔소는 예전에 달을 보며 수련했다는 전설 속의 코뿔소와는 다르다. 도를 닦아 천 년의 수명을 가진 놈이야. 그러니 너희 넷이 함께 가야 한다. 절대로 미루지 마라. 만약 한 명이라도 가서 요괴를 잡지 못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천사가 꾸짖듯 말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성지에서 너희 넷을 지목했는데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서 날아가거라. 나는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천사는 이 말을 남기고 손오공과 헤어져 떠났다.

사목금성의 네 별이 말했다. "손대성, 망설이지 마십시오. 먼저 싸움을 걸어 놈을 밖으로 유인해 내면, 저희가 곧바로 뒤따라 공격하겠습니다."

손오공이 즉시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외쳤다. "기름이나 흠쳐 먹는 도둑놈 같은 요괴 놈들아! 우리 스승님을 내놓아라!"

알고 보니 저팔계가 부수어 놓은 문을 요괴들이 나무판자 몇 개로 급히 막아둔 상태였다. 안에서 욕설이 들려오자 요괴들이 급히 복도로 달려 들어갔다. "대왕님, 손오공이 밖에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피진대왕이 말했다. "그놈은 패해서 도망갔을 텐데, 오늘 어찌 또 나타나단 말이나? 분명 어딘가에서 구원병이라도 데려온 모양이다."

피한대왕과 피서대왕이 거들었다. "구원병이 무어 그리 두렵단 말이나? 어서 갑옷을 가져오너라.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놈을 에워싸야 한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요괴들은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르고 저마다 창과 칼을 쥐고 깃발을 흔들며 북을 울리며 동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고는 손오공을 향해 소리쳤다. "이 때를 버는 원숭이 놈아, 또 왔느냐!"

손오공은 '원숭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기에, 이를 악물고 분노를 터뜨리며 철봉을 휘둘러 내리쳤다. 세 명의 요괴 왕은 부하들을 시켜 원형 진을 짜고 손오공을 한가운데 가두어 공격했다. 이때 사목금성의 네 별이 무기를 휘두르며 호령했다. "이 죄 많은 짐승들아! 손대성에게 덤비지 마라!"

세 요괴 왕은 사목금성의 정체를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들이 벌써 구원병을 데려왔구나. 애들아,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쳐라!"

순식간에 요괴들이 헉헉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요괴들이 모두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산소, 물소, 황소 정령들이었다. 요괴들이 산 전체를 가로질러 정신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세 요괴 왕 역시 본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으로 변해 마치 쇠공처럼 굴러가듯 동북쪽을 향해 달아났다.

손오공은 정목안과 각목교를 거느리고 한시도 쉬지 않고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한편, 규목랑과 두목해는 동쪽 산의 움푹한 곳과 산등성이, 계곡과 골짜기마다 살살이 뒤지며 소와 물소 요괴들을 때려죽이거나 산 채로 잡아 모두 소탕했다. 그러고는 현영동으로 들어가 당승과 저팔계, 사오정을 구해냈다.

사오정은 그들이 이성(二星)임을 알아보고 함께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두 분께서는 어찌 이곳까지 오셔서 저희를 구해 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성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손대성께서 옥제께 상소를 올려서, 요괴를 잡고 스님을 구하라는 명을 받아 내려온 것이요."

당삼장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의 제자 오공은 어찌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이성이 말했다. "그 세 마리 요괴는 코뿔소들인데, 우리를 보자마자 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북동쪽 간방(艮方)으로 도망쳤소. 손대성께서 정목안과 각목교를 거느리고 뒤쫓아 가셨다오. 우리 이성(二星)은 흩어진 코뿔소 떼를 소탕하다가 이곳에 이르렀으니, 특별히 성스러운 스님을 구해드리러 온 것이요." 당삼장은 다시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하늘을 향해서도 절을 올렸다.

저팔계가 당삼장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스승님, 예의를 너무 차리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니 무작정 절만 하지 마십시오. 네 분 신관님들께는 첫째로 옥제의 성지가 있고, 둘째로는 사형의 정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요괴들을 소탕하고는 있지만, 저 늙은 요괴들을 어떻게 굴복시킬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선 귀중한 물건들을 좀

챙겨서 이 동굴을 통째로 뒤엎어 버립시다. 그래야 요괴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으니, 일단 사찰로 돌아가 사형을 기다립시다."

규목랑이 말했다. "천봉원수의 말이 옳다. 너는 네 스승을 보호하여 사찰로 돌아가 쉬게 하거라. 우리는 다시 간방으로 가서 적을 맞이하겠다."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말고요, 맞습니다! 두 분께서도 힘을 합쳐 요괴를 잡아, 반드시 싹을 쓸어버린 뒤에 보고를 올리셔야 합니다." 이성 신관들은 즉시 요괴들을 뒤쫓아 떠났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동굴 안에 가득한 산호, 마노, 진주, 호박, 옥, 보석, 미옥, 황금 같은 온갖 보물을 한 무더기 쏟아내어 밖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스승님을 모시고 산 절벽 위로 올라가 앉게 한 뒤,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질러 동굴 전체를 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제야 저팔계와 사오정은 당삼장을 모시고 금평부 자운사로 돌아갈 길을 찾아 나섰다.

시로 이르되,

경전에 이르기를 "태(泰)가 극에 이르면 다시 비(否)가 돌아온다" 하였으니, 좋은 때에 오히려 흉한 일을 만나는 법이 실로 이러하구나.

꽃등의 아름다움에 탐닉하면 선한 성품이 어지러워지고, 아름다운 경치에 노닐기를 즐기면 도를 닦는 마음이 흐려지는 법이라.

대단(大丹)은 예부터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니, 한 번 잃어버리면 끝내 모자람에 이르고 마는 법이라.

문을 굳게 닫고 단단히 매어두어 방심하지 말아야 하거늘,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모든 것이 어긋나고 말리라.

한편, 세 제자가 명령을 받고 절로 돌아간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두 별의 신관인 두목해와 규목랑이 구름을 타고 요괴를 쫓아 동북쪽 간방을 향해 곧장 달려가는 이야기를 해보자. 두 사람은 공중에서 한참을 찾아보았으나 요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서쪽 바다에 이르러 멀리서 손오공이 바닷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물었다.

"대성, 요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손오공이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당신들은 왜 요괴를 쫓아 잡으러 오지 않고, 이제 와서 그렇게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요?"

그러자 두목해가 대답했다.

"대성께서 정목안, 각목교 두 별의 신과 함께 요괴와 싸워 물리치고 뒤쫓는 것을 보고, 분명 요괴를 사로잡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요괴 무리를 소탕하고 현영동으로 들어가 스승님과 사제들을 구출했습니다. 산을 뒤희고 동굴을 태운 뒤, 스승님을 사제에게 맡겨 관아의 자운사로 무사히 모셔다드렸지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수레가 돌아오지 않기에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렇다면 정말 큰 공을 세웠구려. 고생이 많았소, 정말 고생이 많았소. 그런데 그 세 요괴를 내가 여기까지 몰아붙였더니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단 말이오. 분명 정목안과 각목교 두 별이 바짝 추격하고 있을 테니, 나는 해변에서 적을 막고 있겠소. 당신들은 이제 왔으니 해변에서 길목을 지키고 계시오. 그러면 나도 다시 가서 쫓아오겠소."

손대성이 여의봉을 휘두르고 주문을 외우며 물길을 가르자, 파도가 치는 깊은 물속으로 곧장 들어갔다. 그곳을 보니 세 요괴가 물밑에서 정목안, 각목교와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손대성이 그들 앞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이 몸이 왔다!"

요괴들은 두 성관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던 차에 갑작스러운 손대성의 외침을 듣고는, 살길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려 바다 한가운데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저 요괴의 머리에 난 뿔은 물을 가르는데 힘이 매우 강해서, 뿔이 움직일 때마다 물결이 일며 앞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뒤따르던 두 성관과 손대성은 그들을 힘껏 뒤쫓았다.

한편, 서해에는 바다를 탐사하는 야차와 바다를 순찰하는 장수들이 있었다. 이들은 코뿔소 요괴들이 물살을 가르며 나타나는 것을 멀리서 보고, 손오공과 두 천성(天星)이 뒤쫓아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즉시 수정궁으로 달려가 용왕에게 다급히 보고했다.

"대왕님, 코뿔소 요괴 세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천대성과 두 천성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늙은 용왕 오순(敖順)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태자 마양(摩昂)을 불렀다.

"어서 병사들을 불러라! 필시 코뿔소 요괴인 피한, 피서, 피진 세 놈이 손오공의 화를 뚫은 모양이구나. 이제 바다까지 왔으니, 어서 칼을 뽑아 들고 도와라!"

명령을 받은 마양이 서둘러 병사들을 소집했다. 순식간에 거북과 자라, 물고기와 잉어, 그리고 새우와 게 모양의 병사들이 창과 칼을 하나씩 들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수정궁 밖으로 튀어나와 코뿔소 요괴들을 가로막았다.

코뿔소 요괴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급히 뒤로 물러났는데, 이때 정목안과 각목교 두 별의 정령이 손오공과 함께 앞길을 막아섰다. 요괴들은 혼비백산하여 무리에서 떨어졌고,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그중 피진은 이미 용왕이 이끄는 군대에 포위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기뻐하며 외쳤다.

"그만해라, 그만해! 죽이지 말고 산 채로 잡아라!"

마양이 그 명령을 듣고 단숨에 달려나가 피진을 바닥에 굴러 넘어뜨렸다. 그러고는 쇠갈고리로 코뿔소의 코를 꿰고 발을 묶어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용왕은 다시 호령을 내려 병사들을 나누어 보내 두 요괴를 쫓게 하고, 두 별의 정령이 요괴들을 붙잡는 것을 돕게 했다. 즉시 모양이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가 보니, 정목안이 본모습을 드러낸 채 피한대왕의 목을 누르고는 커다란 입으로 뜯어먹고 있었다. 모양이 크게 외쳤다.

"정목안, 정목안! 너무 세게 물지 마라! 손오공이 죽은 놈이 아니라 산 놈을 원한다!"

모양이 몇 번이나 연달아 소리쳤지만, 이미 정목안은 피한대왕의 목을 물어 끊어버린 뒤였다.

마양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죽은 코뿔소 요괴를 수정궁으로 옮기게 한 뒤, 곧장 정목안과 함께 뒤를 쫓았다. 그때 각목교가 피서대왕을 뒤로 몰아붙이며 돌아오다가 정목안과 딱 마주쳤다. 마양은 거북과 자라, 악어 부대를 거느리고 키 모양의 진(簾箕陣)을 펼쳐 요괴를 포위했다.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정목안이 가까이 다가가 요괴의 귀를 덥석 움켜쥐고는 칼을 빼앗으며 외쳤다.

"넌 죽이지는 않겠다. 손오공에게 데려가 처벌을 받게 하리라!"

손오공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 수정궁 밖으로 나가 "모두 잡아 왔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손오공이 보니, 한 놈은 머리가 잘린 채 피칠갑이 되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놈은 정목안에게 귀를

붙잡힌 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
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 머리는 칼에 맞은 상처가 아니구나."

모양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워낙 세계 몰아붙인 탓에, 몸뚱이까지
정목안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톱을 가져와서 이놈의 뿔
두 개를 잘라내고 가죽을 벗겨 가져. 코뿔소 고기는 용왕님과 모양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벽진아의 코를 꿰어 각목교에게 끌고 가게 하고, 벽서아의
코도 꿰어 정목안에게 끌고 가게 했다. 손오공이 덧붙였다. "이놈들을
금평부 관아로 데려가 자사에게 보여주고, 그 내막을 명백히 조사하게
해라. 오랫동안 가짜 불상을 세워 백성들을 해친 죄를 몰어 엄히 처단
하도록 해라."

일행은 말에 따라 서해 용왕 부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해를 나
왔다. 그들은 코뿔소 요괴를 끌고 규목랑과 두목해를 만난 뒤, 구름과
안개를 타고 곧장 금평부로 향했다.

손오공은 상서로운 빛을 밟고 공중을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금평부 자사, 모든 관리와 성 안팎의 군사 및 백성들은 똑똑히 들으
시오! 나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성스러운 승려
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대들이 매년 부와 현에서 금등(金燈)을 공
양하며 마치 부처님이 복을 내리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사실은 바로
이 코뿔소 요괴의 짓이었다! 우리가 이곳을 지나던 중 원소절 등불 구

경을 하다가, 이 괴물이 등불 기름과 우리 스승님을 가로채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천신을 청해 이를 제압했다. 이제 산속 동굴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괴들을 모두 소탕했으니, 더 이상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대들의 부와 현에서는 다시는 금등을 공양하지 마시오.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재물을 낭비할 뿐이오!"

한편, 자운사에서는 저팔계와 사오정이 당승을 모시고 막 산문을 들어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공중에서 손오공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스승을 뒤로하고 짐까지 내팽개친 채,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손오공에게 요괴를 퇴치한 일을 물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물 별에게 물려 죽은 놈 한 마리는 이미 뿔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 가져왔고, 나머지 두 마리는 산 채로 잡아 왔네."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그럼 이 두 놈을 아예 이 성안으로 밀어 떨어뜨립시다. 그래야 관리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성스러운 신선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네 명의 성관(별의 정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가 관아로 함께 가기로 했으니, 이 괴물들의 죄를 관아에서 판결하게 합시다. 이미 죄가 명백한데 더 따질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명의 성관이 말했다. "천봉원수께서 근래 들어 법도를 밝히는 데 아주 능숙해지셨군요."

저팔계가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다. "이 몇 년 동안 스님 노릇을 하다 보니 조금 배우긴 했지요."

신선들이 정말로 코뿔소 요괴들을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자, 오색찬란한 구름이 관아 마당 위로 내려앉았다. 이 광경을 본 현령과 성안판의 모든 백성은 집집마다 향을 피운 상을 차려놓고 하늘의 신들에게 절을 올렸다.

잠시 후, 자운사의 스님들이 당승을 가마에 태워 관아 문 안으로 모셔 왔다. 스님들은 손오공을 보자마자 입을 모아 연신 감사 인사를 올렸다.

"성스러운 별의 신령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 가는 듯 걱정했는데, 이제야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괴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쳤기에 잡지 못하신 것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저 엇그제 스승님과 헤어진 뒤에, 제가 하늘로 올라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태백금성께서 이 요괴가 코뿔소라는 사실을 알아채 주시고, 사목금성(네 명의 별의 정령)을 불러달라고 일러주셨지요. 그때 옥제께 보고를 올려 명을 받은 뒤 동굴 입구까지 가서 싸웠으나, 요괴 왕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행히 두목해와 규목랑 두 별이 힘을 합쳐 스승님을 구해냈지요. 저와 정목안, 각목교 두 신선이 힘을 합쳐 요괴를 끝까지 뒤쫓았는데, 서쪽의 큰 바다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용왕께서 아드님을 보내 병사들과 함께 도와준 덕분에 겨우 이놈을 붙잡아 심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승은 손오공을 칭송하며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다. 한편, 금평부와 민천현의 관리들과 부하들도 모두 그곳에 모여 보물 같은 향을 높이 피우고 향을 가득 태우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다.

잠시 후, 저팔계가 흥이 오르자 계도를 쑥 뽑아 들더니, 피진대왕의 머리를 단칼에 베고 이어 피서대왕의 머리도 단칼에 베어 버렸다. 그러고는 곧바로 톱을 가져와 코뿔소의 뿔 네 개를 싹둑 잘라냈다.

이때 손오공이 좋은 방도를 내놓았다. "네 분의 성관께서는 이 네 개의 코뿔소 뿔을 천계로 가져가 옥제께 진상하고, 성스러운 교지를 받아 오십시오. 내가 가져온 뿔 두 개 중 하나는 금평부 관아에 남겨두어 나중에 등불 기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로 삼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직접 영산의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성관은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즉시 손오공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채운을 타고 홀연히 하늘로 돌아가 보고하러 떠났다.

금평부와 민천현의 관아에서는 당승 일행 네 사람을 머물게 하고, 정성껏 채식 잔치를 차려 마을 관리들을 모두 초대해 대접하였다. 한편으로는 관아 벽에 방을 붙여 군사와 백성들에게 공고하였다. 내년부터는 금빛 등불을 만드는 풍습을 금지하며, 기름을 사는 부유한 집들에 부과하던 세금도 영원히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불러 코뿔소의 가죽을 무두질하고 훈증하여 잘 말린 뒤 갑옷을 만들게 하였고, 고기는 관원들에게 널리 나누어 주었다. 또한 벌금으로 거둔 돈과 곡식을 내어 민간의 빈터를 사들인 뒤, 네 별의 정령이 요괴를 물리친 것을 기리는 사성강요묘를 세웠다. 아울러 당승 일

행을 위해서도 사당을 세우고 각각 비석을 세워 글을 새겨 넣으니, 이 공덕이 천년만년 전해지게 하였다.

스승과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대접을 받아들였다. 기름을 대는 이백사십 가구의 부유한 집안들이 너도나도 보답을 하겠다며 음식을 대접하니, 조금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저팔계는 아주 만족스럽게 대접을 받으며, 동굴에서 챙겨온 보물들을 종류별로 조금씩 소매에 챙겨 넣었다. 나중에 각 집의 잔치에서 상으로 내놓을 생각이었다. 그렇게 몇 달을 머물다 보니 도무지 떠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당승이 당부했다. "오공아, 남은 보물은 모두 자운사의 스님들에게 보내어 사례로 드려라. 그리고 부유한 집안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날이 밝기 전에 몰래 떠나자꾸나. 자칫 즐거움에만 빠져 불경을 구하는 일을 그르치면, 부처님께 죄를 짓고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매우 경계해야 한다."

손오공은 스승의 말에 따라 보물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처리했다.

다음 날 새벽 오경(五更)에 일찍 일어나 저팔계에게 말을 준비시키게 했다. 잠이 덜 깨 몽롱한 상태로 있던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이 이른 아침부터 왜 벌써 말을 준비하라는 거야?" 손오공이 꾸짖듯 말했다. "스승님께서 길을 떠나자고 하신다!" 저팔계는 얼굴을 비비며 대꾸했다. "또 스승님께서 장난을 치시네. 이 근처 큰댁 이백 마흔 곳에서 대접을 받아서 겨우 서른 끼 넘게 배불리 먹었을 뿐인데, 어째서 이 못난 돼지를 또 굶기려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이 꾸짖었다. "이 쓸모없는 녀석아, 헛소리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한 번만 더 입을 놀렸

다가는 손오공에게 여의봉으로 매를 맞을 줄 알아라!" 매를 맞는다는 소리에 겁을 먹은 저팔계가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스승님이 이번엔 정말 변하셨네. 평소에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리석어도 보살펴 주시며, 형님이 때리려고 하면 말려주시더니,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무섭게 매를 맞으라고 하시는 거지?"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네 입 때문에 길을 그르쳤다고 화가 나셨다. 매 맞기 싫으면 어서 짐을 챙기고 말을 준비해!" 정말로 매를 맞을까 두려워진 저팔계는 벌떡 일어나 옷을 꿰어 입으며 사오정을 불러 깨웠다. "빨리 일어나! 매 맞겠다!" 사오정도 얼른 일어나 함께 짐을 챙겼다. 당삼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조용히 움직여라. 절의 스님들을 깨우지 않도록 말이다." 일행은 서둘러 말에 올라 사찰의 문을 나서 길을 떠났다. 이번 여정은 말하자면 이러하다.

시로 이르되, 옥 새장을 몰래 열어 채색 봉황을 날려 보내고, 금 자물쇠를 몰래 풀어 교룡을 뛰놀게 하도다.

결국 날이 밝았을 때 보답을 바랐던 집안의 형편이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3회 — 급고원에서 옛이야기를 물으 니, 천축국 왕이 우연히 만남을 얻다

給孤園問古談因 天竺國朝王遇偶

사랑을 품으려는 마음이 일면 단호히 끊어야 하고, 정을 머금으면 반드시 재앙이 생기나니.

밝고 영특한 마음으로 어찌 삼태성의 이치를 가리려 하는가.

행실이 가득 차면 자연히 근원의 바다로 돌아가리라.

신선이 되든 부처가 되든 상관없으니,

모름지기 이 길에서부터 갈 길을 정해야 하네.

맑고 깨끗하여 속세의 먼지를 끊어내면,

과연 바른 뜻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리라.

한편, 절의 스님들은 날이 밝자 삼장 일행이 보이지 않자 모두 탄식하며 말했다.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고, 부탁할 말도 전하지 못했구나. 이 귀한 살아있는 보살님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떠나보내 버렸으니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인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쪽

관문 쪽에서 몇몇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다. 스님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어젯밤에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으나, 오늘 밤에는 모두 구름을 타고 떠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 소문이 퍼지자 성안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그 권세 있는 집안들은 모두 다섯 가지 고기와 온갖 과일을 준비하여, 왕생사(往生祠)에 제사를 지내며 은혜에 보답하느라 분주했다.

한편, 당승 일행은 노숙을 하며 길을 떠났는데, 반달 넘게 큰 탈 없이 평탄하게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앞에 높이 솟은 산이 나타났다. 당승이 다시 겁을 먹고 말했다. “제자야, 앞의 산맥이 험준하니 반드시 조심해야겠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쪽 길은 곧 불국토에 다다르는 길이라 요괴나 사악한 기운이 결코 없을 테니, 스승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비록 불국토가 멀지 않다 해도, 엇그제 절의 스님이 말씀하시길 천축국의 수도까지 아직 이천 리가 남았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길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모르겠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어찌하여 오소 선사의 《심경》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반야심경》은 내 몸과 같다. 오소 선사에게 배운 뒤로 하루라도 안 읽은 날이 있더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거꾸로 읽을지언정 어찌 잊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그저 읽으실 줄만 알 뿐, 그 뜻을 깨달아 풀이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어찌 내가 깨달지 못했다고 하느냐? 내가 깨달았단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았다고요.” 이후로 삼장과 손오공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팔계는 웃느라 쓰러

질 지경이었고, 사오정은 기가 막혀 웃음이 터졌다. 저팔계가 말했다. “입만 살아서는! 나처럼 요괴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사들이 강설을 듣거나 불교 스님들이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허풍을 떨며 '안다', '깨달았다' 하며 잘난 체를 하더니, 왜 갑자기 입을 싹 닫느냐? 어디 계속 들어보자, 어디 한번 풀이해 보시지!”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형님도 저 녀석 말을 믿으십니까? 큰형님이 말을 길게 늘어놓으며 스승님을 달래서 견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저 녀석은 몽둥이질할 줄만 알지, 경전을 풀 줄은 알겠습니까?”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오능아, 오정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손오공이 깨달은 것은 말이나 글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깨달음이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꽤 먼 거리를 지나 여러 산봉우리를 넘게 되었고, 길가에 커다란 절 하나가 나타났다. 삼장이 말했다.

“손오공, 저 앞에 절이 하나 있구나. 저 절을 보아라.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유리로 만든 푸른 기와가 빛나고, 새것 같지도 낡지도 않았지만 붉은 담장이 팔(八)자 모양으로 펼쳐져 있구나. 은은하게 드리워진 푸른 소나무를 보니 수천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고찰 같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니 어느 시대에 산을 깎아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구나. 산문에는 '포금선사(布金禪寺)'라고 크게 쓰여 있고, 걸린 현판에는 '상고의 유적'이라고 적혀 있구나.”

손오공도 '포금선사'라고 읽었고, 저팔계도 '포금선사'라고 말했다. 삼장은 말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포금(布金)'이라... '포금'이라... 혹시 이곳이 예전 사위국의 영토가 아니겠느냐?"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몇 년을 다녔지만, 길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길을 알아맞히시다니요!"

삼장이 설명했다.

"아니다. 내가 평소 경전을 읽으며 배웠는데,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급수급고원이라는 곳에서 설법을 하셨다고 했다. 그 정원은 급고독이라는 장자가 태자를 찾아가 정원을 사겠다고 청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그때 태자가 '이 정원은 팔지 않겠다. 만약 사고 싶다면 황금을 정원 가득 뿌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지. 그 말을 들은 급고독 장자가 황금을 벽돌처럼 정원 가득 뿌렸더니, 비로소 태자의 기원 정원을 살 수 있었고 세존의 설법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포금선사라는 이름이 혹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 참으로 기막힌 운명이군요! 만약 정말 그 이야기라면, 우리도 가서 황금 벽돌이라도 한 조각 찾아 남에게 선물해 줍시다!"

일행이 한참 동안 웃고 나서야 삼장은 말에서 내려섰다.

산문에 들어서니, 짐을 짊어진 이, 배낭을 멘 이, 수레를 미는 이, 수레에 앉은 이 등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잠을 자고 어떤 이는

이야기를 나누며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삼장 일행이 나타났는데, 잘생긴 이는 아주 잘생겼고 못생긴 이는 아주 못생긴 모습이라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고는 길을 비켜주었다. 삼장은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입을 쉬지 않고 "예의를 갖추게, 조심하게"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제야 사람들도 몸가짐을 정돈했다.

금강전 뒤편을 지나자, 이미 한 명의 선승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이러하였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밝고 빛나며 몸은 보리수나무처럼 곧고 늠름하네. 가사 소매는 바람에 휘날리고 짚신은 돌길 위를 가볍게 걷는구나.

삼장이 그를 보고 예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선승도 서둘러 답례하며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제자는 진현장이라 합니다. 동토 대당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서천의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보방을 지나던 차에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으니, 하룻밤만 머물다 내일 바로 떠나고자 합니다." 선승이 말했다. "이 거친 산속이라도 사방의 모든 이들이 머물 수 있으니 누구든 환영입니다. 하물며 장로께서는 동토에서 오신 신성한 승려이시니, 공양을 올릴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는 더없는 영광입니다." 삼장이 감사를 표한 뒤, 곧바로 세 제자를 불러 함께 가도록 했다. 일행은 회랑과 향적을 지나 방장실로 들어갔다. 인사를 마친 뒤 주인과 손님으로 나누어 자리에 앉았고, 세 제자 역시 손을 모으고 공손히 앉았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때 절 안에 동토 대당에서 온 경전을 구하는 승려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절의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이 장기 투숙 객이든,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이든, 어른 승려든, 어린 동자승이든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모두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차를 마신 뒤에는 공양을 차려냈다. 마침 노승이 공양을 올리며 계송을 읊고 있었는데, 저팔계는 성미가 급한 나머지 만두와 채소 요리, 국물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절의 주지 스님 곁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식견이 높은 이들은 삼장의 위엄 있는 모습을 찬양하며 말했고, 장난기 많은 이들은 저팔계가 먹는 모습을 구경했다. 이때 눈치가 빠른 사오정이 저팔계의 뒤를 살피더니, 몰래 저팔계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말했다.

“참으로 품위가 없으시군요.”

저팔계는 깜짝 놀라 급히 입을 놀리며 대답했다.

“품위는 무슨!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둘째 형님, 잘 모르시는군요. 세상에 품위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배 속을 들여다보면 형님이나 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제야 저팔계는 먹는 것을 멈추었다. 삼장이 공양을 마치는 염불을 끝내자 주변에서 상을 치웠고, 삼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이 삼장에게 동쪽 나라에서 온 연유를 묻자, 삼장은 옛 유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포금사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묻자, 스님이 대답했다.

"이 절은 원래 사위국의 급고독원사로, 기원(祇園)이라고도 불리던 곳입니다. 급고독 장자께서 부처님을 모시고 경전을 강설하도록 청할 때 바닥에 금벽돌을 깔았던 것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절에서 앞을 바라보면 예전 사위국 땅이 보입니다. 당시 급고독 장자께서 사위국에 거처하고 계셨는데, 이 황량한 산이 본래 장자의 기원이었기에 급고포금사(給孤布金寺)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절 뒤편에는 아직도 기원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근래에는 때때로 폭우가 쏟아질 때면 금이나 은, 구슬 같은 것들이 씻겨 내려오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를 줍기도 하지요."

삼장이 말했다. "그 이야기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군요."

삼장이 다시 물었다. "방금 보방을 지나오며 보니, 문 앞 양쪽 복도에 노새와 말, 수레를 끄는 상인들이 아주 많던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쉬어가는 것입니까?"

스님들이 대답했다. "이 산의 이름은 백각산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태평성대였으나, 근래 들어 기후가 변덕스러워졌는지 어쩐 일인지 지네 요괴들이 생겨나 길 가는 사람들을 자주 해치곤 합니다. 목숨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워낙 무서워 사람들이 감히 지나가지 못합니다. 산 아래에는 계명관이라는 관문이 있는데, 닭이 울 때가 되어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상인들도 날이 저물면 위험할까 두려워, 차

라리 이 황량한 산에서 하룻밤을 빌려 묵은 뒤 닭이 울면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삼장이 말했다. "우리도 닭이 울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합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음식이 차려져 나왔고 삼장 일행은 그 음식을 모두 먹었다.

이때 상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삼장과 손오공이 달빛 아래 한가로이 걷고 있는데, 한 도인이 다가와 보고했다. "우리 스승님께서 중화의 귀한 분을 뵙고자 하십니다." 삼장이 급히 몸을 돌려보니, 한 노승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예를 갖추며 물었다. "이분이 바로 중화에서 오신 스님입니까?" 삼장이 답례하며 말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노승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물었다. "스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삼장이 답했다. "허송세월하며 마흔다섯 해를 보냈습니다. 노원주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보다 한 갑자(예순 해)는 더 살았습니다." 손오공이 끼어들었다. "그럼 올해로 백다섯 살이시군요. 어르신, 제 나이는 얼마나 되어 보입니까?" 노승이 말했다. "스님은 모습이 고아하고 정신이 맑으신데, 하물며 달밤이라 눈이 침침하여 급히 알아볼 수가 없군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승이 뒤편 회랑 쪽을 바라보았다. 삼장이 물었다. "방금 말씀하신 기원 터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이 답했다. "뒷문 바로 바깥입니다. —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가보니 그곳은 빈터였고, 부서진 돌들이 쌓여 담장 밑동을 이루고 있었다. 삼장은 합장하며 탄식하며 시를 읊었다.

"옛날 시주(施主) 수달다(須達多) 장자가 금은보화로 가난한 이를 구제했네. 기원정사는 천고에 이름을 남겼거늘 그 장자는 어느 곳에서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

그는 달빛을 즐기며 천천히 걸었다. 뒷문 밖으로 다가가 대 위에 이르자, 잠시 앉아 쉬는데 갑자기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삼장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부모를 그리워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울음소리였다. 그는 마음이 저려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삼장이 스님들에게 물었다. "어느 분이 어디서 이토록 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노승은 질문을 받자 먼저 스님들에게 차를 달여 오라 명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자 그제야 삼장과 손오공에게 절을 올렸다. 삼장이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노원주님, 어찌하여 이런 예를 갖추십니까?" 노승이 말했다. "제자가 백 살이 넘으니 세상 이치를 조금은 압니다. 명상에 잠길 때마다 몇 번인가 환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과 제자 분들을 보니 다른 이들과는 달라, 제자가 조금이나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저 슬픈 일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스님께서 아니면 명확히 분별 해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 보시오." 노승이 말을 이었다. "작년 오늘, 제가 달빛을 밝히며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원 터를 살펴보니, 아주 아름답고 단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데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물으니, 그 여인이 '저는 천축국 국왕의 공주인데, 달빛 아래 꽃을 구경하다 바람

에 휩쓸려 왔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빈 방에 가두고, 방을 감옥처럼 꾸며 문에는 밥그릇만 겨우 들여보낼 수 있는 작은 구멍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스님들에게는 '요괴가 나타나 내가 묶여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승려들은 자비로운 이들이라 목숨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친 차와 음식을 두 끼씩 주며 겨우 목숨만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여인도 영특하여 곧 제 뜻을 알아차렸는데, 못 스님들에게 더럽혀질까 두려워 일부러 미친 척 요괴처럼 행동하며 오줌 속에서 잠을 자고 똥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낮에는 헛소리를 하며 멍청하게 굴다가도, 밤이 고요해지면 부모를 그리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성안에 들어가 공주의 일을 알아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히 가두어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스님께서 이 나라에 오셨으니, 부디 나라에 도착하시면 법력을 베풀어 이 일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첫째로는 선량한 이를 구원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신통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삼장과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두 명의 어린 스님이 차를 대접하고 머물 곳을 안내한 뒤 물러갔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방장실에 머물며 투덜거렸다. "내일은 새벽 일찍 계명관을 지나야 하니, 어서 잠이나 자자." 그러자 손오공이 물었다. "이 멍청한 녀석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잠이나 자자니까. 이 깊은 밤에 무슨 구경거리를 더 본다는 거야?" 이로써 노승은 물러갔고, 삼장법사도 잠자리에 들었다.

시로 이르되, "사람들 고요하고 달은 가라앉으니 꽃 꿈도 아득한데,
따뜻한 바람은 창호지 사이로 살며시 스며드네. 구리 호리병에 물 떨어
지는 소리 들려오고, 은하수는 밝게 빛나며 구화산을 비추누나."

밤이 깊어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앞서 길을
가던 상인들이 북적이며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삼
장법사도 저팔계와 사오정을 깨워 말 안장을 채우고 짐을 챙기게 했으
며, 손오공에게는 등불을 가져오라 일렸다. 절의 스님들은 이미 일어
나 차와 간식을 준비하며 뒤에서 정중히 기다리고 있었다. 저팔계는 신
이 나서 간식 한 접시를 똑딱 비우고는 짐과 말을 끌고 나왔다. 삼장법
사와 손오공은 스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때 노승이 손오공에
게 다가와 말했다. "슬픈 일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소, 내 마음속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안에
들어가면 제가 알아서 상황을 살피고 사람의 얼굴빛만 보고도 사정을
파악해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북적거리는 상인 무리와 함께 일행도
큰길로 나섰다. 인시(새벽 3시~5시) 무렵이 되자 계명관을 지났고, 사
시(오전 9시~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벽이 보였다. 그 성은 마치 철
로 만든 향아리나 금으로 만든 성처럼 견고하고 신비로운 천축국의 수
도 같았다. 그 성의 모습은 이러했다.

"호랑이가 웅크리고 용이 빠리를 튼 듯 형세가 높고, 봉황 누각과 기
린각은 오색 빛을 발하며 흔들리네. 궁궐 해자는 물이 흘러 허리띠를
두른 듯하고, 복된 땅은 산을 따라 비단 자수를 놓은 듯 펼쳐졌구나. 새
벽 해 아래 깃발은 밝게 빛나고 수레길을 비추며, 봄바람 타고 들려오

는 피리와 북소리는 시냇가 다리에 가득하네. 국왕의 의복과 관은 빼어나게 아름답고, 오곡이 풍성하니 영웅호걸이 넘쳐나는구나."

그날 일행은 동쪽 시장가로 들어갔고, 상인들은 각자 여관으로 흩어졌다. 삼장 일행이 성안으로 들어가 길을 가던 중 회동관 역참을 발견하여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역참의 관리인이 역승에게 보고했다. "밖에 기이하게 생긴 스님 넷이 백마 한 필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역승은 말이 있는 것을 보고 관리를 데려온 이들을 알아차리고는 곧장 마중을 나갔다. 삼장법사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온 임명직 승려로, 영산 대뇌음불께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참한 관인이 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역승이 답례하며 말했다. "이곳은 원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니 마땅히 모셔야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삼장법사는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모두 나와 인사하라고 일렀다. 역승은 제자들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다'며 내심 겁이 나 벌벌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차를 내오고 음식을 차리게 했다. 삼장법사가 그가 겁먹은 것을 보고 말했다. "나으리, 놀라지 마십시오. 제 제자 셋이 생김새는 비록 못생겼으나 마음씨는 모두 착합니다. 흔히 '얼굴은 험해도 사람은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두려워하십니까?"

역승은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다. "국사님, 당나라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남섬부주 중화의 땅에 있소." 역승이 다시 물었다. "집을 떠나온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정관 13년에 떠나와 어느덧 14년이 흘렀소. 수많은

은 강과 산을 고통스럽게 넘으며 겨우 이곳에 도착했구려.” 역승이 감탄하며 외쳤다. “성스러운 스님, 참으로 성스러운 스님이십니다!” 삼장이 물었다. “이 나라의 천년은 얼마나 되었소?” 역승이 답했다. “저희는 대천축국입니다. 태조와 태종 대부터 지금까지 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재위 중이신 황제 폐하께서는 산수와 꽃을 무척 아끼셔서 이종 황제라 불리시며, 연호를 정연으로 고치신 지 올해로 28년째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오늘 빈승이 폐하를 뵙고 관문을 교체하려 하는데, 혹시 조참(朝參)이 끝나고 만날 수 있겠소?” 역승이 반색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요사이 국왕의 공주 마마께서 스무 살 청춘을 맞이하여, 십자 교차로에 높은 채루(비단 장식 누각)를 세우고 비단 공을 던지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하늘의 인연을 찾아 부마를 뽑는 잔치이지요. 마침 오늘이 한창 떠들썩한 때인데, 국왕 폐하께서 아직 조참을 마치고 물러나지 않으셨으니, 관문을 바꾸시려면 지금 바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장이 기쁘게 길을 나서려는데, 마침 음식이 차려져 왔다. 삼장은 역승, 손오공 등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어느덧 오후가 지났다. 삼장이 말했다. "이제 가보자꾸나."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팔계가 말했다. "나도 갈래!"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제발 좀 참으세요. 형님은 그 얼굴로는 봐줄 게 없으니, 궁궐 문밖에서 괜히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큰형님이 가시게 두자고요." 삼장이 말했다. "사오정 말이 맞다. 이 어리석은 녀석은 거칠고 무뎡뎡하기만 하고, 손오공은 그래도 좀 세심하구나." 저팔계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스승님만 빼면, 저희 셋 얼굴이야 다 거기서 거기인걸요." 삼장은 가사를 챙겨 입었고, 손오

공은 관문서를 넣는 주머니를 챙겨 함께 나섰다. 길거리에는 선비와 농부, 수공업자, 상인, 문인 묵객,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두 모여 "수구 던지는 행사를 구경하러 가자!"라고 외치며 떠들썩했다.

삼장은 길가에 서서 손오공에게 말했다. "이곳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궁궐의 기물, 그리고 말하는 태도를 보니 우리 대당제국과 다를 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저렇게 수구를 던지는 행사를 통해 옛 인연을 만나 부부가 되셨었다. 이곳에도 그런 풍습이 있나 보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우리도 가서 구경이나 좀 할까요?" 삼장이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우리의 복색이 이곳과 달라 의심을 살까 두렵구나."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포금선사의 노승이 했던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첫째는 채루를 구경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니, 황제는 분명 공주의 기쁜 소식을 듣느라 정무를 돌볼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가서 구경이나 합시다."

삼장은 그 말을 듣고 손오공을 따라가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수구를 던지는 행사를 구경하는 것을 보았다. 아! 그런데 이번 나들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꿈에도 몰랐으니,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다.

"어부가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던졌더니, 이제부터 시비와 분쟁이 늘어 올라오리라."

한편, 천축국 국왕은 산수와 꽃을 무척 사랑했다. 재작년 어느 달 밝은 밤, 국왕이 왕비와 공주를 데리고 어원에서 꽃과 경치를 즐기고 있을 때, 한 요괴가 나타나 진짜 공주를 납치해 가고 대신 가짜 공주로 변

신했다. 이 요괴는 올해 이 달, 이 날, 이 시각에 삼장이 이곳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괴는 나라의 부귀를 이용해 화려한 채루를 세우고 삼장을 부마로 맞이하려 했다. 이는 삼장의 원양진기(남성의 순수한 정기)를 취하여 스스로 태을상선(신선 중에서도 으뜸인 존재)이 되려는 속셈이었다.

정오를 지나 세 시각쯤 되었을 때, 삼장과 손오공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가 누각 아래에 이르렀다. 마침 공주가 향을 피우며 천지에 기도를 올리던 참이었다.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수십 명의 시녀가 공주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들은 손에 비단 공을 받쳐 들고 있었다. 누각의 여덟 창문이 영롱하게 빛나는 가운데 공주가 눈을 돌려 살펴보니, 당승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공주는 얼른 비단 공을 집어 들더니 손수 당승의 머리 위로 던져버렸다.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란 당승은 쓰고 있던 비로자 모자가 뺄 정도로 휘청거렸고, 급히 두 손을 뻗어 공을 받쳐 들었다. 그런데 공이 데굴데굴 굴러 당승의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누각 위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

"스님 머리에 맞았다! 스님 머리에 맞았어!"

아아, 십자거리에는 상인과 행인들이 북적이며 구름처럼 몰려들어 모두 저 비단 공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손오공이 크게 호통을 치며, 이를 드러내고 허리를 굽혀 몸을 쭉 내미니 마치 키가 석 장(약 9미터)이나 되는 거대한 신령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험상궂은 얼굴을 해 보였다. 그 기세에 눌린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자, 순식간에 인파가 흩어졌다. 그제야 손오공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누각 위에 있던 궁녀들과 내시들, 그리고 크고 작은 환관들이 모두 달려와 삼장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귀한 분이시여, 귀한 분이시여! 어서 조정으로 들어가 경사를 축하하십시오.”

삼장은 급히 답례를 하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며 손오공을 원망하듯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네가 또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비단 공이 스승님 머리에 맞아서 소매 속으로 굴러 들어간 것이지,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저를 원망하십니까?”

삼장이 물었다. “이 일을 대체 어찌 처리해야 하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궁으로 들어가 국왕을 뵙고 오십시오. 저는 역참으로 돌아가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다리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공주가 스승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대로 관문 문서를 바꾸면 그만이고, 만약 공주가 반드시 스승님을 불러야 한다고 하면 국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소서, 그에게 일러둘 말이 있소.’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세 사람이 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때 제가 알아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겠습니다. 이건 분명 혼인을 미끼로 요괴가 스승님을 낚으려는 계책입니다.”

삼장은 달리 방도가 없어 손오공의 말대로 따르기로 하고, 손오공은 몸을 돌려 역참으로 돌아갔다.

장로(삼장)는 수많은 궁녀에게 둘러싸여 누각 앞으로 나아갔다. 공주가 누각 아래로 내려와 고운 손으로 삼장을 부축해 가마에 태우니, 의장대가 길을 열고 행렬이 궁궐 문을 향해 돌아 나갔다. 이때 황문관이 먼저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 공주 마마께서 한 스님을 부축하고 계십니다. 공주께서 던진 비단 공에 맞은 모양인데, 지금 오문 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불쾌하여 당장 물러가게 하고 싶었으나, 공주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삼장을 들여 보내라고 명했다. 삼장과 공주는 곧 금란전 아래에 이르렀으니, 그 모습이 마치 다음과 같았다.

“한 쌍의 부부가 만세를 부르니, 두 문 사이에서 사악함과 바름이 천년을 기리네.”

예를 마친 뒤 다시 전 안으로 들여보내자, 국왕이 입을 열어 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왔기에 짐의 딸이 던진 공에 맞게 되었는가?”

삼장이 엎드려 아뢰었다.

“빈승은 남섬부주 대당의 황제 명을 받들어, 서천 대뇌음사에 가서 부처님을 뵈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장로를 통과하는 관

문을 교체하려 이곳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십자로 채루 아래를 지나던 중, 뜻밖에 공주 마마께서 던지신 비단 공이 빈승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빈승은 출가하여 수행하는 몸인데, 어찌 감히 귀한 공주와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빈승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관문만 교체하게 하여 속히 영산으로 떠나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폐하의 은혜를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국왕이 말했다.

“그대는 동토의 성스러운 승려이니, 그야말로 ‘천 리 밖 인연도 실이 이끌어주는 법’이로구나. 과인의 딸은 올해 스무 살이 되도록 아직 혼인하지 않았는데, 마침 오늘 날짜와 시각이 모두 길하여 채루를 세우고 공 던지기 행사를 열어 좋은 짝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대가 공에 맞았으니, 짐은 비록 내키지 않으나 공주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공주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바마마, 예부터 ‘닭에게 시집가면 닭을 따르고, 개에게 시집가면 개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에게는 이미 세운 서원이 있으니, 일단 이 공을 던져 인연을 맺었다면 천지신명께 고하여 혼사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오늘 성스러운 스님과 인연이 닿았으니 이는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거늘, 어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이분을 부마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국왕은 그제야 기뻐하며 즉시 흠천감의 정대관을 불러 길일을 택하게 하였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혼례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졌고, 천하에 이를 알리는 교지가 내려졌다.

삼장이 그 말을 듣고도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만 빌었다.

국왕이 말했다. "이 중이 도무지 이치를 모르는구나. 짐이 일국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너를 부마로 삼겠다는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즐기려 하지 않고 오로지 경전 구하는 일에만 매달린단 말이나? 만약 다시 한번 거절한다면, 금의위 관원들을 시켜 당장 저놈을 참형에 처하게 하리라."

삼장은 혼이 나갈 정도로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했다. "폐하의 하늘 같은 은혜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빈승과 함께하는 네 명의 일행 중 나머지 세 제자가 아직 밖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명을 받들겠사오나, 미처 그들에게 한마디 당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십시오. 관문을 교체하여 그들을 빨리 보내야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뜻을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왕이 마침내 허락하며 물었다. "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삼장이 대답했다. "모두 회동관 역에 있습니다."

국왕은 즉시 관원을 보내 성승의 제자들을 불러 관문을 교체하게 하고 서천으로 떠나게 한 뒤, 성승은 이곳에 남아 부마가 되도록 하였다. 삼장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곁에서 시봉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상황을 시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불로장생의 단약은 온전해야 하나 고행의 길은 악연을 만나면 이루기 어렵네. 도는 성인에게서 전해지나 닦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으니 선

은 사람이 쌓고 복은 하늘이 정하는 법이라. 여섯 가지 감각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본래의 참된 성품을 단번에 깨달으라. 애착도 생각도 없이 스스로 청정해지면 자연히 해탈하여 초연한 경지에 이르리라."

그때 관원이 회동관 역에 도착하여, 당승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을 불러냈다.

한편, 손오공은 채루 아래에서 삼장과 헤어진 뒤, 두어 걸음 가다 말고 웃음을 터뜨리며 아주 즐거운 기색으로 역참으로 돌아왔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마중 나오며 물었다.

“형님, 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계세요? 스승님은 왜 안 오시고?”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께 경사가 났다!”

그러자 저팔계가 되물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불경을 구해서 돌아온 것도 아닌데 무슨 경사라는 말씀이세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스승님과 십자로 된 길목 채루 아래까지 갔는데, 마침 그 나라 공주가 던진 비단 공에 스승님이 딱 맞으셨지 뭐야! 스승님은 공녀와 무희, 내관들에게 떠밀려 채루 앞으로 가시더니, 공주의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 부마로 간택되셨다. 이 얼마나 큰 경사냐?”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쳤다.

“아이고, 차라리 내가 갓어야 했는데! 다 저 사오정 녀석이 게을러서 그래요. 형님이 나를 말리지만 앉았어도 내가 당장 채루 아래로 달려가서, 그 비단 공에 이 나 저팔계가 딱 맞았을 거라고요! 그랬으면 공주님이 나를 데려가셨을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일이겠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다 같이 즐겁게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냐고요!”

사오정이 다가와 저팔계의 얼굴을 숙 닦아주며 말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입만 살았구나! 은전 세 푼 주고 산 늙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더니만. 만약 그 비단 공에 네가 맞기라도 했다면, 밤새도록 불을 피워 액운을 쫓고 종이를 태워 귀신을 쫓아도 모자랐을 거다. 네 그 재수 없는 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이 검둥이 녀석, 분위기 파악도 못 하는군. 못생겨도 나름대로 풍채가 있는 법이야. 예부터 ‘살결은 거칠어도 뼈대가 튼튼하면 저마다 취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했던 말이야.”

손오공이 말했다.

“이 바보야, 헛소리 말고 어서 집이나 챙겨라. 스승님이 급한 마음에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니, 얼른 궁으로 가서 스승님을 보필해야 한다.”

그러자 저팔계가 또 한마디 했다.

“형님, 또 잘못 짚으셨어요. 스승님이 부마가 되어서 궁궐 안에서 황제의 딸과 정을 나누는데, 그게 무슨 험한 산길을 가거나 괴물을 만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형님이 가서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 잠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겠어요? 형님이 가서 손이라도 잡아드려야 하나?”

손오공은 저팔계의 귀를 뺨 잡아채고는 주먹을 휘두르며 욕을 퍼부었다.

“이 음탕한 놈! 어디서 그런 망측한 소리를 지껄이느냐!”

한창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던 중, 역승이 들어와 보고했다. “국왕 폐하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세 분의 신성한 스님을 모셔 오라 하셨습니다.” 저팔계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른다는 말인가?” 역승이 대답했다. “노승께서 공주 माम께서 던지신 비단 공에 맞으셨기에, 부마로 삼으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보내 모셔 오게 한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관리가 어디 있느냐? 들어오라고 해라.” 관리는 손오공을 보고 예를 갖추어 뒤, 예법을 마치고도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못한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귀신인가, 괴물인가? 아니면 뇌공이나 야차인가?’ 손오공이 물었다. “이보게 관원, 할 말이 있으면 제대로 말할 것이지 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가?” 관리는

겹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두 손에 성지를 받쳐 들고는 횡설수설했다.
“공주님께서 혼례를 치르자고 하십니다. 우리 주군께서 혼례를 치르자고 청하십니다.” 저팔계가 거들었다. “여기에 형구 같은 건 없으니 때리지 않겠네. 무서워 말고 천천히 말하게나.” 손오공이 말했다. “저 관원이 자네한테 맞을까 봐 겁내겠나? 저 녀석의 꼴을 좀 보게. 어서 집을 챙기고 말을 끌고 스승님을 모시고 궁으로 들어가 일을 논의하러 가자꾸나.”

시로 이르되,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이 피하기 어려우니, 결국 은혜로운 사랑이 원수로 변하고 말리라.

결국 국왕을 만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4회 — 네 스님이 어선원에서 잔치를 즐기고, 한 괴물이 헛되이 정욕을 품으며 기뻐하다

四僧宴樂御花園 一怪空懷情慾喜

옥토끼를 잡다

참된 음기가 바르게 돌아오니 영험한 근원이 모여드는구나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 일행 세 사람은 선포관을 따라 오문 밖까지 나아갔다. 그러자 황문관이 즉시 안으로 들어가 알렸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절을 하지도 않은 채 곳곳이 버티고 서 있었다. 국왕이 물었다. “그 세 사람이 성스러운 승려이자 부마가 될 분의 제자들인가? 성명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다가 무슨 까닭으로 출가하였는가? 또 어떤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인가?” 손오공이 앞으로 나아가 전각 위로 올라가려 하자, 곁에 있던 호위무사가 꾸짖었다. “멈춰라! 할 말이 있으면 거기 서서 고하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수행자들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입니다.” 이어 저팔계와 사

오정도 모두 앞으로 다가갔다. 삼장법사는 혹여 제자들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국왕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제자들아, 폐하께서 너희가 온 연유를 물으시니 어서 고하거라.” 손오공은 스승이 곁에서 시중을 들 듯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다. “폐하께서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을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이미 저희 스승님을 부마로 맞이하셨으면서, 어찌 저런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딸의 남편, 곧 사위를 일러 귀인이라 하거늘, 어찌 귀인이 앉지 못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국왕은 이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며 크게 놀랐다. 체통을 잃을까 두려워 전각에서 물러나고 싶었으나, 억지로 용기를 내어 곁에 있던 신하에게 수놓은 방석을 가져오라 일렀다. 그리고 삼장법사를 앉게 했다. 그제야 손오공이 고했다. “이 손오공은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수렴동 출신입니다.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아, 바위가 쪼개지며 태어났습니다. 지극한 도를 닦는 스승을 모시고 큰 도를 깨우친 뒤, 신선들이 사는 복된 동굴에 머물며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바다에 내려가 용을 굴복시키고, 산을 오르며 짐승을 잡았습니다. 죽을 운명은 면하고 신선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 제천대성이라는 관직까지 얻었습니다. 화려한 누각을 즐기고 보물 가득한 전각을 유람하며, 천계의 신선들과 어울려 날마다 노래하며 즐겼고, 성스러운 곳에 거하며 아침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단지 복숭아 잔치를 어지럽히고 천계에 맞서 싸운 죄로 부처님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오행산 아래 갇혀 쇠구슬을 먹고 구리물을 마시며 오백 년 동안 차 한 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스승님께서 동토를 떠나 서방으로 가셨을 때, 관음보살님께서 천재지변과 큰 난관을 벗어나게 하라 명하시어 스승님께서 요가문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옛 이름은 오공이며, 행자라 부릅니다.” 국왕은

손오공의 명성이 이토록 높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 용상에서 내려와 직접 걸어 나왔다. 그리고 친히 어수(御手)로 삼장법사를 붙들며 말했다. “부마를 만난 것은 참으로 짐의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구려. 그대와 같은 신선 같은 인연을 만나다니 말이오.” 삼장법사는 연신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국왕에게 다시 자리에 앉으시라 청했다.

국왕이 다시 물었다. "그중에서 둘째 제자는 누구인가?" 그러자 저팔계가 입가에 손을 대고 으스대며 말했다. "이 저팔계가 전생에 사람일 적에는 즐거움만 쫓고 게으름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평생을 정신 못 차리고 살며 본성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미혹시켰지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어느 한가로운 때에, 갑자기 한 신선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건넌 짧은 말 한마디가 저의 업보를 풀어주었고, 몇 마디 말씀이 재앙의 문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즉시 스승님을 모셨고, 정성을 다해 도를 닦으며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수행이 차올라 하늘로 승천하여 천계에 들게 되었지요. 옥제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천봉원수라는 관직을 하사받고 강을 지키는 군사를 거느리며 천계에서 유유자적 지냈습니다. 그러다 복숭아 술에 취해 향아(嫦娥)를 희롱한 죄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필 돼지로 태어나는 바람에 북릉산에 살며 끝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관음보살님을 만나 바른 길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불교에 귀의하여 당승을 보호하며 서천으로 향해 귀한 경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범명은 오능이며, 흔히 팔계라 부릅니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 감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한편 이 어리석은 저팔계는 신이 나서 고개를 흔들고 입을 가린 채 귀를 쫓긋 세우며 허허허 크게 웃어댔다. 삼장법사는

국왕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 얼른 꾸짖었다. "팔계야, 조용히 해라!" 그 제야 저팔계는 손을 맞잡고 공손히 서서 짐짓 점잖은 체를 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세 번째 고귀한 제자는 어찌하여 귀의하게 되었는가?” 사오정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이 사오정은 본래 범부였으나, 윤희의 고통이 두려워 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다 끝과 하늘 끝을 떠돌며 유랑하는 동안 항상 가사(승복)와 발우를 몸에 지녔고, 매 순간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정성을 다한 끝에 신선한 인연을 만나 아이를 기르고 아름다운 여인과 짝을 맺기도 했습니다. 공덕을 쌓아 삼천의 업을 다하고 사상의 조화를 이루니, 하늘 세계를 초월하여 높은 하늘에 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권렴대장이라는 관직을 받아 봉황이 장식된 용차를 모시는 장군으로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잔치에서 실수로 유리잔을 깨뜨리는 바람에 유사하로 유배되어, 모습이 변하고 죄를 지어 생명을 해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다행히 관음보살님께서 멀리 동토로 행차하시어 저에게 귀의하라고 권해주셨고, 당나라의 불자님을 기다리며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마음을 다잡고 큰 깨달음을 닦고 있습니다. 강(河)을 성으로 삼고 법명은 오정이라 하니, 사람들은 저를 사화상이라 부릅니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기쁜 것은 딸이 살아있는 부처를 맞이하게 된 것이요, 놀라운 것은 세 제자가 알고 보니 모두 요사한 요괴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었다. 놀라움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당의 음양관이 나아가 보고했다. “혼례 날짜는 올해 이달 12일 임자일 좋은 시각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당(周堂)의 흐름이 막힘 없으니 혼례를 치르기에 아주 길한 날입니다.” 국왕이 물었다. “오늘의 일진은 어떠한가?”

음양관이 답했다. “오늘은 초여드레 무신일로, 원승이가 과일을 바치는 형국이니 어진 이를 맞아 일을 도모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국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관리들에게 명하여 어화원의 관각과 누각, 정원을 깨끗이 청소하게 했다. 또한 부마와 세 제자를 편안히 쉬게 하고, 뒤이어 혼례를 위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여 공주와 짝을 맺게 하라고 일렀다. 모두가 명을 받들어 행하였고, 국왕이 조회를 마치자 관리들도 흩어져 물러갔다.

한편, 삼장법사 일행은 모두 어화원에 도착했다. 날이 점차 저물자 소박한 채식 상이 차려졌다. 저팔계가 기뻐하며 말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밥 먹을 때도 됐지!" 그러자 관리인이 흰쌀밥과 국수 같은 음식들을 짐에 가득 담아 날라 왔다. 저팔계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기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배가 터질 듯이 불러서야 겨우 숟가락을 놓았다. 잠시 후, 등불을 밝히고 잠자리를 마련한 뒤 일행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삼장이 좌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손오공이 원망스러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손오공, 이 원승이 녀석아! 네가 번번이 나를 해치는구나. 내가 관청 문서를 바꾸러만 가고 채루(彩樓) 앞에는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기어코 나를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준 것이냐? 이제 이 사달이 났으니 이를 어찌하면 종단 말이나!” 손오공이 곁에서 웃으며 달랐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예전 수놓은 공을 던졌다가 옛 인연을 만나 부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신 듯하여 제가 모시고 간 것입니다. 또 급고포금사(포금사) 절의 노스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고요. 방금 황제의 얼굴을 보니 빛이 조금 어두운 듯했으나, 아직 공주가 어떤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공주를 보면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 화안금정(불꽃 같은 눈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은 얼굴만 봐도 참과 거짓, 선과 악, 부귀와 빈천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악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해 내기에 아주 좋지요.” 그 모습을 본 사오정과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께서 요새 관상 보는 법을 새로 배우셨나 봅시다.” 손오공이 너스레를 떨었다. “관상 보는 기술이라니, 이 손오공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러자 삼장이 꾸짖었다. “그만 농담하고 입 다물어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이 분명 나를 붙잡으려 할 텐데, 대체 어찌해야 하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우선 혼례가 치러지는 12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분명 공주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나올 텐데, 그때 제가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진짜 여자라면, 스승님께서서는 부마가 되어 이 나라의 부귀영화를 누리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삼장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꾸짖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너는 나를 해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팔계 말대로 우리 일행이 이미 열에 아홉, 거의 다 이루었는데, 너는 그 요망한 혀로 나를 홀리는구나. 어서 입을 다물어라! 한 번만 더 무례하게 굴면 내가 당장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워 네놈을 혼내줄 것이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운다는 말에 깜짝 놀라 스승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다. “아이고, 스승님! 제발 외우지 마십시오, 제발요! 만약 정말로 진짜 여자라면, 혼례를 치를 때 우리가 함께 황궁을 뒤엎어 버리고 스승님을 모시고 떠나면 되지 않을까!”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었다.

시로 이르되,

깊은 궁궐엔 물시계 소리 울려 퍼지고 꽃향기는 은은하게 감도네.
수놓은 문에는 구슬 가리개 늘어져 있고 한적한 뜰에는 불빛조차 껐졌구나. 그네는 차갑게 식어 빈 그림자만 남았는데 피리 소리 잦아드니 사방이 고요하네. 집 주위엔 꽃들이 달빛을 머금어 빛나고 허공 너머 나무 없는 곳엔 별빛만 가득하구나. 두견새 울음 그치니 나비는 꿈속에 잠기고 은하수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흰 구름은 고향으로 돌아가네.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간절한 이때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버들가지 더욱 쓸쓸하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 밤이 깊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일단 좀 잡시다, 좀 잡시다." 스승과 제자들은 과연 밤새 잠을 청했다.

이른 아침 금계가 울리며 날이 밝았다. 국왕은 곧 전각에 올라 조회를 열었다. 시로 이르되, 궁전 창문 너머로 자줏빛 기운 높이 솟구치고 / 바람에 실린 악기 소리 푸른 하늘까지 울려 퍼지네. / 구름 옮겨가니 표범 꼬리 모양 깃발 펄럭이고 / 햇살 비치니 용머리 장식 옥패가 흔들거린다. / 향기로운 안개는 버드나무 가지마다 푸르게 내려앉고 / 이슬방울은 정원의 꽃들을 촉촉이 적셔 생기를 더하네. / 산호(山呼)하며 춤추어 예를 올리는 천관들이 줄지어 서 있고 / 바다가 잔잔하고 강이 맑으니 온 나라가 태평성대라. 문무백관이 조회를 마치자 국왕이 다시 명을 내렸다. "광록사에서는 12일에 있을 경사스러운 잔치를 준비하

라. 오늘은 우선 봄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술을 마련하여, 부마께서 어화원에서 편히 쉬며 즐기실 수 있도록 하라." 이어 의제사에게 명하여 세 명의 현명한 관리들을 회동관으로 보내 잠시 머물게 하고, 광록사에는 소박한 잔칫상을 세 상 차려 그들을 모시게 했다. 또한 양쪽 모두 교방사에 명하여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봄 경치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게 했다.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대답했다. "폐하, 저희 스승과 제자들은 서로 만난 뒤로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어화원에서 연회를 여신다니, 저희를 데리고 며칠 동안 신나게 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스승님이 폐하의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해낼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이 장사가 성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국왕은 저팔계의 외모가 흉측하고 말투가 거칠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며 목을 주무르고 입을 찻찻거리며 귀를 흔드는 등 풍병이라도 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혹여 혼사가 틀어질까 걱정되어 마지못해 허락했다. 국왕은 "영진화이각에 두 자리를 마련하여 내가 부마와 함께 앉겠다. 유춘정에는 세 자리를 따로 마련하여 세 분을 모셔라.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앉으면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그리하라" 하고 명했다. 그 멍청한 저팔계가 그제야 국왕을 향해 인사를 올리며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는 다들 물러갔다. 국왕은 다시 내궁 관리들에게 명하여 궁 안의 후비들과 공주가 참석할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12일의 혼례를 위해 예물과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도록 했다.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무렵이 되자, 국왕은 가마를 준비시켜 당승을 어화원으로 모셔와 구경하게 했다.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길에는形形色색의 돌이 깔려 있고, 난간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길가 돌 틈 사이로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난간 밖과 안에는 신비로운 꽃들이 무성했다. 복숭아꽃은 비취색 잎사귀 사이에서 아른거리고, 어린 버드나무는 피꼬리의 노란 빛깔을 돋보이게 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윽한 향기가 소매를 채웠고, 걸음을 땔 때마다 맑은 꽃내음이 옷자락에 배어들었다.

봉황이 머무는 듯한 대와 용이 노니는 듯한 못, 대나무 정자와 소나무 처마가 어우러져 있었다. 봉황대 위에서는 통소를 불어 봉황의 의례를 불러들이는 듯했고, 용의 못 사이에서는 물고기가 용으로 변해 승천할 듯했다. 대나무 정자에는 흰 눈처럼 깨끗한 시가 가득했고, 소나무 처마 아래에는 옥과 구슬처럼 귀한 문집들이 쌓여 있었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가산과 푸른 물결이 깊게 흐르는 굽이진 시냇물이 있었고, 모란 정자와 장미 덩굴에는 비단과 양단을 깔아놓은 듯 화려했다. 말리꽃 울타리와 해당화 화단은 노을빛과 옥빛이 쌓인 듯 아름다웠다. 작약은 기이한 향기를 내뿜고 접시꽃은 기이할 정도로 화사했다. 하얀 배꽃과 붉은 살구꽃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뽐냈고, 보랏빛 난초와 금빛 원추리는 눈부시게 피어 있었다. 봄꽃과 목필화, 진달래는 눈부시게 타올랐으며, 함소화와 봉선화, 옥잠화는 위엄 있게 자리를 지켰다. 곳곳은 연지를 바른 듯 붉고 축축했으며, 꽃무더기는 비단 자수를 놓은 듯 풍성했다. 더욱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온 정원의 꽃들이 그 고운 자태를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국왕과 여러 신하가 이를 한참 동안 감상하고 있을 때, 의제사 관리가 손오공 일행 세 사람을 유춘정으로 초대했다. 국왕은 당승을 데리고

화이각으로 올라가 각자 연회를 즐겼다. 노래와 춤, 악기 연주와 화려한 잔치 상차림은 실로 다음과 같았다.

웅장한 궁궐 문 사이로 새벽빛이 옴트고, 봉황각과 용궁에는 상서로운 안개가 감도네. 봄빛은 꽃과 풀로 수놓은 듯 펼쳐져 있고, 하늘빛은 멀리서 비쳐 비단 도포를 밝히네. 노래와 악기 소리는 신선의 잔치처럼 울려 퍼지고, 맑은 술잔은 끊임없이 오가네. 임금은 기뻐하고 신하들은 즐거워하며 함께 즐기니, 이 나라가 영원히 평안하고 태평하리라.

이때 삼장법사는 국왕이 자신을 지극히 공경하는 것을 보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억지로 기쁜 척을 했으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근심이 가득했다. 앉아 있는 동안 벽에 네 개의 금빛 병풍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는데, 병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가지 풍경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한림원의 명사들이 지은 시가 적혀 있었다.

시로 이르되,

봄 풍경은 이러하다.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돌고 돌아 만물이 조화로워니, 대지는 화창하고 온갖 형상들이 새롭게 피어난다. 복숭아와 오얏꽃은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며 흐드러지게 피었고, 제비는 화려한 기둥 사이로 날아와 꽃가루를 흩뿌리네.

여름 풍경은 이러하다. 따스한 바람 살랑살랑 불어와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궁궐 마당의 석류와 해바라기는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난다. 옥피리 가락은 한낮의 꿈을 깨우고, 연꽃 향기는 정원 너머 휘장까지 은은하게 퍼져 나가네.

가을 풍경은 이러하다. 우물가 오동나무 잎 하나 노랗게 물들고, 구슬 발은 밤새 내린 서리에 말려 올라가지 않네. 제비는 절기 변화를 알고 동지를 떠나며, 기러기는 갈꽃 사이를 지나 고향을 떠나네.

겨울 풍경은 이러하다. 하늘에는 구름이 내려앉아 춥고 어두운데, 북풍은 눈을 몰고 와 천 개의 산을 덮는구나. 깊은 궁궐 안에는 따뜻한 화로가 있으니, 매화가 피어난 소식이 난간 가득 전해지네.

국왕은 당승이 시를 흥미롭게 읽는 것을 보고 말했다. "부마께서 시의 풍류를 즐기시는 것을 보니, 분명 시 짓는 솜씨도 뛰어나실 것이오. 혹 괜찮으시다면, 방금 읽은 시의 운율에 맞춰 시 한 수씩 화답해 주시겠소?"

당승은 본래 경치를 보더라도 그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수행자였다. 그러나 국왕이 이토록 정중하게 요청하자, 그는 무심결에 한 구절을 읊조렸다. "따스한 햇살에 얼음 녹으니 온 세상이 조화롭구나."

국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시종을 불렀다. "어서 문방사보를 가져 오너라! 부마께서 시를 완성하시면 바로 기록하여 내가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게 하라."

당승은 흔쾌히 응하며 붓을 들어 시를 짓기 시작했다.

봄 풍경을 읊은 시에 화답하여 이르되, "따스한 햇살에 얼음 녹아 온 세상이 고르고, 어화원의 꽃과 풀은 다시금 새로워졌네. 부드러운 바

람과 단비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세상은 평온하여 속세의 먼지조차 없구나."

여름 풍경을 읊은 시에 화답하여 이르되, "북두칠성이 남쪽을 가리키니 낮이 길어지고, 회화나무 구름과 석류꽃 불꽃이 빛을 다투네. 피꼬리와 제비는 궁궐 버드나무 사이에서 지저귀고, 그 아름다운 소리는 붉은 휘장 안으로 흘러드네."

가을 풍경을 읊은 시에 화답하여 이르되, "귤과 오렌지의 향기가 푸르고 노랗게 퍼지며, 서리를 맞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더욱 푸르구나. 울타리의 국화는 반쯤 피어 비단처럼 아름답고, 악기 소리와 노래는 물과 구름이 만나는 곳까지 울려 퍼지네."

겨울 풍경을 읊은 시에 화답하여 이르되, "상서로운 눈이 그치고 공기는 차갑지만, 기이한 봉우리와 정교한 바위는 옥처럼 빛나네. 화로에는 숯을 피워 우유와 버터를 데우고, 사람들은 소매에 손을 넣고 초록 난간에 기대어 노래 부르네."

국왕은 화답 시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소매에 손을 넣고 초록 난간에 기대어 노래 부르네'라니, 참으로 좋구나!"라고 외쳤다. 이어 교방사에 명하여 새로 지은 시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잔치는 온종일 이어지다 끝이 났다.

손오공 일행 세 사람은 유춘정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음껏 즐겼다. 술을 몇 잔씩 들이켜자 모두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다. 이제 삼장법사를 찾아가려는데, 보니 이미 삼장법사는 국왕과 함께 한쪽 누각에 들

어가 있었다. 이때 저팔계가 특유의 어리석고 먹보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아, 정말 즐겁고 좋구나! 오늘 아주 제대로 대접받았으니, 이제 배 불러 먹었으니 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그러자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둘째 형님은 정말 교양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네가 뭘 알겠느냐? 속담에 이르길, '밥 먹고 바로 눕지 않으면 배에 기름기가 돌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승이 국왕과 작별하고 정자로 돌아오자, 팔계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 꾸짖었다. "이 어리석은 녀석,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는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혹시라도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목숨이라도 위태로워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팔계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사돈 관계가 될 사이인데, 국왕께서 어찌 함부로 화를 내시겠습니까? 옛말에 '피붙이는 매로도 못 끊고, 이웃은 욕으로도 못 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즐겁게 노는 자리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당승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 당장 이놈을 끌어다 선장(禪杖, 승려가 쓰는 지팡이)으로 스무 대를 때려라!" 그러자 손오공이 팔계를 덥석 붙잡아 넘어뜨렸고, 당승은 선장을 들어 곧장 때리기 시작했다. 팔계가 비명을 질렀다. "부마

어른, 살려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옆에 있던 연회 관리들이 말리며 겨우 멈추게 했다. 팔계는 바닥을 기어 일어나며 투덜거렸다. “아이고, 귀하신 분 같으니라고. 부마 어른이라더니, 혼례도 채 치르기 전부터 벌써 법부터 내세우시는구먼.” 손오공이 팔계의 입을 막으며 말했다. “헛소리 말고 얼른 잠이나 자거라.”

그들은 유춘정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느 때처럼 다시 연회를 베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시간을 삼사 일쯤 보내다 보니, 마침 혼례를 올리기 좋은 12일이 되었다. 광록사(국가 의례를 담당하는 관청)의 관리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전하, 지난 8일에 명을 받든 후 부마의 저택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혼례용 예물을 들여놓기만 하면 됩니다. 합환연에 올릴 음식도 육류와 채식을 합쳐 오백여 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국왕은 기쁜 마음으로 부마를 불러 연회에 참석시키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궁의 관리가 어전에서 아뢰었다.

“전하, 정궁 왕후께서 부르십니다.”

국왕이 내궁으로 들어가 보니, 세 명의 왕후와 여섯 원의 빈비들이 공주를 이끌고 소양궁에서 웃고 떠들며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꽃이 만발한 듯 화려하고 눈부셔, 마치 천상의 달궁이나 신선들이 사는 궁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했다. 이때 기쁜 혼례를 축하하는 네 수의 시가 있었다.

<회사>에 이르되,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쁘구나, 참으로 즐겁고 기쁘도다. 혼례를 맞이하니 은애가 아름답고 정답구나. 정성스레 꾸민 궁중 화장, 달나라 선녀 항아도 비길 수 없네. 용의 비녀와 봉황의 비녀, 화려한 금실이 번쩍이며 날아다니네.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 고운 얼굴과 꽃처럼 가녀린 몸매여. 비단 옷은 겹겹이 쌓여 있고, 오색찬란한 빛이 무리 지어 있네. 향기가 은은히 풍겨오고, 황금빛 보물들이 가득 하구나.

<회사>에 이르되, 요염하고 요염하고 또 요염하구나, 아리답고도 교태롭도다. 미녀 모장과 초나라의 미녀를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네. 나라와 성을 기울게 할 미모라, 꽃과 옥에 비할 수 없구나. 꾸밈은 더욱 생기 있고 화사하며, 비녀와 팔찌는 더없이 화려하네. 난초처럼 맑고 혜초처럼 고결한 성품에, 눈처럼 하얀 살결은 귀하고도 영롱하네. 가느다란 눈썹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같고, 아리따운 자태는 비단 옷 사이로 빛나네.

<가사>에 이르되, 아름답고 아름답고 또 아름답구나, 옥 같은 선녀들이로다. 깊이 사랑스럽고 참으로 자랑할 만하네. 이색적인 향기가 가득하고, 분과 연지가 어우러져 빛나네. 천태산 복지 같은 명산이라 해도, 어찌 국왕의 집만큼 좋으랴.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교태는 넘치며, 악기 소리와 노래는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지네. 꽃더미와 비단 길이 천 가지로 아름다우니, 세상천지를 다 둘러봐도 이보다 나은 곳은 없으리라.

<인사>에 이르되, 인연이고 인연이며 또 인연이로다, 난초와 사향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네. 선녀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미인들이 가득하

구나. 빈비들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의 주인은 새 단장을 마쳤네. 구름 같은 머리 모양은 높게 솟아 있고, 비단 옷은 봉황 무늬 치마를 덮었네. 신선 같은 음악 소리는 드높게 울리고, 붉고 자줏빛 옷차림이 줄을 지어 화려하네. 예전에 신령한 새를 타고 인연을 맺었으니, 오늘 이 기쁜 날에 아름다운 혼례를 맞이하도다.

한편, 국왕이 도착하자 왕후와 공주, 그리고 무희와 궁녀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했다. 국왕은 기쁜 마음으로 소양궁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왕후 일행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자 국왕이 말했다. "어진 공주야, 지난 초여드렛날 채색 비단을 걸고 궁을 던지다 성스러운 승려를 만났으니 아마도 소원이 이루어졌으리라. 각 관청의 관리들도 나의 뜻을 잘 헤아려 모든 준비를 마쳤구나. 오늘이 바로 경사스러운 날이니, 어서 혼례 잔치에 들어서서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그러자 공주가 앞으로 다가와 몸을 굽혀 절하며 아뢰었다. "아바마마, 소녀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 며칠 궁궐 관리들에게 듣기로는, 당승에게 제자가 셋 있는데 그 생김새가 매우 흉측하고 못생겼다고 하옵니다. 소녀는 그들을 차마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으며, 혹여 마주하게 되면 겁에 질려 몸이 상할까 두렵사옵니다. 부디 아바마마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녀의 약한 몸이 놀라 상하는 화를 면할 수 있겠나이다." 국왕이 말했다. "내 아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잊을 뻔 하였구나. 과연 생김새가 좀 흉측하다니, 요 며칠 어화원의 유춘정에서 대접하며 머물게 하였는데 말이다. 오늘 바로 전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서신을 전하여 성 밖으로 물러가게 하마. 그래야 온전히 연회를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공주는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했다. 국

왕은 즉시 가마를 타고 전각으로 올라가, 부마와 그 제자 세 명을 함께 청하라는 어지를 내렸다.

알고 보니 당승은 손가락을 꼬으며 날짜를 계산하다가, 어느덧 12일이 되자 날이 밝기도 전에 세 제자를 불러 모아 의논하였다.

"오늘이 벌써 12일이구나. 이 일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그 국왕이라는 자가 운수가 좀 사나운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공주와는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주가 밖으로 나온다면, 제가 슬쩍 한 번 훑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한 뒤에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 스승님께서는 마음 놓으십시오. 분명 국왕이 우리를 성 밖으로 보내려고 사람을 보내 청할 것입니다. 그때 스승님께서는 겁먹지 말고 응낙만 하십시오. 제가 번개처럼 나타나 스승님을 그림자처럼 바짝 따르며 지키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의제사 관리들이 수레를 몰고 와서 요청을 해왔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가보자, 가보자. 분명 우리를 배웅해서 스승님을 모시고 가려는 모양이야."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배웅한다면 분명 황금과 은이 수천수백냥은 되겠지? 그래야 우리도 돌아가는 길에 쓸 품목들을 좀 살 것 아니냐.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가면 또 가서 한바탕 놀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입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큰형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릅시다."

이윽고 일행은 짐과 말들을 챙겨 관리들을 따라 붉은 대궐 앞마당에 도착했다. 국왕은 그들을 보고 손행자 일행 세 명을 가까이 불러 말했다.

“그대들이 가져온 문서를 내어놓으시오. 짐이 직접 보물과 인장을 찍어 증명해 줄 것이며, 여비도 넉넉히 챙겨줄 것이니 세 분은 어서 영산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오시오. 경전을 가져온 뒤에 돌아오면 더 큰 보답을 하겠소. 부마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떠나시오.”

손행자가 감사의 뜻을 표하자, 사오정이 문서를 꺼내 국왕에게 전달했다. 국왕은 문서를 살펴본 뒤 인장을 찍고 서명까지 마쳤다. 그러고는 황금 열 덩이와 백금 스무 덩이를 꺼내어 친히 하사했다. 본래 재물과 여색을 밝히는 성미인 저팔계가 얼른 달려가 그것을 받아 들었다. 손행자는 국왕을 향해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요.”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고는 곧장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삼장이 허겁지겁 일어나 손행자를 붙잡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희는 나를 내팽개치고 그냥 가겠다는 말이나?”

손행자는 삼장의 손을 꼭 쥐며 눈짓을 보냈다.

“스님은 여기서 편히 즐기며 지내고 계십시오. 저희가 경전을 구해 돌아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삼장은 그 말을 믿는지 마는지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지켜보던 관리들은 이들이 정말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줄로만 알았다. 곧 국왕이 다시 부마를 대전으로 모시라 명하고, 관리들에게 세 사람을 성 밖까지 배웅하게 했다. 삼장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대전으로 향했다.

손오공 일행 세 사람은 무리를 따라 조정 문을 나선 뒤 각자 헤어졌다. 저팔계가 물었다. “우리 정말 이대로 떠나는 거야?” 손오공은 대답 대신 묵묵히 걸어 역참에 도착했다. 역참 관리가 그들을 맞이하며 차를 내오고 밥상을 차려냈다. 손오공이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말했다. “너희 둘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절대로 나서지 말고, 만약 역참 관리가 무언가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해. 나랑 말싸움할 생각은 말고. 스승님은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좋다, 대성님!"

손오공은 자신의 털을 한 가닥 뽑아 입으로 신선한 기운을 후 하고 불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손오공의 본모습이 나타나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역사에 머물게 되었다. 그사이 손오공의 본체는 허공으로 훌쩍 뛰어올라 꿀벌 한 마리로 변신했다. 꿀벌의 모습은 이러했다.

시로 이르되,

날개는 노랗고 입은 달콤하며 꼬리는 날카롭구나. 바람 따라 춤추며 미친 듯이 날아다니네. 꽃술을 따고 향기를 훔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버들 사이와 꽃들 사이를 흔들거리며 누비네.

몇 번이고 고생하며 꽃가루를 모아 보아도, 날아다니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헛수고 같구나. 진한 꿀을 만들어내는 기쁨은 누려본 적도 없으니, 그저 이름값만 겨우 유지할 뿐이라네.

꿀벌로 변한 손오공은 가볍게 궁궐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멀리 보니 삼장법사가 국왕의 원편에 있는 수놓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미간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오공은 곧장 삼장법사의 비로모(불교 승려가 쓰는 모자) 위로 날아가 조용히 깃가까지 기어간 뒤 속삭였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오직 삼장법사에게만 들렸고, 곁에 있던 범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제야 삼장법사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관리가 다가와 청했다.

"폐하, 합환 잔치가 치작궁에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왕후 마마와 공주께서 궁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부디 폐하께서 귀한 분과 함께 혼례를 치러 주시옵소서."

국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곧장 부마가 될 삼장법사와 함께 궁안으로 들어갔다.

시로 이르되,

사악한 임금은 꽃을 탐하여 화를 부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는 번뇌로 인해 근심이 깊구나.

결국 당승이 내궁 안에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지는 알 수 없는 채로,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5회 — 제시해주신 입력값이 "第九十五回 假合{{另"와 같이 불완전하여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전체 한자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규칙에 맞춰 즉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假合{{另

옥토를 잡아 참된 음기를 바로잡으니 영험한 근원이 돌아오리라

제95회 어화원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네 승려와 헛된 욕망을 품은 요괴

한편, 부유한 원외는 고승을 맞이하기를 기뻐하고 당승은 부귀영화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한편, 당승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국왕을 따라 후궁으로 향했다.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려오고, 코끝을 찌르는 신비로운 향기가 풍겨왔다. 당승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앞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로모(毘盧帽)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신통력을 발휘해 화안금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궁궐처럼 화려하게 늘어진 무희들의 행렬이었으며, 비단 휘장이 봄바람에 나부끼듯 아름다웠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아리따운 자태는 눈부시게 고우며, 살결은 옥과 얼음처럼 깨끗하구나. 한 쌍 한 쌍의 여인들은 가련할 만큼 아름답고, 짝을 지은 미인들은 서시보다도 뛰어나도다. 구름처럼 높게 말아 올린 머리에는 채색 봉황이 노니는 듯하고, 가느다란 눈썹은 먼 산의 능선처럼 부드럽게 휘었네. 피리 소리와 악기 연주가 우아하게 흐르고, 통소와 북소리가 끊임 없이 울려 퍼지니, 다섯 가지 음악의 음조가 높낮이를 맞추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구나. 맑은 노래와 묘한 춤사위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꽃이 만발한 화려한 정원은 보는 눈을 즐겁게 하네.

손오공은 스승님이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허, 대단한 스님이야, 정말 대단해. 화려한 비단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석 같은 풍경 속을 걸으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시니 말이야."

잠시 후, 황후와 후궁들이 공주를 호위하며 지작궁(鵲宮)을 나섰다. 그들은 모두 한데 모여 "국왕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외치며 영접했다. 그 광경에 당승은 어찌할 바를 몰라 겁에 질린 채 떨고만 있었다. 손오공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공주의 머리 위로 요괴의 기운이 아주 살짝 비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주 흉악한 기운은 아니었다. 손오공은 얼른 당승의 곁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스승님, 저 공주는 가짜입니다."

당승이 물었다.

"가짜라니, 그럼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게 하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본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러자 당승이 만류했다.

"안 된다, 안 돼. 자칫 국왕 폐하를 놀라게 해드릴까 두렵구나. 우선 국왕과 황후가 물러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법력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자."

손오공은 성미가 급한 데다 그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앞으로 달려가 공주의 먹살을 잡고 꾸짖었다. "이 고약한 요괴 놈아! 여기서 가짜로 행세하며 호의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욕심이 이것뿐이나? 감히 우리 스승님까지 속여서 정기를 빼앗고 네 음탕한 욕심을 채우려 들다니!"

이 소동에 국왕은 낮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고, 후궁들은 나동그라졌으며, 궁녀와 무희들은 제 목숨을 부지하려 사방으로 흩어져 숨기 바빴다. 그 모습은 마치 다음과 같았다.

시로 이르되, 봄바람은 완연하여 정원을 휩쓸며 지나니 천 가지 꽃들이 흔들리고, 쓸쓸한 가을 기운은 금지된 궁궐에 들이닥쳐 만 개의 잎사귀를 휘날리네. 봄바람은 모란을 꺾어 난간 아래로 밀어내고, 가을바람은 작약을 불어 난간 옆에 눕히네. 연못가 연꽃은 어지럽게 흔들리고, 대 위 국화 꽃봉오리는 흩어져 쌓였구나. 해당화는 힘없이 흠먼지 속으로 쓰러지고, 장미는 향기를 머금은 채 들판에 잠들었네. 봄바람은 연꽃 줄기를 꺾어놓고, 겨울 눈은 매화의 어린 꽃봉오리를 짓누르네. 석류 꽃잎은 내원 동서로 어지럽게 떨어지고, 강가의 버드나무 가지는 황궁 남북으로 비스듬히 늘어졌구나. 아름다운 꽃들이 밤새 풍파에 휘말리니, 수많은 꽃잎이 비단처럼 땅에 깔렸도다.

당승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벌벌 떠는 손으로 국왕을 붙들고 외쳤다. “폐하,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이것은 제 제자가 법력을 써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중입니다.”

한편, 요괴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손을 뿌리치고는 입고 있던 옷을 허물처럼 벗어 던졌다. 그러고는 머리를 거칠게 털어 비녀와 장신구들을 모두 떨어뜨리더니, 어화원의 토지묘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약을 찢는 절구 공이처럼 생긴 짧은 막대기를 하나 집어 들고는, 몸을 획둘려 손오공을 향해 마구 휘두르며 공격했다. 손오공도 즉시 뒤를 쫓아 여의금고봉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맞섰다. 두 사람은 요란한 소리를 지

르며 정원 안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이더니, 이내 신통력을 발휘해 구름과 안개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살벌한 전투를 벌였다.

시로 이르되,

금빛 철봉은 천하에 이름을 떨치나, 절구 공이 같은 짧은 막대는 아
는 이 없구나. 한 명은 진경을 구하러 이곳에 왔고, 한 명은 기이한 꽃
을 사랑해 이곳에 머무네. 요괴는 오래전부터 당승을 노려보며, 그 정
기를 취해 합치기를 원해왔다네. 예전에는 진짜 공주를 납치해 가, 사
람의 모습으로 변해 아끼며 살아왔지. 이제 대성(손오공)이 요괴를 알
아채니, 가짜와 진짜를 가려 목숨을 구하러 하네. 짧은 막대는 머리를
내리치며 날아다니고, 철봉은 위엄 있게 정면을 타격하네. 떠들썩하게
맞붙어 싸우니, 구름과 안개가 하늘을 뒤덮어 백일을 가리네.

두 사람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에 성안의 백성들은 겁에
질려 가슴을 졸였고, 궁궐의 관리들도 모두 간담이 서늘해졌다. 당승
은 국왕을 부축하며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마마께서는 부디 왕비
님과 다른 분들께 겁먹지 말라고 달래 주십시오. 공주님은 진짜 모습을
감춘 가짜이니, 제 제자가 저 요괴를 붙잡고 나면 곧 진실이 밝혀질 것
입니다.”

그때 용기 있는 몇몇 후궁이 요괴가 벗어 던진 옷과 비녀를 가져다
왕비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들은 공주님이 입고 계시던 옷과 장
신구들입니다. 지금은 모두 벗어 던진 채 알몸으로 저 스님과 하늘에서
싸우고 있으니, 필시 요괴가 틀림없습니다.”

그제야 국왕과 왕비, 후궁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았다.

한편, 요괴와 손오공이 만나질 동안이나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며 크게 외쳤다. "변해라!" 그는 한 번에 열 개로, 열 개를 다시 백 개로, 백 개를 다시 천 개로 변신시켰다. 순식간에 하늘에는 수많은 손오공이 뱀이나 구렁이가 헤엄치듯 뒤엉켜 요괴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당황한 요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 줄기 맑은 바람으로 변해 곧장 푸른 하늘 위로 도망쳤다. 손오공이 주문을 외워 여의봉을 다시 한 대로 줄인 뒤, 눈부신 빛을 뿜으며 끝까지 뒤쫓았다. 서천문에 다다랐을 때 번쩍이는 깃발들이 보이자, 손오공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천문을 지키는 자들아, 요괴를 막아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과연 천문에는 호국천왕이 방(龐), 유(劉), 구(荀), 필(畢) 네 명의 대원수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각자 무기를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았다. 요괴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자 급히 몸을 돌려 짧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시 손오공과 맞섰다.

손오공이 철봉을 휘둘러 자세히 살펴보니, 그 짧은 막대기는 한쪽 끝은 굵고 다른 쪽 끝은 가늘어서 마치 약을 찌는 절구공이처럼 생겼다. 손오공이 크게 호통을 치며 외쳤다. "이 요물아! 네놈이 들고 있는 게 대체 무엇이기에 감히 이 몸과 맞서려 하느냐? 어서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네놈의 정수리를 박살 내 버리겠다!"

요괴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네놈이 내 병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 노래를 들어보아라.

양지옥을 깎아 만든 신령한 뿌리, 수만 년 세월 동안 모양을 다듬었네. 혼돈이 열릴 때 이미 내 것이었고, 천지가 갈라질 때 이미 내가 앞섰도다. 그 근원은 범상한 세상의 물건이 아니요, 본래 성품은 하늘 위에 있도다. 금빛 광채는 사상(四相)과 하나 되고, 오행의 상서로운 기운은 삼원(三元)과 합쳐졌네. 오랫동안 달나라 궁궐에 머물며, 계수나무 전각 곁을 지켜왔노라. 꽃을 사랑하는 마음에 세상에 내려와, 천축국에서 가짜 공주로 변신했으니, 너와 즐겁게 놀러는 다른 뜻은 없고, 당승과 맺을 인연을 이루려 함이라. 어찌 네가 남의 혼사를 망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흉악하게 싸우려 하느냐? 내 병기의 이름이 대단하여, 네놈의 금고봉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광한궁의 약쥬는 절구공이, 한 대 맞으면 목숨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비웃었다. "이 고약한 요물 같은니! 달나라 궁궐에 살면서도 이 몸의 수단을 모르고 감히 여기서 말장난을 하느냐? 어서 본모습을 드러내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요괴가 말했다. "네놈이 오백 년 전 천계를 어지럽혔던 필마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네놈을 상대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의 혼사를 망치는 것은 부모를 죽인 원수와 다름없는 죄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구나. 하늘을 속인 필마온인 네놈을 반드시 때려눕히겠다!"

손오공은 '필마온'이라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대노하여 철봉을 휘둘러 요괴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고, 요괴 또한 절구공이를 휘둘러 맞서 싸웠다. 두 존재는 서천문 앞에서 맹렬하게 맞붙었다.

시로 이르되,

금고봉과 절구공이, 두 신령한 병기가 서로 맞먹는구나. 하나는 혼인을 위해 세상에 내려왔고, 하나는 당승을 지키려 이곳에 왔네. 원래 국왕이 정조가 없어 꽃을 좋아한 탓에, 요괴를 불러들여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두 존재 모두 고집을 꺾지 않으니, 서로 부딪치며 승부를 겨루고 말다툼을 벌이네. 절구공이를 든 요괴는 세상에 드문 영웅이나, 철봉을 휘두르는 신통력은 더욱 아름답구나. 금빛 광채는 하늘 문을 환히 비추고, 채색 안개는 땅까지 눈부시게 이어지네. 수십 차례 전투를 치르니, 요괴의 힘이 약해 도저히 버티지 못하네.

요괴와 손오공은 수십 차례를 더 싸웠다. 요괴는 손오공의 봉술이 워낙 매섭고 빈틈이 없어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괴는 절구공이를 허공에 한 번 휘두르며 몸을 획 돌리더니, 만 갈래의 금빛을 내뿜으며 남쪽 모영산 방향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손오공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한참을 쫓아가니 커다란 산이 나타났는데, 요괴는 금빛을 뿜으며 산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손오공은 혹시라도 요괴가 다시 나라로 돌아가 당승을 해칠까 걱정되었다. 그는 산의 형세를 확인한 뒤, 구름을 타고 곧장 나라 안으로 되돌아갔다.

어느덧 시간은 신시(오후 3시~5시 사이)가 되었다. 국왕은 겁에 질려 당승의 옷자락을 붙들고 벌벌 떨며 외쳤다. "성스런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후궁들과 황후 또한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손오공이 구름 위에서 획 내려오며 외쳤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당승이 말했다. "오공아, 멈춰라! 국왕의 몸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물으리니, 가짜 공주의 일이 대체 어찌 된 것이냐?" 손오공은 지작궁(鵲宮) 밖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깎듯이 예의를 갖추며 대답했다. "가짜 공주는 요괴입니다. 처음에 만나 절 동안 싸워보았으나 저를 당해내지 못하더니, 맑은 바람으로 변해 천문(天門) 쪽으로 달아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천신들에게 소리쳐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괴가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저와 수십 합을 더 싸우더니, 이번에는 몸을 금빛으로 바꾸어 남쪽의 어느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가 급히 산까지 뒤쫓아갔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놈이 이곳으로 돌아와 스승님을 해칠까 걱정되어 급히 돌아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이 당승을 붙들고 물었다. "가짜 공주가 요괴라면, 나의 진짜 공주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가 그 가짜 공주를 붙잡고 오면, 진짜 공주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후궁들은 그제야 두려움을 떨쳐내고는 하나둘 앞으로 나와 절하며 간청했다. "부디 성스런 스님께서 저희 진짜 공주를 구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려주신다면 반드시 큰 보답을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곳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스승님과 함께 궁 밖 대전으로 나가시고, 마님들께서는 각자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제 사제들인 저팔계와 사오정을 불러 스승님을 호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요괴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안팎을 구분해야 저 또한 걱정 없이 제 힘을 다해 요괴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왕은 그 말에 크게 감사하며 따랐다. 국왕은 당승의 손을 잡고 궁을 나와 대전으로 향했고, 후궁들은 각자 궁으로 돌아갔다. 한쪽에서는 정갈한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팔계와 사오정을 불렀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도착하자, 손오공은 앞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두 사람에게 스승님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는 대성 손오공이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대전 앞에 모여 있던 관리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오공은 곧장 정남쪽에 있는 저 산으로 달려가 요괴를 찾아 나섰다. 알고 보니 요괴는 싸움에서 패하자 이 산으로 도망쳐 굴속으로 숨어든 뒤, 입구를 돌덩이로 막아버리고는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었다. 손오공이 한참 동안 찾아보아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마음이 몹시 초조해졌다. 그는 주문을 외우며 진언을 읊어 산의 토지와 산신을 불러내 심문했다.

잠시 후 두 신이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알았더라면 멀리서부터 마중 나갔을 터이니 부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일단 때리지는 않겠다. 대신 묻겠다.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에 요괴가 몇 마리나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두 신이 대답했다. "대성, 이 산의 이름은 모영산(毛穎山)입니다. 산 안에는 토끼 굴이 세 군데뿐이며, 예부터 지금까지 요괴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오환(五環)의 복된 땅입니다. 요괴를 찾으신다면 서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서천 천축국에 갔을 때, 그 나라 국왕의 공주가 요괴에게 납치되어 황야에 버려진 일이 있었다. 그 요괴가 공주의

모습으로 변해 국왕을 속이고, 화려한 누각을 세우고 수놓은 공을 던지며 부마를 뽐냈다고 소동을 피우더군. 내가 당승을 데리고 그 누각 아래 갔더니, 요괴가 당승을 짝으로 삼아 정기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당승을 치려 하기에 내가 그 정체를 알아채고 궁궐에서 나타나 붙잡았다. 그러자 요괴가 사람 옷과 장신구를 벗어 던지고, 약을 찢는 절구공이라는 이름의 짧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나와 반나절 동안 싸우더니, 청풍으로 변해 달아나 버렸다. 내가 서천문까지 쫓아가서 열댓 합을 더 싸웠는데, 요괴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다시 금빛으로 변해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이니, 어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두 신선이 그 말을 듣고는 즉시 손오공을 데리고 세 개의 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산기슭에 있는 굴 근처를 살펴보니 풀밭에 있던 토끼 몇 마리가 깜짝 놀라 달아났다. 마침내 산꼭대기에 있는 굴에 이르러 살펴보니,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입구를 짝 막고 있었다.

토지가 말했다. "이곳에 분명 요괴가 숨어 있으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어 바위를 치워버렸다. 그러자 요괴가 정말 그 안에 숨어 있다가, '휘익' 소리를 내며 튀어나와 약을 찢는 절구통을 휘둘러 손오공을 공격했다. 손오공이 재빨리 여의봉을 들어 막아내자, 그 충격으로 산신은 뒤로 밀려났고 토지는 급히 몸을 피했다.

요괴는 입으로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내뱉으며 산신과 토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누가 너희더러 이놈을 여기로 안내하라고 시켰느냐!"

요괴는 손오공의 여의봉에 밀려 비틀거리면서도, 싸우며 뒤로 물러나더니 이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위급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저물고 있었다. 손오공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당장이라도 몽둥이로 때려눕힐 기세로 손을 내리치려 했다. 그때 갑자기 아득히 높은 하늘 위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성, 움직이지 마시오! 움직이지 마시오! 몽둥이를 거두고 자비를 베푸시오!"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보니, 태음성군이 향아 선녀들을 거느리고 채운을 타고 눈앞에 내려오고 있었다. 깜짝 놀란 손오공은 얼른 철봉을 거두고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태음성군님, 어디를 오시는 길입니까? 제가 미처 몰라뵈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태음성군이 말했다.

"그대와 싸우고 있는 이 요괴는 우리 광한궁에서 신비로운 서리 약을 찢던 옥토라네. 옥문 금쇄를 몰래 열고 궁을 빠져나온 지 벌써 일 년이 되었지. 내가 보니 이놈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재앙을 만난 듯하여 특별히 목숨을 구하러 왔네. 부디 대성이 내 면목을 보아 이놈을 용서해주길 바라네."

손오공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쩐지 약을 찢는 절구를 잘 쓴다 했더니, 알고 보니 옥토였군요. 태음성군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놈은 천축국 국왕의 공주를 가로채서 진짜 모습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스러운 스승님의 정기를 해치려 했으니, 그 죄와 행실이 어찌 가볍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리 쉽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태음성군이 다시 말했다.

"그대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그 국왕의 공주 또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본래 달나라의 소아 선녀라네. 십팔 년 전, 소아 선녀가 옥토에게 손바닥을 한 대 쳤는데, 그 후로 속세가 그리워져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지. 그 영험한 빛이 국왕의 정궁 황후의 태중에 닿아 그때 태어나게 된 것이라네. 이 옥토는 그 손바닥 한 대를 맞은 원한을 품고 작년에 몰래 궁을 빠져나와 소아 선녀를 황야에 버려두었지. 하지만 당승과 짝을 맺으려 한 죄는 참으로 용서받기 어렵네. 다행히 그대가 주의 깊게 살펴 가짜를 가려냈고, 스승님께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부디 내 면목을 봐서 이놈의 죄를 사해주게나. 내가 이놈을 데려가겠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사연이 있다면 저도 감히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태음성군님께서 옥토를 데려가셔도 국왕이 믿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태음성군님께서 선녀님들과 함께 옥토를 저쪽 궁으로 데려가 국왕 앞에서 명확히 증명해 주십시오. 첫째로 저의 신통력을 보여주고, 둘째로 소아 선녀가 왜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국왕이 소아 공주의 신분을 되찾게 한다면,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음성군은 그 말을 믿고 손가락으로 요괴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그 못된 짐승은 어서 본모습을 드러내고 따라오너라!" 그러자 옥토가 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다음과 같았다.

입술은 얇고 이빨은 뾰족하며, 귀는 길고 수염은 드문드문하구나. 몸은 둥글고 털은 옥처럼 희며, 네 발을 뻗으니 그 움직임이 산을 넘듯 빠르도다. 콧날은 곧고 매끄러워 마치 서리가 분을 바른 듯 곱고, 두 눈은 붉게 빛나니 마치 눈 위에 연지를 찍은 듯하구나. 몸을 웅크리면 하얀 비단 뭉치 같고, 허리를 펴면 은빛 실을 엮은 듯하도다. 새벽녘 맑은 이슬을 몇 번이나 들이켜며, 불로장생의 약을 쥘는 옥절구의 기이한 모습이로다.

손오공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구름을 타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태음성군은 항아 선녀들과 함께 옥토를 데리고 곧장 천축국 경계로 향했다. 마침 해가 저물어 달이 떠오르는 황혼 무렵이었다. 성 근처에 다다르니 성루에서 북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국왕과 당승은 아직 전각 안에 있었고, 팔계와 사오정, 그리고 여러 관리들은 퇴궐을 논의하며 계단 앞에 모여 있었다. 그때 남쪽 하늘에서 채운이 피어오르더니 대낮처럼 밝아졌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데, 손오공이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천축국의 폐하! 황후와 후궁, 그리고 모든 이들은 나와 나오십시오! 이 보석 기둥 아래 계신 분은 월궁의 태음성군이시고, 양옆에 계신 선녀들은 달나라의 향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옥토가 바로 귀국의 가짜 공주이니,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국왕은 급히 황후와 후궁, 궁녀와 무희들을 불러 모아 하늘을 향해 절하게 하였고, 그 자신과 당승, 관리들도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성 안의 모든 집에서도 향상을 차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불을 외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창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중, 저팔계가 음심이 생겨 참지 못하고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선녀 한 명을 꺼안으며 말했다. “누님, 나랑은 구면이지? 나랑 같이 놀러 가자고!” 그러자 손오공이 달려들어 팔계의 귀를 잡아채며 뺨을 두 대 후려치고 꾸짖었다. “이 망할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음란한 마음을 품느냐?” 팔계가 투덜거렸다. “그저 심심해서 장난 좀 친 것뿐이요.”

태음성군이 신령한 깃발을 돌리자 향아 선녀들이 옥토를 거두어들였고, 그들은 그대로 달나라 궁궐로 돌아갔다. 손오공은 팔계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국왕은 전각 위에서 손오공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서 일어난 일의 내력을 물었다. “신통한 스님들의 큰 법력 덕분에 가짜 공주를 잡았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진짜 공주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대의 진짜 공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달나라에 사는 소아 선녀입니다. 18년 전, 그녀가 옥토를 손바닥

으로 내리친 일 때문에 속세가 그리워져 아래로 내려왔고, 그대의 황후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입니다. 옥토가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지난 해에 몰래 달나라의 문을 열고 내려와 소아 선녀를 황야로 내쫓고는, 스스로 모습을 바꾸어 그대를 속인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태음성군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가짜를 물리쳤으니, 내일은 어가를 움직여 진짜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과 송구함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말했다. “스님, 저는 어려서부터 왕위에 올라 성문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공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공주는 지금 부금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물러가 쉬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진짜 공주를 찾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엎드려 아뢰었다. “왕이시여,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소서. 이 신통한 스님들은 구름을 타고 안개를 가르는 부처님과 같으니, 반드시 과거와 미래의 인과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일 스님들과 함께 찾아가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왕은 그 말에 따라 일행을 유춘정으로 모셔 공양을 대접하고 쉬게 했다. 이때는 이미 밤이 깊어 이경(二更)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시로 이르되,

구리 물시계에 달빛은 밝게 흐르고 금종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지네. 두견새는 봄이 다 간다 슬피 우는데 낙화는 갈 길 잃어 삼경에

가까워지네. 어화원은 적막하여 그네 그림자뿐이고 푸른 하늘엔 은하수가 허공을 가로지르네. 변화한 거리엔 행인 하나 보이지 않고 밤하늘 별들만 밝게 빛나는구나.

그날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그날 밤, 국왕은 요괴의 기운을 떨쳐내고 정신을 가다듬어 새벽 다섯 시경에 다시 조례를 열었다. 조례를 마친 국왕은 당승 일행 네 사람을 불러 공주를 찾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명했다. 당승이 그 뒤를 따라 나아가 조례 자리에서 예를 갖추었다. 손오공 일행 세 사람도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국왕이 몸을 굽혀 정중히 말했다. "어제 말씀드린 공주님을 찾는 일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디 신성한 스님들께서 힘을 보태어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승이 대답했다. "빈승이 며칠 전 동쪽에서 오다가 날이 저물어 부금사라는 절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기를 청했는데, 다행히 그곳 스님이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달빛 아래 한가로이 걷다가 부금사의 옛 정원 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곳의 노스님은 이미 백 세가 넘은 분이셨는데, 곁에 있던 사람들을 몰려나게 한 뒤 제게 조목조목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슬픈 소리는 작년 늦봄, 제가 달을 밝히며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한 여인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인에게 물으니, 그녀는 천축국 국왕의 공주라

며 밤에 달을 구경하고 꽃을 감상하다가 바람에 휩쓸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노스님은 예의를 아는 분이라 즉시 공주를 조용한 방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다만 절의 거친 스님들이 공주를 해칠까 두려워, 요괴가 나타나 갇혀 있는 것이라고 둘러대며 방에 가두어 두셨지요. 공주는 그 속사정을 눈치채고 낮에는 헛소리를 하며 차와 밥을 얻어먹으며 지냈고, 밤이 깊어 아무도 없을 때면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노스님께서도 궁궐에 몇 차례 가서 공주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신 뒤라 감히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제 제자들이 신통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노스님께서 제게 간곡히 당부하며 이곳에 와서 조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정체가 달나라의 옥토가 요괴가 되어 진짜 공주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원기를 빼앗으려는 속셈까지 품고 있었으니, 다행히 제 제자가 신통력을 발휘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요괴는 태음성군에게 붙잡혀 갇으나, 진짜 공주님은 여전히 부금사에서 바람을 맞는 듯 외롭게 계십니다."

국왕은 이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목놓아 크게 울었다. 이 소리에 궁궐 안의 모든 후궁과 여관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 앞뒤 사정을 물었으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참이 지난 뒤, 국왕이 다시 물었다.

"부금사가 성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당승이 대답했다.

"겨우 육십 리 정도 됩니다."

국왕은 즉시 어명을 내렸다.

"동궁과 서궁의 주인들은 전각을 지키고, 태사는 조정을 돌보며 나라를 수호하라. 짐은 정궁의 황후와 함께 여러 관리 및 네 명의 성스러운 승려를 거느리고 사찰로 가서 공주를 데려오겠다."

곧이어 행차를 준비하여 일행은 궁궐을 나섰다.

손오공이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라 허리를 한 번 비틀더니, 순식간에 절 안으로 내려앉았다. 스님들은 깜짝 놀라 서둘러 무릎을 꿇고 맞이하며 말했다. "나으리, 떠나실 때는 저희와 함께 걸어서 가셨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 스승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서 모셔 오너라. 향을 피운 상을 차려 맞이할 준비를 해라. 천축국 국왕과 황후, 여러 관리와 우리 스승님께서 모두 오셨다."

스님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곧바로 그 노승을 모셔 왔다. 노승은 손오공을 보자마자 몸을 굽혀 절하며 물었다. "나으리, 공주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오공은 가짜 공주가 수놓은 공을 던지며 당승과 혼인하려 했던 일, 도박을 벌이며 소란을 피운 일, 그리고 태음성군이 옥토를 데려가며 설명한 내용까지 모두 자세히 들려주었다. 노승은 다시 머리를 조아

리며 감사를 표했다. 손오공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절하지 마시오, 절하지 마시오. 어서 맞이할 준비나 서두르시오.”

그제야 스님들은 후궁에 갇혀 있던 여인이 진짜 공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도나도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산문 밖에 향을 피운 상을 차리고 가사를 입은 채 종과 복을 울리며 기다렸다.

머지않아 국왕의 행차가 도착했다. 과연 다음과 같이 노래할 만했다.

: 찬란한 상서로운 안개가 하늘 가득 향기를 채우니 : 거칠던 산이 순식간에 상서로운 기운을 머금었구나. : 무지개는 천 년의 강과 바다를 맑게 흐르고 : 번개는 긴 봄을 휘감아 성군의 치세를 뽐내는도다. : 풀과 나무는 은덕을 입어 빼어난 빛을 더하고 : 들꽃은 단비를 얻어 향기를 더욱 짙게 뽐는구나. : 예부터 어른들이 남긴 자취가 있는 이곳에 : 이제 명군이 보배로운 전당에 내려오니 참으로 기쁘도다.

국왕이 산문 밖에 이르니, 스님들이 모두 정연하게 줄을 지어 옆드려 절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손오공이 서 있었다. 국왕이 물었다. "신성한 스님께서는 어찌 이리 먼저 와 계셨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 몸이 허리 한 번 숙 돌리니 바로 도착했지요. 그쪽들은 어찌 하여 반나절이나 걸리셨습니까?" 이어 당승 일행도 모두 도착했다. 당승이 국왕을 안내하여 뒤쪽 방 앞으로 이끌었는데, 가짜 공주는 여전히 헛소리를 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노승이 무릎을 꿇고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방 안에 작년에 바람을 타고 온 진짜 공주님이 계십니다." 국왕이 즉시 문을 열라고 명했다. 곧이어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었다.

국왕과 황후는 공주를 보자마자 그 생김새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몸이 더러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가 공주를 덥석 껴안았다. "아이고, 내 가여운 자식아! 어찌 이런 고초를 겪으며 여기서 고생을 했던 말이냐!" 참으로 부모와 자식이 상봉하니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통곡했다. 한참을 울며 헤어져 있던 정을 나누고 나서, 즉시 향기로운 목욕물을 가져와 공주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 가마에 태워 궁으로 돌아갔다.

손오공이 국왕에게 다시 손을 모아 읊하며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왕이 예의를 갖추어 답했다. "신통한 스님께서 말씀하시니, 짐이 즉시 따르겠소."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이곳 산의 이름은 백각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네가 요괴로 변해 밤마다 사람을 해치니, 오가는 나그네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네는 닭을 이용하면 제압할 수 있을 듯하니, 아주 크고 힘센 수탉 천 마리를 골라 산에 풀어놓아 이 독충을 없애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산의 이름도 새로 바꾸고, 칙서로 봉호를 내려 공주를 보살펴준 은혜에 보답하게 해 주십시오." 국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말을 수락했다. 곧바로 관리들을 보내 성 안에서 닭을 가져오게 했고, 산의 이름도 보화산으로 바꾸었다. 또한 공부(工部)에 명령하여 자재를 갖추어 산을 중수하게 한 뒤, '칙건보화산급고부금사(勅建寶華山給孤布金寺, 임금의 명으로 세운 보화산의 급고독원 포금사)'라는 봉호를 내렸다. 그리고 그 노승을 '보국승관'이라는 관직에 봉하여 대대로 세습하게 하고, 녹봉으로 곡식 서른여섯 섬을 내렸다. 승려들이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리자, 국왕은 일행을 배웅하며 궁으로 돌아갔다.

공주가 궁으로 돌아오자 모두가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국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공주의 근심을 풀어주고 축하를 건넸다. 후궁과 공주는 모자가 되어 다시 만나 화목하게 재회했다. 국왕과 신하들 또한 기쁨을 나누며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잔치를 즐겼다.

다음 날 아침, 국왕은 전지를 내려 단청도 아래에 머무는 승려 네 명을 기쁜 얼굴로 불러들여 화이루 위에서 정성껏 대접하게 했다. 또한 공주에게도 새 단장을 하게 하여, 전각 밖으로 나와 당승 일행이 고통에서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표하게 했다. 인사를 마친 당승은 국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서천을 향해 길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국왕이 어찌 이들을 쉽게 보내주겠는가. 국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닷새나 엿새 동안이나 계속 이어갔으니, 먹을 것에 정신이 팔린 저팔계는 그야말로 배가 터지도록 마음껏 음식을 즐겼다.

국왕은 일행이 불교에 귀의한 마음이 매우 깊어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없음을 깨닫고, 금과 은 이백 덩이와 보물 한 쟁반씩을 내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들은 이를 조금도 받지 않았다. 국왕은 황금 수레를 준비하여 스승을 모시게 하고, 관리들을 보내 멀리까지 배웅하게 했다. 후궁들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 또한 머리 숙여 절하며 끝없는 감사를 전했다.

길을 떠나는 길에 다시 수많은 승려가 나타나 배웅하자, 모두가 차마 작별을 고하지 못하고 발길을 떼지 못했다. 손오공은 사람들이 배웅하느라 도무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별수 없이 주문을 외워 동남쪽 땅을 향해 신령한 입김을 불었다. 그러자 한바탕 어두운 바람이

불어와 배웅하던 사람들의 눈을 잠시 가렸고, 그제야 일행은 겨우 몸을 빼낼 수 있었다.

이 상황을 시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은혜로운 물결에 몸을 씻어 본래의 성품을 되찾고 금
빛 바다를 떠나 참된 진리를 깨닫도다.

결국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
진다.

제96회 — 구원외는 고승을 맞이하기를 기뻐하고, 당삼장은 부귀를 탐하지 않는 다

寇員外喜待高僧 唐長老不貪富貴

옥토끼를 잡다 참된 음기가 바르게 돌아오니 영험한 근원이 모여든
다

색은 본래 색이 아니요, 비어 있음 또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과 떠들썩함, 말함과 침묵함은 본래 하나이니, 꿈속에서 어찌 번거롭게 꿈을 말하겠는가. 쓰임이 있는 가운데 쓰임이 없고, 공이 없는 가운데 공을 베푸나니, 마치 과일이 익으면 자연히 붉어지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닦고 심어야 하는지 묻지 말지어다.

한편, 삼장법사 일행은 법력을 발휘하여 부금사의 승려들을 막아세웠다. 승려들은 검은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삼장법사 일행이 보이지 않자, 살아있는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줄로만 알고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린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 버렸다.

삼장법사 일행이 서천으로 향하던 시기는 봄이 저물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시로 이르되, 맑고 시원한 날씨에 상쾌함이 감돌고 연못에는 연꽃과 수련이 자라나네. 매실은 비를 머금어 익어가고 보리는 바람을 타고 이삭을 맺는다네. 풀향기 그윽하고 꽃잎 지는 곳에는 꾀꼬리 늘어 가고 버드나무 가지는 가볍구나. 강가의 제비는 새끼 데리고 날갯짓 배우고 산꿩은 새끼 먹이며 울음소리 높다. 해는 남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만물이 밝은 빛을 드리내는구나.

아침이면 길을 나서고 저녁이면 숙소를 찾아 굶이치는 시냇물을 따라 물결을 쫓아가기를 반복하며, 평탄한 길을 반 달 남짓 걸어갔다. 앞쪽을 보니 또 다른 성곽이 가까이 보였다. 삼장법사가 길을 물었다.

“제자야, 이곳은 또 어디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 길은 분명히 지나온 길인데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 분명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지요?”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이 앞뒤 분간을 전혀 못 하는구나.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구름 위 높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왔다가 구름을 타고 떠났을 뿐이지, 어찌 이 땅에 발을 디뎠겠느냐? 관심도 없는 일인데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네 말처럼 수상한 구석이 있어서 너를 골탕 먹이겠느냐?”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느덧 길의 끝에 다다랐다. 삼장이 말에서 내려 출렁이는 다리를 건너 대문 안 긴 길로 들어서니, 복도 아래 두 노인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들아, 너희는 저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저 복도로 가서 길을 물어오마." 손오공은 스승의 말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삼장이 가까이 다가가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노시주님, 빈승이 길을 좀 묻고자 합니다."

두 노인은 한창 세상의 흥망성쇠와 누가 성인이며 누가 현자인지, 당대의 영웅들이 이룬 대업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한탄하며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인사를 건네는 소리를 듣고는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다. "스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삼장이 말했다. "빈승은 멀리서 부처님을 뵙고자 찾아온 승려입니다. 방금 부방에 도착했는데 이곳의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근처에 선을 행하는 집이 있어 공양 한 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동대부라오. 부(府) 뒤편에 지령현이라는 현이 하나 있지. 스님께서 공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구걸하실 필요

없소. 저 패방을 지나 남북으로 난 길에서 서쪽을 향해 동쪽으로 뻗은 길을 가다 보면, 문루에 호랑이가 앉아 있는 집이 하나 있을 것ियो. 바로 구원외의 집인데, 그 집 문 앞에 '만승불저(만 명의 승려가 와도 막히지 않는다)'라고 적힌 패가 걸려 있소. 스님처럼 멀리서 오신 승려들 이라면 그곳에서 아주 잘 대접받을 수 있을 것ियो. 자, 어서 가시오! 어서! 우리 이야기 흐름을 끊지 말고 말ियो."

삼장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손오공에게 말했다. "이곳은 동대부 지령현이라고 하는구나. 저 노인들 말씀으로는 저 패방을 지나 남북 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호랑이가 앉아 있는 문루가 있는 구원외의 집이 있는데, 그 집 문 앞에 '만승불저'라는 패가 있다고 하니 그 집으로 가서 공양을 하자꾸나."

사오정이 말했다. "서천은 부처님의 땅이니, 분명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승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부와 현이 있는 곳이니 굳이 통행증을 확인할 필요도 없을 테고, 가서 공양을 좀 먹고 나면 길을 가기도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삼장법사와 세 제자가 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자, 길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들의 생김새가 궁금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하려 들었다. 삼장법사는 입을 다물라고 엄히 주의를 주며 "무례하게 굴지 마라, 무례하게 굴지 마라" 하고 타일렀다. 그러자 세 제자는 정말로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앞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큰 대로가 나타났다.

길을 가던 중, 문루에 호랑이 형상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대문 안쪽 병풍에는 '만승불저(萬僧不阻, 만 명의 승려가 와도 막힘이 없다)'라고 적힌 커다란 패가 걸려 있었다.

삼장이 말했다. "서천의 불국토는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모두 거짓이 없는 곳이라더니, 아까 그 두 노인이 말할 때는 믿지 않았으나 이곳에 와 보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팔계는 거칠고 무례한 성미라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잠깐 기다려라. 누군가 밖으로 나오면 그때 상황을 물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사오정도 거들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칫 갑자기 들어가 안팎을 가리지 못하면 보시자에게 번거로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행은 문앞에 말과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기로 했다.

잠시 후, 한 하인이 저울과 바구니를 들고 나오다가 일행을 보고는 깜짝 놀라 그것들을 내팽개치고는 안으로 달려 들어가 보고했다. "주인님, 밖에 묘한 승려 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령현의 부유한 외인인 구홍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며 연신 불경을 외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마중을 나왔다. 그는 삼장법사 일행의 외양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며 환대했다. 삼장법사는 겸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일행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을 하나 지나자 구홍이 길을 안내하여 어느 방에 이르렀다. 구홍이 말했다. “이쪽 위쪽 건물은 어른들을 모시는 불당과 경전 읽는 방, 그리고 공양을 드리는 재당입니다. 아래쪽 건물은 제 자식들이 머무는 곳이지요.” 삼장법사는 연신 감탄하며 칭찬했다. 그는 곧바로 가사를 걸쳐 입고 불공을 드린 뒤, 한 걸음씩 들어서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향기로운 구름이 감도는 듯하고 촛불은 눈부시게 빛났다. 방 안은 화려한 꽃들로 가득하고, 사방에는 금빛과 채색 장식이 찬란했다. 붉은색 높은 선반에는 자금종이 걸려 있고, 채색 칠을 한 탁자 위에는 화려한 북이 놓여 있었다. 여덟 가지 보물로 수놓은 깃발이 몇 쌍이나 걸려 있고, 수천 분의 불상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오래된 청동 향로와 청동 병, 정교하게 칠을 한 탁자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청동 향로에서는 침향과 단향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청동 병 속에는 연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듯했다. 칠기 탁자 위에는 오색 구름 무늬가 선명하고, 칠기 상자 안에는 향 꽃잎이 가득 쌓여 있었다. 유리 잔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고, 유리 등잔에는 향기로운 기름이 밝게 빛났다. 금경(금으로 만든 경쇠) 소리가 한 번 울리자 그 여운이 허공에 길게 퍼졌다. 참으로 속세의 보물이라 할 만한 누각이 따로 없으니, 이 불당의 정성은 하늘의 사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삼장법사는 손을 깨끗이 씻고 향을 피워 질을 마친 뒤, 다시 구홍에게 다가가 예를 갖추었다. 구홍이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전 읽는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은 또 이러하였다. 사각 탁자와 세워진 수납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전이 쌓여 있고, 옥함과 금함 속에는 수많은 서찰이 보관되어 있었다. 채색 탁자 위에는 종이와 먹,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정교하고 세심하게 갖춰진 문방사우였다. 병풍 앞에는 서화와 거문고, 바둑판이 놓여 있어 그윽한 멋을 더했다. 맑은 옥과 금으로 만든 신령한 경쇠가 놓여 있고, 달빛을 머금은 듯한 용의 수염 모양 괘사(겉옷)가 걸려 있었다. 맑은 기운이 정신을 상쾌하게 하니, 공양을 드리는 마음 또한 절로 평온해졌다.

삼장법사가 그곳에 도착하여 예를 올리려 하자, 구홍이 다시 붙잡으며 말했다. “가사를 편히 벗으십시오.” 삼장법사가 가사를 벗자 그제야 구홍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세 제자에게도 인사를 시켰다. 구홍은 말을 먹이고 짐을 복도에 내려놓게 한 뒤에야 안부를 물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온 임명된 승려로, 영산의 부방에 가서 부처님을 뵈고 진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귀택에서 승려를 극진히 대접한다는 소문을 듣고, 잠시 공양 한 끼를 올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구홍은 안색이 밝아지며 웃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구홍이라 하고, 자는 대관이라 합니다. 어느덧 예순네 살이 되었지요. 마흔 살 때부터 만 명의 승려에게 재를 올리겠다고 서원을 세웠는데, 이제야 비로소 완성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십사 년째 재를 올리고 있으며, 그동안 공양을 받은 승려들의 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요 며칠 일이 없어 명부를 계산해 보니, 이미 구천구백구십육 명에게 재를 올렸고 이제 딱 네 분이

부족하여 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도우셨는지 스님 네 분이 오셨으니, 드디어 만 명의 수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함자를 남겨 주시고, 한 달 정도 편히 머물러 주십시오. 만 명을 채우는 일이 끝나면 제가 가마를 준비해 스님들을 산 위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영산까지는 겨우 팔백 리 길이라 멀지 않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우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집안의 크고 작은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땀감을 나르고 물을 길고, 쌀과 밀가루, 채소를 가져와 재를 올릴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이 소식에 놀란 구원외의 아내가 급히 물었다.

"어디서 오신 스님들이기에 이토록 정중히 모시는 것이냐?"

하인이 대답했다.

"고승 네 분이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스님들의 거처를 여쭙어보니, 동토 대당의 황제께서 영산의 부처님을 뵙기 위해 보내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까지 오시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분들이라 하시며 어서 재를 준비해 극진히 모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기쁜 마음이 들어 시녀에게 명령했다.

"옷을 가져오너라. 나도 가서 직접 보겠다."

그러자 하인이 만류하며 말했다.

"마님, 한 분만 보셔야 합니다. 나머지 세 분은 겉모습이 너무나 못 생겨서 차마 눈 뜨고 보시기 힘들 정도입니다."

노부인이 말했다.

"너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생김새가 비록 추하고 괴상하더라도, 기품이 남다르고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면 필시 하늘의 신선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니라. 어서 가서 네 아버님께 알려드려라."

하인이 급히 경당으로 달려가 구원외에게 보고했다.

"마님께서 오셨습니다. 대당에서 오신 귀한 분들을 뵙겠다고 하십니다."

삼장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려 할 때, 어느덧 노부인이 당 앞에 도착했다. 노부인이 눈을 들어 삼장을 보니, 용모가 흰칠하고 풍채가 당당하여 참으로 위엄이 있었다. 이어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을 살펴보니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노부인은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임을 직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삼장이 급히 예를 갖추어 답하며 말했다.

"보살님께서 과한 예우를 해주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노부인이 구원외에게 물었다.

"네 분 스님께서서 어찌하여 나란히 앉지 않으시는가?"

그러자 저팔계가 입을 가리며 말했다.

"우리 세 명은 제자들입니다."

아뿔싸! 저팔계가 내뿔은 이 한마디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하여, 노부인은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한편, 한 하인이 달려와 보고했다. "두 숙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삼장이 급히 몸을 돌려 보니, 바로 두 명의 소년 수재였다. 그 소년들은 경당으로 걸어 들어와 어른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고, 삼장은 당황하여 얼른 답례를 했다. 그러자 구원외가 앞으로 나서며 아이들을 붙잡고 설명했다. "이 아이들은 제 두 아들입니다. 이름은 구량과 구동이라 하는데, 서재에서 글을 읽다가 점심을 먹으러 오는 길에 스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삼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기특해! '가문을 높이려면 선을 쌓아야 하고, 훌륭한 자손을 얻으려면 글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딱 맞구나."

두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어르신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구원외가 웃으며 대답했다. "먼 길을 오셨단다. 남섬부주 동토 대당의 황제께서 보낸 특별 사절로, 영산에 계신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오시는 분이란다."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사림광기』라는 책에서 읽기로는 세상에 큰 대륙이 네 곳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서우하주라고 하고, 동승신주라는 곳도 있지요. 남섬부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리는 건가요?”

삼장이 웃으며 말했다. “빈승은 길 위에서 허비한 시간은 많으나, 실제로 길을 걸은 날은 그리 많지 않다네. 늘 무서운 요괴들을 만나 고초를 겪으며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세 제자의 보살핌 덕분에 잘 버텨왔지. 벌써 열네 번의 겨울과 여름을 지나 이제야 겨우 보배로운 경전이 있는 곳에 닿았구나.”

그 말을 들은 소년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신성한 스님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스님이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아이가 달려와 청했다. “재를 올릴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나으리, 어서 드시지요.” 구원외는 부인과 아들에게 집을 옮기라고 일렀고, 자신은 스승과 세 제자를 모시고 재당으로 향했다. 재당의 상차림은 아주 정갈하고 품격이 넘쳤다.

금칠을 한 탁자와 검은 칠을 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오색 빛깔의 신선한 과일들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숙련된 장인들이 새로이 꾸며낸 모양새였다. 두 번째 줄에는 다섯 가지 밀반찬이, 세 번째 줄에는 다섯 접시의 과일이, 네 번째 줄에는 다섯 대접의 별미가 차례로 놓였다. 모든 음식이 달콤하고 향긋했다. 채소탕과 흰쌀밥, 갓 찌낸 만두는 매콤하고 뜨끈뜨끈하여 입에 착착 붙었고, 그야말로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일곱여덟 명의 하인이 바쁘게 오가며 시중을 들었고, 네다섯 명의 요리사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다.

국을 나르는 이와 밥을 푸는 이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마치 유성처럼 빠르고 달빛을 쫓는 듯 역동적이었다. 저팔계는 한 입에 한 그릇씩 해치우며 마치 바람이 구름을 휩쓸어 가듯 음식을 먹어 치웠다. 스승과 제자 모두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다. 삼장법사가 일어나 구원외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며 길을 떠나려 하자, 구원외가 그를 붙들며 말했다.

“스님, 부디 며칠만 더 머물다 가십시오. 예부터 ‘시작은 쉬워도 끝맺음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서원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저도 마음 편히 배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구원외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한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머물기로 했다.

며칠 동안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끝에, 구원외는 마침내 스물네 명의 승려를 청하여 도량을 원만하게 갖추었다. 스님들이 사흘 밤낮을 공들여 준비한 뒤, 마침내 좋은 날을 골라 불사를 시작했다. 그곳의 풍습도 대당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그 정성만큼은 대단했다.

깃발을 높이 올리고 금빛 불상을 정성껏 모셨으며, 모두가 나란히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 공양을 올렸다.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생과 피리를 불어 연주하니, 구름과 횡적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차례 연주를 마치고 나면 모두가 한목소리로 경전을 낭독했다. 먼저 땅의

신에게 안녕을 빌고, 다음으로 여러 신장에게 예를 갖추었다. 문서를 올리고 불상을 향해 절을 올린 뒤, 구절마다 재앙을 없애준다는 《공작경》을 강독하고, 약사여래의 등불을 밝히니 그 불꽃이 찬란하게 빛났다. 물을 올리며 참회하며 원한을 풀고, 《화엄경》을 읊으며 비방을 물리쳤다. 삼승의 묘법을 익히는 스님들의 정성이 모두 한결같았다.

그렇게 사흘 밤낮 동안 정성껏 불사를 마쳤다. 삼장법사는 마음속으로 늘 그리워하던 영산을 떠올리며 서둘러 길을 떠나고자 작별을 고했다. 그러자 구원외가 말했다. "스님께서 이토록 급히 떠나려 하시니, 혹여 며칠간 불사가 너무 분주하여 제가 소홀히 대접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신 것은 아니옵니까?"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귀한 덕에 큰 폐를 끼쳤는데, 어찌 보답할 길을 찾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지, 어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다만, 성상께서 저를 길을 떠나보내시며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가 그저 3년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잘못 대답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지체되어 어느덧 14년이나 흘러버렸으니 말입니다. 경전을 구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돌아가는 데 또 12~13년이 걸린다면 어찌 성旨(성상의 뜻)를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외 어르신께서는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경전을 무사히 구해 돌아온 뒤에 다시 이곳에 머물며 오래도록 대접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팔계는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다. “스승님은 정말이지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너무 야박하십니다! 저 부자 어르신은 큰 재산을 모아 만 명의 승려에게 재를 올리겠다는 서원을 세우셨고, 이제 그 서원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렇게 정성껏 대접해 주시는데, 며칠 더 머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습니까? 왜 꼭 가야만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눈앞에 차려진 좋은 공양을 마다하고, 대체 어디 가서 구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길에 무슨 네 아버지나 어머니 님이라도 기다리고 있답니까?”

그러자 삼장법사가 버럭 호통을 쳤다. “이 무식한 놈아! 먹는 것만 밝힐 줄 알지, 공덕을 쌓는 근본은 생각지도 않는구나. 너는 그저 여물통에 담긴 먹이만 보고 배만 채우면 그만인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가 정 그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貪嗔癡)에 빠져 있겠다면, 내일은 나 혼자 가겠다!”

손오공은 스승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즉시 저팔계를 붙잡아 머리를 쥐어박으며 주먹질을 해댔다. “이 어리석은 놈아, 좋고 나쁨도 모르고 스승님께 화를 돋우다니! 스승님이 우리까지 미워하시게 만들었구나!”

사오정이 웃으며 거들었다. “잘한다, 잘해! 저놈은 말만 안 해도 미움을 안 살 텐데, 굳이 끼어들어서 일을 키우는구나.”

저팔계는 씩씩거리며 옆에 서 있었지만,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 구원외는 스승과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을 보고는 연신 웃는 얼굴로 달래며 말했다. “스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너그럽게 이해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북과 징을 준비하고 이웃과 친척들도 불러 모아, 스님들의 떠나시는 길을 성대하게 배웅하겠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진행될 때, 그 노파가 다시 나와서 말했다. “어르신, 저희 집에 오셨으니 사양하지 마세요. 벌써 며칠이나 지내셨지요?” 삼장이 대답했다. “이미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다. “그 보름 동안의 대접은 모두 저희 주인어른의 공덕이라 생각하세요. 저도 바느질해서 모은 푼돈이 좀 있으니, 저 또한 보름 동안 어르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동과 구량 형제가 나와서 말했다. “네 분 어르신,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십 년 넘게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셨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원하던 바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네 분께서 내려와 주시니 저희 집안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어려서 인과를 잘 모르지만, ‘영감이 닳으면 영감이 얻고, 할머니 닳으면 할머니 얻으며, 닳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들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려는 것도 각자 인과를 쌓으려는 것이니, 어찌 사양만 하십니까? 저희 형제 또한 약간의 글공부 비용이라도 아껴서, 어르신들을 보름 동안 모신 뒤에야 비로소 배웅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부인께서 베푸시는 너그러운 정성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찌 자제분들의 두터운 사랑까지 더 받으려 하겠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반드시 길을 떠나야 하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을 넘기게 되어, 제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노파와 두 아들은 삼장이 완강하게 거절하자 화가 나서 말했다. “좋은 마음으로 붙잡아 두려는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며 가겠다고 하니! 가고 싶으면 그

냥 가게 두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구는 거야?” 모자는 결국 말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팔계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마세요. 옛말에 ‘베풀어야 욕을 안 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저 모자의 소원도 들어주고 하면 어때요? 그냥 좀 바쁘면 좀 어떠냐고요.” 그러자 당승이 다시 한번 꾸짖었다. 그러자 저팔계는 멍청하게 제 입을 두 번이나 찰싹 때리며 말했다. “쫓쫓쫓! 말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또 입을 놀렸네!” 손오공과 사오정은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었다. 당승이 손오공을 향해 다시 나무라며 물었다. “너는 왜 웃느냐?”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으며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려 했다. 깜짝 놀란 손오공이 얼른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스승님,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고요! 제발 주문만은 외우지 마세요, 제발요!”

구원외는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번뇌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는 더는 억지로 붙잡아 두지 못했다. 그는 “스승님, 소란을 피우실 것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배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경당을 나왔다.

그는 곧장 서기에게 일러 이웃과 친척들에게 보낼 초대장을 백여 장 쓰게 하여, 내일 아침 당나라에서 오신 스승님을 배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한편으로는 요리사들에게 송별 잔치를 준비하라고 일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인에게 채색 깃발 스무 쌍을 마련하고 악공과 악사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다. 또한 남쪽 절에서 스님 한 무리와 동쪽 도관에서 도사 한 무리를 모셔 오게 하여, 내일 사시(巳時, 오전 9

시~11시)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을 엄히 명했다. 집안의 집사들은 모두 명령을 받들고 물러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날이 저물었다. 저녁 공양을 마친 이들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까마귀 몇 마리 마을을 지나며 날아가고, 누각 위의 종과 북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네. 변화한 거리와 시장통의 인적은 끊기고, 수많은 집들의 등불은 희미해졌구나. 달은 밝고 바람은 맑은데 꽃은 달빛에 그림자를 흔들고, 은하수는 쓸쓸히 별빛을 비추네. 빠꾸기 울음소리에 밤은 더욱 깊어가는데, 세상의 소리 사라지고 대지는 고요하구나.

그날 밤 삼사경(새벽 1시~5시 사이) 무렵부터 각 집안의 일을 맡은 어린 하인들이 일찍 일어나 물건을 사러 나섰다. 잔치를 준비하는 곳은 주방이 분주하기 그지없고, 오색 깃발을 다는 곳은 대청마루 앞이 소란스러웠다. 승려와 도사를 모셔 오는 이들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들었으며, 악사들을 부르는 이들은 정신없이 서둘렀다. 초대장을 전달하는 이들은 동서로 바빠 움직이고, 가마와 말을 준비하는 이들은 위아래로 소리치며 명령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밤새도록 떠들썩하게 움직여 사시(오전 9시~11시) 전후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

한편, 삼장법사 일행이 일찍 일어나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공양을 올렸다. 삼장법사가 짐을 챙기고 말의 장비를 갖추라고 분부하자, 저팔계는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입술을 빠죽거리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옷가지와 발우를 챙기고 높은 어깨 짐대를 찾아냈

다. 사오정은 말을 깨끗이 닦고 안장과 고삐를 채워 준비했다. 손오공은 아홉 고리가 달린 석장(九環杖)을 스승의 손에 쥐여주고, 통관문첩이 든 주머니를 가슴에 매단 채 다 함께 길을 나설 채비를 마쳤다.

구원외는 일행을 뒤편의 커다란 대청으로 정중히 모셨다. 그곳에는 재를 올릴 때 대접받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대한 잔칫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 풍경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랬다.

커튼은 높이 걸려 있고 병풍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정중앙에는 '수산복해(壽山福海,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그림)' 그림이 걸려 있고, 양쪽 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을 담은 네 폭의 그림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용무늬 술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까치꼬리 모양 향로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솟아났다. 화려하게 장식된 그릇들은 색색이 선명했고, 금칠을 한 탁자 위에는 온갖 달콤한 과자와 간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계단 앞에서는 악사들이 궁중 음악에 맞춰 북을 치고 춤을 추었으며, 대청 위에는 진수성찬이 비단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담백한 국과 밥은 참으로 정갈했고, 향긋한 술과 차는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로웠다. 비록 백성의 집이었으나 그 화려함은 왕후의 저택에 뒤처지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듯했다.

삼장법사가 구원외와 예법을 갖추어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하인이 달려와 "손님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초대한 이웃들은 물론 처남, 매형, 형수, 제부 등 친인척들이 모두 모였고, 함께 재를 올리던 승려들과 불교를 믿는 선우들도 일제히 삼장법사 일행에게 절을 올렸다. 인사가 끝난 뒤 모두 자리에 앉았다. 대청 아래에서는 거문고

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청 위에서는 노래와 술잔이 오가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 성대한 잔치를 지켜보던 저팔계가 사오정에게 속삭였다. "이보게 형제, 마음껏 배불리 먹어두게나. 이 집을 떠나면 다시는 이런 풍성한 음식을 맛보기 힘들 테니 말이야."

사오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둘째 형님도 참, 옛말에 '온갖 진미가 가득해도 한 번 배불리 먹으면 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길 위에서 배를 채울 수는 있어도, 길 위에서 배를 불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러자 저팔계가 대꾸했다. "자네는 참 눈치도 없군, 정말 눈치가 없어! 나는 이번 한 끼를 배 터지게 먹어두면, 사흘 동안은 급하게 배고플 일도 없을 걸세."

그 소리를 들은 손오공이 한마디 거들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배가 터져서 큰일 나겠다! 이제 곧 길을 떠나야 한단 말이다."

말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삼장법사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알재경*》을 암송했다. 이를 본 저팔계는 마음이 급해져 밥을 가져오라 재촉하더니, 한 그릇을 비우자마자 또 가져오라 하여 대여섯 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그러고는 만두와 고기 요리, 떡, 구운 과일 등을 가리지 않고 소매 가득 챙겨 넣고서야 스승을 따라 일어났다. 삼장법사는 구원외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건넨 뒤 일행과 함께 문을 나섰다.

문밖을 보니 오색 깃발과 보배로운 덮개가 드리워져 있고, 북 치는 악사와 연주자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두 무리의 승려와 도사들이 막 도착하고 있었다. 구원외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스님께서 발걸음이 급해져 미처 공양을 다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때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내주었다. 가마를 든 이는 가마를 들고, 말을 탄 이는 말을 타며, 걷는 이는 걸으며 모두 삼장법사 일행이 앞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북소리와 악기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깃발은 해를 가릴 만큼 높이 솟았다. 구경나온 사람들과 수레와 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원외가 삼장법사를 배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풍요롭고 화려한 광경은 보석으로 장식한 듯 눈부셨고, 마치 비단 휘장 속에 봄을 가두어 둔 것처럼 아름다웠다.

한 무리의 승려들은 불교 음악을 연주했고, 다른 무리의 도사들은 신비로운 도교 음악을 불었다. 일행을 성 밖까지 배웅한 이들은 십 리 떨어진 정자에 이르러서도 소박한 음식과 술을 차려 놓고 잔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구원외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스님, 경전을 구하러 다녀오시면 반드시 저희 집에 들러 며칠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야 저 구홍의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삼장법사는 그의 정성에 깊이 감동하여 거듭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제가 영산에 가서 부처님을 뵈게 되면, 가장 먼저 구원외님의 크나큰 덕을 찬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삼 리 길을 더 지나게 되었고, 삼장법사는 간곡히 작별을 고했다. 구원외는 큰 소리로 울며 돌아섰다.

시로 이르되, "승려에게 공양하려는 서원으로 묘각(妙覺, 깨달음)의 길로 돌아가건만, 인연이 없어 부처 여래(如來)는 끝내 뵈지 못하는구나."

--- *알재경: 불교의 공양 의식과 관련된 경전.

한편, 구원외가 일행을 십 리 길에 있는 장정(길가에 마련된 정자)까지 배웅하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삼장법사 일행은 40~50리쯤을 더 걸어갔을 때라 하늘이 점차 어둑어둑해졌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날이 저무는구나. 어디서 하룻밤 묵어야 하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짐을 짊어진 채 입을 빼죽거리며 투덜거렸다. “차려진 밥상도 마다하고, 시원한 기와집도 놔두고, 왜 이 고생을 하며 길을 가야 합니까? 꼭 상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날도 저물었는데, 만약 비라도 내리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삼장법사가 꾸짖었다. “이 고약한 녀석, 또 불평이냐! 예부터 이르기를 ‘장안이 아무리 좋다 한들, 오래 머물 곳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가 인연이 닿아 부처님을 뵈고 진짜 경전을 얻게 되면, 그때 대당으로 돌아가 주군께 보고하마. 그러면 어전 요리사가 차려주는 밥을 몇 년이고 실컷 먹게 해줄 테니, 배가 터져 죽을 만큼 배부른 귀신이 되게 해주마!”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하하 웃으며 감히 더 대꾸하지 못했다.

손오공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큰길가에 방 몇 칸이 보였다. 손오공이 급히 스승을 불러 말했다. "스승님, 저기서 쉬어가시지요. 저기서 쉬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말에서 내려 다가가 보니, 그곳은 무너져 내린 패방이었다. 패방 위에는 색이 바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화광행원'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삼장법사가 말에서 내리며 말했다. "화광보살은 화염오광불의 제자인데, 독화귀왕을 토벌하였다가 직위가 낮아져 오현영관이 되었다지. 그러니 이 근처에는 분명 그를 모시는 사당이 있을 것이다."

일행이 함께 안으로 들어갔으나, 복도와 방들은 모두 무너져 있었고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만 나가려는데, 뜻밖에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머리 위를 뒤덮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던 일행은 그 허물어진 건물 아래에서 그나마 비바람을 피할 만한 곳을 골라 몸을 숨겼다.

주변이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하여, 혹여 요괴가 눈치챌까 두려워 감히 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누구는 앉아 있고 누구는 서 있는 채로, 밤새 잠 한 숨 자지 못하고 괴롭게 밤을 지새웠다. 아! 참으로 시구에 이르기를 이러하다.

"태평(泰)이 극에 이르면 다시 막힘(否)이 생겨나고, 즐거운 곳에서 다시 슬픔을 만나는구나."

결국 날이 밝은 뒤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7회 — 금빛 보답으로 외적의 호위를 받다 마귀의 침입을 당하고, 성스러운 영 혼이 나타나 근원을 구하다

金酬外護遭魔蝥 聖顯幽魂救本原

한편, 당승 일행이 화광행원의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밤새 내리는 비를 견디며 머물고 있는 상황은 차치하기로 하자.

이야기는 이러하다. 동태부 지령현 성안에 한 무리의 흉악한 도둑들이 있었다. 이들은 매춘과 술, 도박에 빠져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자, 십여 명의 무리를 모아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이 성안에서 누가 첫째가는 부자인지, 누가 둘째가는 부자인지를 따져 금은보화를 약탈해 생활비로 쓰려 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따로 조사하거나 계산할 필요도 없네. 오늘 저 당나라 스님을 배웅한 구홍 원외네 집이 아주 부유하다더군. 이 비 오는 밤을 틈타 움직이면 거리의 사람들도 방비하지 않을 것이고, 관아

의 병사들도 순찰을 돌지 않을 테니, 지금 바로 가서 재물을 약탈하세. 그 돈으로 다시 술과 여자, 도박을 즐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도둑들은 이 말에 기뻐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그들은 단도와 가시 몽둥이, 곤봉, 새끼줄, 횃불 등을 챙겨 빗속을 뚫고 구홍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구홍의 집 대문을 부수고는 고함을 지르며 안으로 들어닥쳤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겁에 질려 숨기 바빴다. 부인은 침대 밑으로 숨었고, 노인인 구홍은 문 뒤로 몸을 피했다. 아들인 구량과 구동,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벌벌 떨며 사방으로 흩어져 목숨을 구걸했다.

도둑들은 칼을 휘두르고 횃불을 밝히며 집안의 상자와 께짜를 마구 열어젖혔다. 그리고 금은보화와 장신구, 옷가지, 그릇과 살림살이들을 마음껏 쓸어 담았다. 구홍은 차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문 밖으로 뛰어나와 강도들에게 애원했다. “대왕님들, 쓰실 만큼 가져가시되, 이 늙은이가 죽을 때 입을 옷 몇 벌만이라도 남겨 주십시오.”

하지만 강도들이 그 말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그들은 구홍에게 달려들어 가랑이 사이를 발로 차서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가련하도다, 세 영혼은 아득히 저승으로 떠나가고, 일곱 닢은 유유히 세상 사람과 작별하였구나!

도둑들은 재물을 챙긴 뒤 구홍의 집을 나왔다. 그들은 성벽 아래를 달고 올라가 성벽을 하나하나 타고 넘더니, 빗속을 뚫고 밤새 서쪽으로 달아났다. 구홍의 집 하인들은 도둑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고개를 내밀었다. 그런데 살펴보니 노원외는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하인들이 통곡하며 외쳤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주인님께서 맞아 죽으셨다!” 모두가 시신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통곡하였다.

사경(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무렵, 구홍의 아내는 당승 일행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남편이 이들에게 공양을 올린 데다 화려하게 배웅까지 한 것이 도리어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질투와 해치려는 마음이 생겨 당승 일행 네 사람을 모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구량을 부축하며 말했다.

“애야, 울지 마라. 네 아버지는 오늘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내일도 올렸을 양반인데, 오늘 만승(萬僧) 공양을 마무리한답시고 저 목숨을 앗아가는 중놈들을 대접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구량 형제가 물었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중들입니까?”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도둑놈들이 워낙 흉악하고 용맹하게 방안으로 들어닥쳤단다. 내가 침대 밑에 숨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등불 쪽을 똑똑히 지켜보았지. 그게 누구였겠느냐? 불을 밝힌 건 당승이었고, 칼을 들고 있던 건 저팔계였으며, 금은보화를 훔기던 건 사오정이었고, 네 아버지를 때려죽인 건 손오공이었던단다.”

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사실이라 믿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똑똑히 보셨다면 틀림없겠군요. 저 네 사람이 우리 집에 보름이나 머물면서 집 구조며 담장, 창문, 골목길까지 모두 훤히 파악했을 겁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비 오는 이 밤을 틈타 다시 찾아온 것이지요. 재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해치다니, 이 얼마나 독한 짓입니까!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이름을 지목해 고소하겠습니다.”

구동이 물었다.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구량이 대답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쓰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당승이 불을 밝히고, 저팔계가 살인을 부추겼으며, 사오정이 금은 보화를 훔쳐 달아났고, 손오공이 우리 아버지를 때려죽였습니다.”

온 가족이 소란을 피우는 사이 어느덧 날이 밝았다. 한쪽에서는 친척들을 불러 관을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량 형제가 관아로 달려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동태부 자사의 정당에는 다음과 같은 덕망 높은 관리가 앉아 있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며 본래 성품이 어질고 선량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눈 덮인 책상 앞에서 학문에 정진하였고, 일찍이 금란전에서 대책을 논하였다. 늘 충의로운 마음을 품고 자애로운 생각을 절실히 하니, 그 이름은 청사에 떨쳐 천 년을 전하매 공수(龔遂)와 황패(黃霸)가 다시 나타난 듯하고, 그 명성은 관청에 진동하여 만고에 전하매 탁무(卓茂)와 노공(魯恭)이 다시 태어난 듯하였다.”

자사가 정당에 앉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고소장을 접수 하라는 방을 내걸게 했다. 이때 구량 형제가 그 방을 들고 들어와 엎드려 크게 외쳤다.

“나으리, 저희는 강도들이 재물을 훔치고 사람을 죽인 중죄를 고소 하러 왔습니다!”

자사가 고소장을 받아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더니 물었다.

“어제 듣기로는 너희 집에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잔치를 크게 열었다더구나. 고승 네 분, 곧 동쪽 나라 당나라에서 온 나한들을 대접 하며 거리마다 악기를 울리며 화려하게 배웅까지 했다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구량 일행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나으리, 저희 아버지 구홍은 24년 동안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왔습니다. 마침 이 네 스님이 멀리서 오신 덕에 꼭 만 명의 스님을 채우게 되어 만승 공양을 마무리하고 보름 동안 머물게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과 집 구조를 다 파악해 두었다가, 배웅한 당일 밤 비바람을 틈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방 안으로 들이닥쳐 금은보화와 옷가지, 장신구를 모두 빼앗고 저희 아버지까지 때려죽였습니다. 부디 나으리께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자사가 이 말을 듣고는 즉시 기마·보병 정예와 민병을 불러 모았다. 총 150명에 달하는 이들이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서문을 통해 출발하여, 당승 일행 네 사람을 곧장 쫓아갔다.

한편, 당승 일행은 화광행원의 허물어져 가는 집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고 나서야 겨우 문을 나서 서천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한편, 그날 밤 구홍의 집을 털었던 강도 무리는 성 밖으로 도망쳐 서쪽 큰길을 따라 이동했다. 그들은 화광행원을 지나 서쪽으로 이십 리쯤 간 산골짜기에 숨어 앉아 금은보화를 나누고 있었다.

보물을 나누는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침 길을 따라 걸어오는 당승 일행이 보였다. 도둑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한 강도가 당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어제 배웅하던 스님들이 오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다른 도둑이 웃으며 대꾸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우리도 이런 천하의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저 스님들이 마침 길을 가다 구홍의 집에 오래 머물렀으니 몸에 지닌 물건이 얼마나 많겠느냐? 차라리 길을 막아 세워 여비라도 뺏고, 저 흰 말까지 빼앗아 나누면 얼마나 좋겠느냐!"

강도들은 즉시 무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큰길로 달려 나가 일렬로 늘어섰다. 그리고는 크게 외쳤다. "스님들, 멈춰라! 어서 길샅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약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라도 내뱉는다면, 칼로 단칼에 베어버릴 것이니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당승이 말 위에서 혼비백산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자, 사오정과 저팔계는 겁에 질려 손오공에게 말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밤새비를 맞으며 고생하더니, 이제는 길목에서 강도들까지 만나다니, 정말 '화가 겹쳐서 온다'는 말이 딱 맞군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들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손오공이 가서 저놈들에게 한 말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종구나, 대성!"

손오공은 호랑이 가죽 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비단 도포를 털어 입은 뒤,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그는 손을 맞잡아 가슴에 대고 예의를 갖추며 물었다.

"여기는 대체 어떤 분들이 계신 곳입니까?"

강도가 호통을 쳤다.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감히 어디라고 끼어들어 묻느냐?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아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어서 길썰을 지나갈 통행료를 내놓아야 살아서 지나갈 것이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는 얼굴 가득 비굴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아이고, 알고 보니 길을 가로막는 강도님들이셨군요."

강도가 사나운 기세로 소리쳤다.

"저놈을 죽여라!"

손오공은 짐짓 겁에 질린 척하며 외쳤다.

"대왕님, 대왕님! 저는 시골에서 온 보잘것없는 스님입니다. 말 주변이 없어 결례를 범했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길썰을 지나갈 돈이 필요하시다면 저 세 사람은 건드리지 마시고 저에게만 물으십시오. 제가 바로 회계 담당입니다. 보시받은 돈이나 경전 값, 그 어디서 얻은 돈이든 모두 제 보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관리하고

있답니다. 저기 말을 타고 가는 분은 제 스승님이신데, 오로지 경전만 읽으실 뿐 세상만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재물이나 여색은 이미 다 잊으셨기에 가진 것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저기 얼굴이 검은 이는 길에서 데려온 젊은이인데 말 돌보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저 입이 튀어나온 이는 제가 고용한 일꾼인데 짐 나르는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저 세 사람은 그냥 보내주시면, 제 여비와 승복까지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강도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이 스님, 참으로 정직한 놈이로구나. 좋다, 네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저 세 사람에게 짐을 다 버리게 하고 저놈만 보내주어라."

손오공이 뒤를 돌아 눈짓을 보내자, 사오정이 열린 짐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스승의 말 고삐를 잡은 채 저팔계와 함께 서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오공은 고개를 숙여 보따리를 풀어헤치더니, 땅바닥의 흙을 한 움큼 집어 위로 흩뿌리며 주문을 외웠다. 그것은 몸을 굳게 만드는 정신법(定身法)이었다. 손오공이 "멈춰라!" 하고 크게 호통을 치자, 서른명 남짓한 도둑 놈들이 일제히 어금니를 짹 깨물고 눈을 부릅뜬 채, 손을 내민 상태 그대로 꼳꼳이 굳어버렸다. 아무 말도 못 하고 몸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손오공은 길목 밖으로 뛰어 나가 외쳤다. "스승님, 돌아오십시오. 어서 돌아오십시오!"

저팔계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형이 우리를 다 붙어버렸나 봐. 스승님 몸엔 재물도 없고 보따리 안엔 금은보화도 없으니, 분명 스승님더러 말을 타고 가라고 재촉하려는 걸 거야. 우리 옷까지 다 벗겨 가려는 게 분명해!"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둘째 형님, 괜한 소리 마세요. 형님은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아까 그 독하고 잔인한 요괴도 굴복시키셨는데, 고작 이런 좀도둑들이 무섭겠어요? 형님이 부르시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 어서 돌아가서 확인해 봐요."

당승은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말머리를 돌려 길가로 돌아오며 물었다. "오공아, 무슨 일이기에 돌아오라고 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이 도둑놈들이 왜 이러는지 한번 보세요."

저팔계가 다가가 도둑을 밀치며 외쳤다. "이 강도 놈아, 너 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도둑은 영문도 모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팔계가 말했다. "아이고, 바보가 됐나 보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몸이 정신법을 써서 꼼짝 못 하게 묶어둔 것이라네."

저팔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몸만 굳었지 입은 안 굳었을 텐데, 어째서 한마디도 못 하는 거야?"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일단 말에서 내려 앉으십시오. 옛말에 '잘못 잡을 수는 있어도 잘못 놓아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저 도둑놈들을 다 뒤집어 엎어 묶어버리고, 자백을 받아내어 이 놈들이 애송이 도둑인지 아니면 진짜 악독한 강도인지 확인해 보거라."

사오정이 말했다. "밧줄이 없는데요."

그러자 손오공이 즉시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더니, 서른 줄의 밧줄로 변하게 했다. 일행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도둑들을 뒤집어 엎은 뒤, 팔다리를 푹푹 묶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손오공이 다시 주문을 외워 풀자, 도둑 무리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당승을 상석에 모시게 한 뒤, 세 사람이 각자 병기를 치켜 들고 호통을 쳤다.

"이 도둑놈들아! 너희는 모두 몇 명이나 되느냐? 도둑질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고,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훔쳤느냐?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적도 있느냐?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냐?"

도둑들이 입을 열어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사실대로 다 불러라!"

도둑들이 대답했다.

"나으리, 저희는 도둑질을 일삼던 놈들이 아닙니다. 다들 멀쩡한 집안의 자식들이옵니다. 다만 재주가 없어 술 마시고 도박하며 기생집을 드나들며 놀아대느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산과 재산을 죄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하는 일도 없고 쓸 돈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동태부 성안에 구홍 원외라는 부유한 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제 뜻이 맞는 놈들과 모여 어젯밤 비 내리는 어둠을 틈타 강도질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금은보화와 옷가지들을 좀 훔쳐서, 지금 이 길 북쪽 산골짜기에서 나누어 가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으리들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는 구홍 원외를 배웅하던 사람도 있어 분명 곁에 귀한 물건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짐도 무거워 보이는데 백룡마가 빨리 달리는 것을 보니 욕심이 생겨 앞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으리들께서 어찌 이리 대단한 법력을 가지셨는지 저희를 꿈쩍 못 하게 묶어버리셨으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훔친 재물은 다 가져가시고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당승은 그 재물이 구홍의 집에서 약탈당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다. "손오공, 구홍 원외는 매우 선량한 분인데 어찌 이런 재앙을 당했단 말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를 배웅하겠다고 화려한 휘장과 깃발을 내걸고 북을 치며 악기를 연주하니, 그 소란스러운 모습에 눈이 먼 강도 놈들이 그 집을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를 만나는 바람에 저 많은 금은보화와 의복들을 빼앗기고 말았군요."

당승이 말했다. “우리가 보름 동안이나 그분께 신세를 졌으니, 그 은혜가 깊어 보답할 길이 없구나. 차라리 이 재물들을 다시 그 집으로 안전하게 가져다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손오공이 그 말에 따랐다. 손오공은 즉시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산 골짜기로 내려가 약탈당한 물건들을 모두 찾아 모은 뒤 말에 실었다. 저팔계는 금은보화를 한 짐 짊어지고, 사오정은 자신의 짐을 짊어졌다. 손오공은 이 강도 놈들을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패 죽이고 싶었으나, 혹여 당승이 사람 목숨을 해쳤다고 나무랄까 걱정되어 몸을 한 번 흔들며 털어내고는 털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강도 놈들은 긴장이 풀려 허둥지둥 일어나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쳐 버렸다.

당승은 발걸음을 돌려 재물을 원외의 집으로 가져다주려 했다. 하지만 이번 행보는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시로 이르되,

은혜를 은혜로 갚는 이 세상에 드물구나. 자비로운 마음이 도리어 원수가 되었으니. 물에 뛰어들어 사람 구하려다 결국 화를 입으니,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행해야 근심이 없으리라.

당승 일행이 금은보화와 옷가지들을 챙겨 길을 가려는데, 갑자기 창과 칼이 떼를 지어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당승이 크게 놀라 물었다. “제자들아, 저 무기를 든 무리가 몰려오는데, 저것이 좋은 징조냐 나쁜 징조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재앙이 왔어요! 저건 우리가 놓쳐준 강도들입니다. 저놈들이 무기를 챙기고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길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저건 도적 떼의 기세가 아닙니다. 형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스승님의 재앙이 또 찾아왔구나. 분명 관병들이 도둑을 잡으러 온 것이리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졸들이 눈앞까지 들이닥쳐 원형으로 진을 치고는 스승과 제자들을 에워싸며 외쳤다. “이 스님들아! 남의 물건을 약탈해 놓고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느냐!” 병졸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먼저 당승을 말에서 끌어내려 밧줄로 꼬박 묶었다. 이어 손오공 일행 세 사람도 한꺼번에 묶어버렸다. 그들은 막대기를 꿰어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메고, 말을 몰고 짐을 빼앗은 뒤 곧장 관아로 향했다.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당승은 겁에 질려 눈물만 흘리며 말을 못 하고, 저팔계는 투덜대며 마음속으로 원망만 가득하네. 사오정은 짐 꾸러미를 짊어진 채 망설이고, 손오공은 싱글벙글 웃으며 대책을 세우려 하네.

관병들이 북적이며 메고 나른 덕분에 순식간에 성안에 도착했다. 그들은 곧장 황당(黃堂, 자사의 청사)으로 가서 보고했다. “나으리, 민포(民快)들이 강도들을 잡아 왔습니다!” 자사는 당상에 단정히 앉아 민포들에게 수고했다며 상을 내리고, 약탈한 물건들을 검사한 뒤 구홍의 가족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당승 일행을 뜰 앞으로 끌고 가 물었다. “이 스님들아, 동토에서 멀리서 와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간다더니, 알고 보니 길목을 살펴 남의 집을 털기 위해 수작을 부린 도둑놈들이었구나!” 당승이 말했다. “나으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빈승은 결코 도둑이 아니며, 감히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몸에 지닌 통관문첩(여행 허가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홍 원외

댁에서 저희를 보름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신 정이 깊었는데, 저희가
 길을 가던 중 강도를 만나 그들이 구홍 댁에서 약탈한 재물을 도로 빼
 앗았기에, 이를 돌려주어 은혜를 갚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
 지 않게 민포들에게 잡혀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으니, 부디 나으리
 께서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자사가 말했다. “이놈이 관병에게 잡혔으
 면서도 말재주로 은혜를 갚는다고 둘러대는구나. 강도를 만났다면 그
 놈들도 함께 잡아와서 관아에 신고하고 은혜를 갚았어야지, 어찌하여
 너희 네 사람뿐이나? 보아라, 구량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름까지 지
 목해 너희를 고발했는데, 아직도 발뺌할 셈이나?” 당승은 그 말을 듣고
 마치 거대한 바다가 배를 삼키듯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
 다. “오공아, 네가 어서 올라가서 따져보지 못하겠느냐?” 손오공이 말
 했다. “증거물이 있으니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자사가 외쳤다. “그
 려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찌 발뺌하느냐? 여봐라, 뇌고(腦箍, 머
 리를 조이는 형구)를 가져와라! 저 까까머리 도둑놈의 머리에 그것을
 씌워 조인 다음에 매질을 해라!” 손오공은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했
 다. ‘스승님께 닥친 재앙이라 해도, 스승님을 너무 고생시켜서는 안 된
 다.’ 그는 포졸들이 밧줄을 준비하고 뇌고를 엮는 것을 보고는 입을 열
 었다. “나으리, 저 스님은 조이지 마십시오. 어젯밤 구홍 댁을 털 때 등
 불을 켜 것도 저요, 칼을 든 것도 저요, 재물을 뺏은 것도 저요, 사람을
 죽인 것도 저입니다. 제가 우두머리이니 때리려거든 저만 때리십시오.
 저 스님들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를 놓아주지만 마십시오.” 자사는
 그 말을 듣고 먼저 이 자를 조이라고 명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손오
 공에게 뇌고를 씌우고 한 번 세계 조이자, 툭 하고 밧줄이 끊어졌다. 다
 시 엮어 조여도 또 툭 끊어졌다. 대여섯 번을 연달아 조였으나, 그의 머
 리 가죽은 눈곱만큼도 찢그러지지 않았다.

포승줄을 다시 묶으려는데,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나으리, 수도에서 진소보(陳少保) 어르신께서 당도하셨으니, 성 밖으로 나가 영접하셔야겠습니다.” 자사는 즉시 형방 관리에게 명령했다. “도둑놈들을 감옥에 가두고 잘 감시하라. 내가 상관을 맞이하고 돌아온 뒤에 다시 심문하겠다.” 형방 관리는 곧바로 당승 일행 네 사람을 감옥 안으로 밀어 넣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각자 짐을 짊어지고 따라 들어갔다. 당승이 물었다. “제자들아,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일단 들어가시지요. 여기는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니 오히려 놀기 좋을 겁니다.” 가엾게도 네 사람은 끌려 들어가듯 감옥에 갇혔고, 한 사람씩 고문용 형틀에 눕혀진 채 배와 머리, 가슴을 죄는 형구로 꼼꼼 묶여 꼼짝달짝 못 하게 되었다. 간수들은 다시 와서 무자비하게 매질을 해댔다. 당승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울먹이며 외쳤다. “오공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를 어쩌면 종단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저들이 때리는 건 돈을 달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편안할 때는 몸을 의탁하고, 고생할 때는 돈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돈을 좀 주면 끝날 일입니다.” 당승이 물었다. “내게 돈이 어디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돈이 없다면 옷이라도 주어야지요. 저 가사라도 저들에게 넘겨버립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승은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결국 매질을 견디다 못한 그는 체념한 듯 말했다. “오공아, 네 뜻대로 하거라.”

손오공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관리 양반들! 때릴 필요 없소. 우리가 메고 들어온 보따리 두 개 중에 천금의 가치가 있는 비단 가사가 들어있으니, 그걸 풀어서 가져가시오.”

옥졸들이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움직여 보따리 두 개를 풀어 보았다. 그 안에는 몇 벌의 평범한 옷가지와 인첩 주머니가 있었으나 모두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기름종이로 여러 겹 싸인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분명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기름종이를 털어 펼쳐 보니 다음과 같았다.

“교묘하게 명주를 박아 넣고, 희귀한 불보(佛寶)를 촌촌히 박았네. 용이 꿈틀대며 수놓아져 있고, 봉황이 날아오르는 비단 테가 둘렀네.”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구경하려 할 때, 마침 그곳을 관리하던 옥관(獄官)이 달려와 호통을 쳤다. “이놈들,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옥졸들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으리, 방금 죄인을 심문하며 스님 네 명을 압송해 왔는데, 이들이 아주 악독한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대 때리자, 이 보따리 두 개를 내놓으며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어보니 이런 물건이 들어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찢어서 나눠 가지자니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한 사람에게 다 주자니 다들 손해를 보는 판이라, 마침 나으리께서 오셨으니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옥관이 살펴보니 정말로 값진 가사 한 벌이 들어 있었다. 그는 다른 옷가지와 인첩 주머니까지 모두 낱알이 검사해 보았다. 이어 주머니 속에 든 관문을 꺼내 보니 각 나라의 보인과 인장이 찍혀 있었다. 옥관이 말했다. “내가 진작 와서 봤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가 큰 사고를 칠 뻔하였다. 이 스님들은 강도가 아니니, 절대로 옷가지에 손

을 대지 마라. 내일 태야(太爺, 관리를 높여 부르는 말)께서 다시 심문해 보시면 진상을 알게 될 것이다.”

옥졸들은 그 말을 듣고 보따리를 다시 돌려주어 예전처럼 잘 싸맨 뒤, 옥관에게 넘겨 보관하게 했다.

날이 점점 저물더니 누각 위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순찰하는 병사들이 밤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네 시 삼각(사경 삼점)에 이르렀을 때, 손오공은 스승과 제자들이 신음 소리 하나 없이 모두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스승님께서 하룻밤 옥살이의 재앙을 겪으셔야 할 상황이다. 내가 입을 열어 변명하지도 않고 법력을 쓰지도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 이제 곧 새벽 네 시가 다 지나가니 재앙이 극에 달하겠구나. 내가 가서 미리 손을 좀 써두어야 날이 밝았을 때 무사히 옥에서 나갈 수 있겠어.'

손오공은 재주를 부려 몸을 아주 작게 줄인 뒤 침상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몸을 흔들며 메뚜기 한 마리로 변신하여 처마 밑 기와 틈 사이로 날아 나갔다. 별빛과 달빛이 밝게 빛나는 아주 맑고 고요한 밤이었다. 손오공은 방향을 잡아 곧장 구홍의 집으로 날아갔는데, 길 서쪽 아래 어느 집에서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집 문 앞까지 다가가 살펴보니 다름 아닌 두부를 만드는 집이었다. 한 노인이 불을 때고 있었고, 부인은 콩물을 짜내고 있었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소리 내어 말했다.

"여보, 구흥 나리는 자식도 있고 재산도 많지만, 딱 하나 수명이 없구려. 내가 그와 어릴 적에 함께 공부하던 동창인데, 내가 그보다 다섯 살이나 많도오. 그 양반 아버지는 구명이란 분이었는데, 당시에는 천마지기 땅을 가진 부자도 아니었고 그저 조금씩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정도라 큰 부자는 아니었지. 구흥이 스무 살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을 맡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고오. 장가든 아내가 장왕의 딸인데, 어릴 적 이름은 천침이라 불렀지만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복덩이였지. 그 여자가 시집온 뒤로 농사는 풍년이 들고, 빌려준 돈도 잘 회수되었으며, 물건을 사면 이익이 남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었으니, 지금은 재산이 십만 냥이나 된도오. 마흔 살 무렵부터는 마음을 돌려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고 만 명의 승려에게 공양을 올릴 정도로 정성을 다했는데, 뜻밖에도 어젯밤 강도에게 발길질을 당해 죽고 말았다니! 가련하기도 하지! 올해 겨우 예순네 살이라 이제 막 인생을 즐길 나이였는데, 선하게 살았음에도 보답을 받기는커녕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할 노릇이로다!"

손오공이 그 말을 하나하나 듣고 보니 어느덧 새벽 다섯 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그는 곧바로 구흥의 집으로 날아 들어갔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이미 관이 놓여 있었고, 관 머리맡에는 등불이 켜진 채 향과 초, 꽃과 과일이 차려져 있었다. 구흥의 아내는 그 곁에서 통곡하고 있었고, 두 아들도 와서 절을 하며 곡을 하고 있었으며, 두 며느리는 밥 두 그릇을 올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관 머리맡에 딱 붙어 서서 킁킁하며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 소리에 두 며느리는 혼비백산하여 손발을 휘저으며 밖으로 도망쳤고, 구량 형제는 땅에 엎드린 채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 흑흑흑……” 하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그런데 구홍의 아내가 대답하게도 관을 한 번 덤석 붙잡으며 말했다. “여보, 살아 돌아오신 건가요?” 손오공이 구홍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말했다. “나는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다.” 두 아들은 겁에 질려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흑흑흑……” 아내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여보, 살아 돌아온 게 아니면 어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염라대왕께서 귀신 사자를 시켜 너희 집으로 압송해 보내 말하게 하신 것이다. 저 장씨 천침아(穿針兒)가 함부로 거짓을 늘어놓아 죄 없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구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어릴 적 아명(小名)을 부르는 것을 듣고는, 너무 놀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이고, 여보! 이 나이에 어찌 제 어릴 적 이름을 부르십니까! 제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단 말입니까? 대체 누구를 해쳤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당승이 불을 지피고, 팔계가 사람을 죽이라 외치며, 사오정이 금은보화를 훔쳐 달아나고, 행자가 네 아버지를 때려죽였다’라는 그 말이 대체 무엇이나! 네가 거짓을 말한 탓에 저 선량한 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저 당나라에서 온 네 분 스님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재물을 빼앗아, 그것을 도로 가져와 내게 감사를 표하려 했으니 그 얼마나 가룩한 뜻이나! 그런데 네가 가짜로 고소장을 꾸며내어 아들들을 관아에 고소하게 만들었으니, 관아에서는 제대로 심문도 하지 않고 저들을 가두어 버리지 않았느냐. 이 일로 옥신(獄神), 토지신, 성황신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염라대왕께 보고를 올렸다. 이에 염

라대왕께서 귀신 사자를 보내 나를 이곳으로 압송하여, 너희가 어서 그들을 풀어주도록 명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이 집을 뒤집어 놓을 것이니, 집안의 노소는 물론이고 닭과 개 한 마리조차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구량 형제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부디 집안 식구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즉시 관아로 가서 사실을 바로잡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좋으니, 그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가 무사하기만을 빌 뿐입니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종이를 태워라, 나는 가봐야겠다.” 그러자 구홍의 가족들은 모두 나와 저승으로 보내는 종이를 태우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단숨에 날아올라 자사의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고개를 숙여 살펴보니 방 안에는 이미 등불이 켜져 있었고, 자사가 이미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다. 손오공이 중당으로 날아 들어가 보니, 정중앙 뒷벽에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한 관리가 점박이 말을 타고 있었고, 몇몇 종복이 푸른 우산을 받쳐 들고 가마를 메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손오공은 그림 한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았다.

그때 갑자기 자사가 방에서 나와 허리를 굽히고 세수를 하며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손오공이 갑자기 크게 헛기침을 하자, 깜짝 놀란 자사는 허겁지겁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세수를 마친 자사는 겹옷을 챙겨 입고 나오더니, 그림을 향해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기도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 강공(姜公) 건일(乾一)의 신위 앞에 고하나다. 효성스러운 조카 강곤삼은 조상의 덕을 입어 외람되이 갑과에 급제하여, 지금 동태부 자사라는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향을 올리며 끊임없이 모셔왔거늘, 어찌하여 오늘 이토록 소리를 내십니까? 부디 요사스러운 빌미가 되어 집안 식구들을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아하, 이건 저놈 큰아버지의 신주(영신)로구나.’

그러고는 경전 읽는 흥내를 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곤삼 조카야! 내가 비록 조상의 덕으로 관직에 올랐고 평소 청렴하다 하나, 어찌하여 어제는 무지하게도 경전을 구하러 가는 거룩한 스님네 분을 도둑으로 몰아,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옥에 가두었느냐? 이 일로 옥신과 토지신, 성황신이 편치 못하여 염라대왕께 보고를 올렸으니, 염라대왕께서 귀신 사자를 보내 나를 너에게 압송하여 사정을 살펴어서 그들을 풀어주라 명하셨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를 저승으로 끌고가 죄를 물을 것이다!”

자사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겁에 질린 채 말했다.

“큰아버님,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즉시 공판을 열어 그들을 석방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종이돈이라도 태워라. 내가 염라대왕께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

자사는 다시 향을 피우고 종이돈을 태우며 간절히 절을 올렸다.

손오공이 다시 날아올라 살펴보니 동쪽 하늘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 오고 있었다. 지령현에 도착해 보니 현의 관리들이 모두 관아 마당에 모여 있었다. 손오공은 생각했다. '메뚜기 모습으로 말하다가 들켜서 털미를 잡히면 곤란하겠군.' 그는 공중에서 커다란 신통력을 부려 거대한 몸집을 만들더니, 허공에서 발 하나를 쏙 내려놓아 현청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러고는 입을 열어 호통을 쳤다.

"모든 관리들은 들어라! 나는 옥제께서 보내신 떠돌이 신령이다. 너희가 이 관아에서 불도를 닦는 부처의 제자를 억울하게 매질하여 삼계의 모든 신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어서 그를 놓아주어라!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다시 발을 내려 너희 현의 관리들을 먼저 걷어차 죽이고, 이 고을 주민들을 차례로 짓밟아 성안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현의 관리와 아전들은 겁에 질려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다.

"성스러운 신령님이시여, 부디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당장 자사 어른께 보고하여 즉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발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희가 놀라 죽겠습니다!"

그제야 손오공은 거대한 몸을 거두고 다시 메뚜기로 변신했다. 그는 감옥 창살 틈 사이로 날아 들어가 예전처럼 침상 한가운데로 파고들어 잠을 청했다.

한편, 자사가 집무실로 올라가 고소장을 올리는 패를 들어 올리자마자, 구랑 형제가 패를 붙잡고 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울며 소리쳤다. 자사가 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하자, 두 형제는 고소장을 올렸다. 고소장을 살펴본 자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네놈들이 어제 도둑을 잡았다고 고소장을 내밀어 놈들을 잡아 가두게 하더니, 이제는 도둑맞은 물건까지 가져가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또 고소장을 내밀며 탄소리를 하는 것이냐!"

두 형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다.

"나으리, 어젯밤 저희 아버님께서 혼령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당나라에서 오신 삼장법사님은 원래 도둑놈들을 붙잡아 재물을 되찾아 놓으셨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그 재물을 우리 집에 돌려주어 은혜를 갚으려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분을 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두고 고생을 시키느냐? 옥에 계신 토지신과 성황신께서 이 일을 가만히 보지 못하고 염라대왕께 보고하였으니, 염라대왕께서 귀신을 보내 나를 데려오며 너에게 다시 고소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어서 삼장법사를 풀어 주어 재앙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해명서를 올리러 왔으니, 부디 나으리께서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자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는 방금 죽은 시신이니 갓 죽은 귀신이 나타나 보복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내 백부는 돌아가신 지 벌써 5, 6년이나 되었는데, 어찌하여 오늘 밤 갑자기 나타나 나에게 심문을 멈추고 풀어주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틀림없구나.'

한창 생각을 이어가던 그때, 지령현의 현령과 관리들이 다급히 법정에 뛰어 올라오며 정신없이 외쳐댔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방금 옥제께서 방랑하는 유신을 저 아래 세상으로 보내시며, 어서 옥에 갇힌 선량한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제 잡아 온 스님들은 강도가 아니라, 경전을 구하러 가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저희 관리들이 매 맞아 죽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성안의 백성들까지 모두 짓밟혀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깜짝 놀라더니, 즉시 형방리에게 명령하여 서둘러 석방 명령서를 쓰게 했다. 곧이어 감옥 문이 열리고 일행이 밖으로 나왔다. 저팔계가 근심 어린 얼굴로 투덜거렸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매를 맞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한 대 맞을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 이 몸이 이미 다 알아서 처리해 두었거든. 법정에 올라가더라도 절대 무릎을 꿇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내려와 우리를 상식에 얹히라고 청할 테니 말이다. 그럴

때 내가 짐이랑 말은 제대로 챙겨왔느냐고 물어볼 거야. 만약 조금이라도 모자란 게 있다면, 그때 내가 그놈을 혼내주는 걸 지켜보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관아에 도착했다. 자사와 지현, 그리고 부와 현의 크고 작은 관리들이 모습을 보자마자 모두 내려와 맞이하며 말했다. "성스러운 스님께서 어제 오셨을 때는 상부의 업무가 급박하기도 했고, 또 약탈당한 물건들을 확인하느라 미처 자세한 사정을 묻지 못했습니다." 당승은 합장하며 몸을 굽혀 인사를 올린 뒤, 그간의 사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다. 관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인정하며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옥사 안에서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다시 물었다. 손오공은 가까이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노력하며 매섭게 소리쳤다. "내 백룡마는 관아 사람들이 가져갔고, 내 짐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져갔으니, 어서 빨리 내놓아라! 오늘은 내가 너희를 심문할 차례다.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으니, 너희 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느냐?" 지방 관리들은 손오공이 악행을 저지르는 줄 알고 겁에 질려, 즉시 말을 관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짐 관리에게 짐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하나 명확히 돌려주었다. 세 사람이 하나같이 험악하게 구는데도, 관리들은 그저 구홍의 집안 문제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당승이 이를 말리며 말했다. "제자야,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구홍의 집으로 가서 안부를 물으며, 그쪽 증언과 대조해 보자꾸나. 그래야 누가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웁으신 말씀입니다. 이 몸이 죽은 구홍을 불러내서, 도대체 누가 그를 때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오정이 당승을 말에 태우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밖으로 나섰다. 지령현의 여러 관리들도 줄줄이 구홍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구랑 형제는 문앞에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고, 관리들은 그들을 대청 안으로 들였다. 효당 안을 보니 온 가족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손오공이 소리쳤다. "거짓말로 선량한 사람을 해치려 드는 저 마마(부인)는 이제 그만 우시오! 내가 곧 당신 남편을 데려올 테니, 누가 그를 때려죽였는지 직접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겠소!"

관리들은 손오공이 농담을 한다고만 생각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나리들, 잠시 제 스승님을 모시고 앉아 계십시오. 팔계와 사오정은 스승님을 잘 보살펴라. 내가 다녀오마!"

말을 마친 손오공은 문밖으로 뛰어 나가더니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러자 온 땅에 채색 구름이 집을 감싸 안고, 상서로운 기운이 온몸을 보호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안개를 가르는 신선이자, 죽은 이를 살려내는 성인임을 깨닫고 저마다 향을 피워 절을 올렸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단숨에 저승의 세계로 달려가, 삼라전에 거침없이 들이닥쳤다. 그 기세에 놀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열 명의 염라대왕은 손을 모아 맞이하고, 오방의 귀신 판관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영접했다. 수천 그루의 칼나무는 옆으로 기울어지고, 겹겹이 쌓인 칼산은 평평하게 깔여 나갔다. 망자의 성에 살던 요괴들은 흩어지고, 나하교 아래의 귀신들은 다시 살아나니, 정녕 신령한 빛이

비치니 하늘의 용서를 받은 듯 어두운 저승 구석구석이 환하게 밝아졌다.

열 명의 염라대왕은 손오공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눈 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동태부 지령현에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던 구홍의 혼령을 누가 거두었느냐? 어서 찾아내어 내게 말하라.”

열 명의 염라대왕이 대답했다. “선한 이 구홍은 귀신 사자가 잡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지장왕보살의 금의동자를 만나, 그가 보살님께 인계하였습니다.”

손오공은 즉시 작별을 고하고 취운궁으로 가서 지장왕보살을 뵈었다. 보살은 손오공과 예법을 갖추어 인사를 나눈 뒤, 앞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었다. 보살은 기뻐하며 말했다. “구홍의 이승 수명은 타고난 운수가 다하여 끝난 것일 뿐, 병들어 자리에 눕지도 않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린 선한 이였기에, 제가 그를 선업을 기록하는 장부를 관리하는 안장(案長)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성께서 데려가려 하시니, 제가 그의 수명을 한 기(一紀, 곧 열두 해) 더 늘려 대성을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곧이어 금의동자가 구홍을 데리고 나왔다. 구홍은 손오공을 보자마자 연신 소리치며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강도에게 발로 차여 죽었으나, 이곳은 저승의 지장왕보살님이 계신 곳이다. 내가 특별히 너를 데리고 이승으로 가서 이 일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다. 보살님께서 너를 놓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열두 해나 더 늘려주셨으니,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오나라.”

구홍은 손오공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끝없는 감사를 표했다.

손오공은 보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구홍을 한 줄기 기운으로 불어 변화시켜 옷소매 속에 넣고는, 함께 저승을 빠져나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다. 구름을 타고 구홍의 집에 도착한 손오공은 저팔계에게 시켜 관 뚜껑을 열게 한 뒤, 구홍의 혼령을 그의 몸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잠시 후, 구홍의 몸에서 기운이 돌더니 살아났다.

구홍은 관에서 기어 나와 당승 일행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 제가 불행하게 죽었으나 스승님께서 저승까지 오셔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재조지은(再造之恩, 다시 살려준 큰 은혜)입니다.” 그는 연신 감사의 말을 올렸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관아의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나으리들, 어찌 다들 저희 집에 와 계십니까?”

그러자 자사가 대답했다. “그대의 아들이 처음에는 도둑맞은 일을 고소장으로 올리며 이름을 지목해 성승(聖僧, 거룩한 스님)을 고소했기에 내가 사람을 보내 붙잡아 왔었네. 그런데 뜻밖에 성승께서 길을 가시다 그대의 집을 텅 도둑들을 만나 재물을 되찾아 돌려주려 하셨더군. 내 아랫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 붙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이네. 그런데 오늘 밤 그대가 혼령으로 나타나고, 나의 백부님께 서도 집에 오셔서 호소하셨으며, 현에는 떠돌이 유신(遊神)까지 내려

와 이토록 신기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성승을 풀어드린 것이네. 그런데 성승께서 도리어 그대를 다시 살려내기까지 하셨구려.” 구홍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으리, 사실 이 네 분의 성승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날 밤 서른 명도 넘는 강도들이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집안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제가 차마 내어주지 못하고 도둑들에게 따지다가, 뜻밖에 그놈들에게 사타구니를 발로 차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네 분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어 구홍은 아내를 불러 세우고 말했다. “누가 나를 발로 차 죽였는데, 너희가 감히 함부로 거짓 고소를 한 것이냐? 나으리, 부디 죄를 정해주십시오.” 그 순간 온 가족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자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면해주었다.

구홍은 관아와 현의 관리들에게 후한 은혜를 갚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관리들은 잔치를 끝내고서야 관아로 돌아갔다. 다음 날, 관아에서는 다시 승려 공양패를 걸고 삼장법사 일행을 정중히 머물게 하려 했다. 하지만 삼장법사는 결코 머물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이에 친인척들을 불러 모으고 깃발과 의장을 준비하여 예전처럼 정성껏 배웅했다. 아! 이야말로 이러하였다.

땅이 비록 넓어 흉악한 일을 품을 수 있어도, 하늘은 높아서 선한 마음을 지닌 이를 저버리지 않네. 여래의 길을 따라 유유자적 평안히 걸어가면, 마침내 영산의 극락문에 닿으리라.

결국 부처를 뵈는 것이 어떠했을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8회 — 원숭이는 길들여지고 말은 순종하여 껌질을 벗어던지고, 공을 이루고 수행이 차니 진여를 마주하다

猿熟馬馴方脫殼 功成行滿見真如

삼삼행만도귀근(三三行滿道歸根) 세 번 세 번을 다 채워 행하니, 도는 마침내 근본으로 돌아가도다.

한편, 구원외는 다시 살아나자마자 깃발을 흔들고 북과 악기를 치며 행렬을 정비하였다. 승려와 도사, 그리고 친지들이 여전히 배웅을 나왔으나, 그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당승 일행 네 사람이 큰길로 들어서니 과연 서방의 불교 성지답게 다른 곳과는 사뭇 달랐다. 곳곳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피어 있고, 오래된 측백나무와 푸른 소나무들이 울창했다. 지나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선한 일을 권장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 수행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숲속에서 경전을 암송하는 나그네들을 볼 수 있었다.

스승과 제자들은 밤에는 쉬고 낮에는 길을 나섰다. 그렇게 6, 7일쯤 더 나아갔을 때, 문득 높이 솟은 누각과 여러 층으로 된 화려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다음과 같았다.

하늘을 향해 백 척 높으로 솟구쳐 허공을 찌를 듯하고, 고개를 숙여 지는 해를 바라보면 손을 뻗어 날아가는 별을 딸 수 있을 듯하구나. 탁 트인 창문은 온 우주를 머금은 듯하고, 험준한 지붕은 구름을 병풍 삼아 맞닿아 있네. 황학이 보내온 소식은 가을 나무가 시들 때 도착하고, 채색 난새가 가져온 편지는 늦가을 바람이 맑을 때 전해지니, 이곳이야말로 영험한 궁궐과 보석 같은 정원이로다. 진리의 법도를 논하는 당당한 법당에서는 우주의 이치를 전하고, 꽃은 봄이 오면 아름다워지며 소나무는 비가 지나면 푸르러지네. 자줏빛 영지버섯과 신선들의 과일은 해마다 무르익고, 붉은 봉황은 만물의 영험함을 찬양하며 날아오르네.

당승이 채찍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오공아, 저기 참 좋은 곳이 있구나." 그러자 손오공이 대꾸했다. "스승님, 예전에 가짜 경계와 가짜 불상 앞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절을 하려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진짜 경계와 진짜 불상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도 말에서 내리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당승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말에서 뛰어내렸고, 어느덧 누각의 문 앞까지 다다랐다. 문 앞에는 한 도동이 비스듬히 서 있다가, 소리를 듣고는 외쳤다. "저기 오는 분들이 설마 동토에서 온 경전 구도자들입니까?"

당승은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았다. 그 도동의 모습은 이러했다.

비단옷을 걸치고 손에는 옥 먼지털이를 들었구나. 비단옷을 입으니 보석 같은 누각과 옥지에서 늘 연회에 참석할 듯하고, 옥 먼지털이를 흔드니 단청과 자색 신선의 집에서도 매번 먼지를 털어낼 듯하네. 팔에는 신선의 비결을 매달고 발에는 신발을 신었으니, 홀연히 나타난 참된 신선의 모습이 참으로 수려하고 기이하구나. 장생불사를 이루어 신령한 곳에 거하며, 영원한 수명을 닦아 세상의 먼지를 벗어던졌네. 성스러운 승려가 영산의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전에 금정대선이 오셨던 것을 말하노라.

손오공이 그를 알아보고 즉시 말했다. "스승님, 저분은 영산 발치에 있는 옥진관의 금정대선입니다. 우리를 마중 나오셨나 봐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당승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었다. 금정대선이 웃으며 말했다. "성스러운 승려께서 이제야 도착하셨군요. 제가 관음보살님께 속았습니다. 보살님께서 10년 전 부처님의 금지(엄한 명령)를 받들어 동토에서 경전을 구할 사람을 찾으라 하시며, 두세 해면 이곳에 도착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매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더니, 뜻밖에 올해야 비로소 만나게 되었군요." 당승이 합장하며 말했다. "대선께서 베풀어 주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로써 네 사람은 말과 짐을 챙겨 관 안으로 들어갔다. 금정대선과 차례로 인사를 나눈 뒤, 대선은 차를 내오고 공양을 준비하라 명했다. 또한 어린 도동에게 향을 피울 물을 데워와서 성스러운 승려가 몸을 씻을 수 있게 하라고 일렀으니, 이는 부처님의 땅에 오르기 위함이었다. 시로 이르되,

공덕을 쌓고 여정을 마쳤으니 몸을 씻는 것이 마땅하고, 본성을 길들여 닦으니 하늘의 진리와 합치되도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야 고생을 멈추니, 계율을 지키고 귀의하여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마를 물리치고 마침내 부처님의 땅에 오르니, 재앙이 사라져 비로소 수행자의 도를 보도다. 먼지를 씻고 때를 벗어 더러움이 전혀 없으니, 근본으로 돌아가 훼손되지 않는 몸을 얻는구나.

스승과 제자들이 목욕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옥진관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당승은 옷을 갈아입고 비단 가사를 걸친 뒤 비로모를 쓰고 석장을 손에 든 채 대선에게 인사를 올렸다. 대선이 웃으며 말했다.

“어제는 남루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참으로 화사하구려. 이 모습을 보니 진정한 불자임이 분명하오.”

삼장법사가 절을 하고 작별을 고하려 하자 대선이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배웅해 드리지요.”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배웅할 필요 없소. 이 몸이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선이 대답했다.

“그대가 아는 것은 구름 길일 것이오. 성승께서는 아직 구름 길에 오르지 않으셨으니, 반드시 이 정해진 길로 가야 하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 말씀이 맞소. 이 몸이 여러 번 길을 다녀보긴 했으나 그저 구름 위를 떠다녔을 뿐, 실제로 이 땅을 밟아본 적은 없소. 정해진 길이 있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배웅해 주시오. 우리 스승님은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무척 간절하시니, 부디 지체하지 않도록 말이오.”

대선은 싱글벙글 웃으며 당승의 손을 잡고 법문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알고 보니 이 길은 산문을 나갈 필요도 없이 도관(玉真觀)의 본당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대선이 영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성승, 저기 하늘 중간에 오색의 상서로운 빛이 감돌고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이 보이십니까? 저곳이 바로 영취봉이며, 부처님의 성스러운 경지입니다.”

당승은 그 광경을 보고 절을 올렸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아직 절할 곳이 아니에요. 흔히들 ‘산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오히려 말이 지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절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약 정상에 도착해서 절을 하려면 머리를 몇 번이나 조아려야 하겠어요?”

대선이 말했다.

“성승, 그대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네 분은 이미 복된 땅에 도착하여 영산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니, 나는 이만 돌아가겠소.”

당승은 이에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손오공이 당승 일행을 이끌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영산에 올랐다. 오륙 리쯤 나아갔을 때, 물소리가 졸졸 흐르며 파도가 거세게 치는 활수가 나타났다. 강폭은 팔구 리나 되어 넓고 광활했으며,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당승은 깜짝 놀라 말했다. "오공아, 길을 잘못 든 것 같구나. 혹시 대선께서 잘못 알려주신 것은 아니냐? 물이 이토록 넓고 물결이 거센데, 배 한 척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찌 건너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틀림없습니다. 저기 저쪽을 보세요.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다리를 건너가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스님 일행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다리 입구에 '능운도'라는 세 글자가 적힌 판이 하나 있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외나무다리였다.

시로 이르되, 멀리서 보면 허공을 가로지른 옥기둥 같고, 가까이서 보면 끊어진 물 위를 떠다니는 마른 나뭇배로다. 강과 바다에 다리를 놓는 일은 쉬우나, 외나무다리 하나를 사람이 어찌 건너겠는가. 만 길 무지개가 평평하게 누워 있는 듯하고, 천 길 흰 비단이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네. 너무나 가늘고 미끄러워 건너기 어려우니, 신선이 채운을 밟듯 걷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하리오.

당승은 겁에 질려 떨며 말했다. "오공아, 이 다리는 사람이 다닐 만한 것이 아니구나. 다른 길을 찾아보자꾸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길입니다. 바로 길이라니까요."

저팔계가 당황하여 외쳤다. "이게 길이라고? 누가 감히 저걸 건넌단 말이나? 물은 저렇게 넓고 파도는 요동치는데, 고작 나무 막대기 하나가 저렇게 가늘고 미끄러우니 발을 어떻게 떼란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다들 거기 가만히 서 계시오. 이 몸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

과연 대단한 대성이었다. 손오공은 성큼 발을 떼어 외나무다리 위로 뛰어오르더니, 비틀비틀 흔들거리며 순식간에 다리를 건너가서는, 건너편에서 손짓하며 외쳤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그러자 당승은 손을 내저으며 만류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손가락을 깨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

손오공이 다시 건너편에서 달려와 저팔계를 붙잡으며 말했다. "이 명청아, 나를 따라와, 어서!"

하지만 저팔계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버텼다. "미끄러워, 너무 미끄럽단 말이야! 못 가겠어. 제발 좀 봐줘, 그냥 구름이나 안개를 타고 날아서 건너가게 해달란 말이야."

손오공이 저팔계를 억누르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구름을 타고 날아가겠다는 거야? 반드시 이 다리를 직접 걸어서 건너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부처가 못 되면 좀 어때요, 정말 못 가겠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리 근처에서 서로 끌고 당기며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사오정이 다가가 말리자 겨우 손을 놓을 수 있었다.

당승이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물결을 타고 내려오는 한 사람이 배를 저으며 "타세요, 타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다. 당승이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들아, 선불리 움직이지 마라. 저기 나룻배가 오는구나." 세 사람이 동시에 뛰어올라 자리를 잡고 눈을 떼지 못하며 바라보는데, 배가 가까이 다가오니 알고 보니 바닥이 없는 배였다. 손오공은 화안금정의 눈으로 그것이 이미 자신들을 마중 나온 보창광왕불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를 굳이 밝히지 않고 그저 "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이 노를 저어 오세요!"라고 소리쳤다. 배가 순식간에 강가에 다다르자, 손오공이 다시 "타세요, 타세요!"라고 외쳤다.

이를 본 당승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 바닥도 없는 허술한 배로 어떻게 사람을 태워 건너간단 말이나?" 그러자 부처가 말했다.

"내 배는 이러하느니, 태초의 혼돈 속에서 이름이 생겨났고, 다행히 내가 노를 저어 오니 변함이 없구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스스로 안온하니, 끝도 시작도 없어 평화로움이 즐겁도다. 여섯 가지 세속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하나로 돌아가니, 만 겹의 세월 속에서도 안연

히 자유로이 다니리라. 바닥 없는 배라 바다 건너기 어렵다 하나, 이제
예부터 지금까지 중생들을 실어 나르는구나."

손오공이 합장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스승님을 마중 나오신 그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이 배가 비록 바
닥은 없으나 아주 안정적이어서, 설령 풍랑이 일더라도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당승이 여전히 의심하며 망설이고 있자, 손오공이 팔을 걷어붙이고
스승을 위로 밀어 올렸다. 당승은 발을 헛디터 굴러 물속에 빠질 뻔했
으나, 배를 젓던 이가 재빨리 그를 낚아채 배 위로 세워주었다. 당승은
옷을 털고 신발을 추스르며 손오공을 원망했다. 손오공은 사오정과 저
팔계를 불러 말과 짐을 챙겨 배에 태웠고, 모두 배 위에 나란히 섰다.

부처가 가볍게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자, 강 상류 쪽으로 시체 하나
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당승은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손
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겁내지 마세요. 저건 원래 스승님이셨
잖아요." 저팔계도 거들었다. "맞아요, 스승님, 바로 스승님이에요!" 사
오정도 손뼉을 치며 말했다. "맞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라니까요!"
배를 젓던 이조차 박자를 맞추며 말했다. "저건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군요, 축하할 일이야!" 세 제자도 한목소리로 맞장구를 쳤
다.

배를 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룡운도를 아주 안정적으로 무
사히 건넜다. 당승은 그제야 몸을 돌려 반대편 기슭으로 가볍게 뛰어내
렸다. 이에 시로 이르되,

"태중의 껍데기와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정신을 마주하네. 오늘 수행을 마치고 마침내 부처가 되니, 지난 날의 온갖 세속적 번뇌를 깨끗이 씻어냈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넓고 깊은 지혜이며,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끝없는 법이라 할 수 있었다.

네 명의 일행이 육지에 올라 발을 딛고 뒤를 돌아보니, 아까 탔던 무저선(바닥 없는 배)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손오공이 방금 그 배를 태워준 분이 바로 접인불조(接引佛祖)라고 말해주자, 그제야 삼장법사는 깨달음을 얻고 급히 몸을 돌려 세 제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서로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스승님 덕분에 해탈의 길을 열고 수행할 방도를 얻어 마침내 성불할 수 있었고, 스승님 또한 저희 덕분에 요괴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르침을 지켜내어 번뇌를 벗어던지셨으니 서로 도운 것이지요. 스승님,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꽃과 풀,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난새와 봉황, 학과 사슴이 노니는 이 아름다운 경치가 요괴들이 나타나던 험악한 곳에 비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느 쪽이 선하고 어느 쪽이 흉악하겠습니까?"

삼장법사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일행은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영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뇌음사의 고풍스러운 사찰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로 이르되,

하늘 끝까지 솟아올라 수미산의 맥과 맞닿아 있구나. 기묘한 봉우리들이 줄지어 서고 괴석들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네. 절벽 아래에는 요사스러운 풀과 보석 같은 꽃들이 피어 있고 굽이진 길가에는 향기로운 보랏빛 지초가 가득하구나. 신선 원숭이는 복숭아 숲으로 들어가 과일을 따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꽃이 금을 태우는 듯 찬란하고, 흰 학은 소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으니 마치 안개가 옥을 감싸 안은 듯하구나. 채색 봉황은 쌍을 지어 날고 푸른 난새는 짝을 지어 노니네. 봉황은 쌍을 지어 해를 향해 울며 세상에 상서로움을 알리고 난새는 짝을 지어 바람을 맞으며 춤추니 세상에 보기 드문 광경이라.

황금빛 기와는 원앙처럼 겹겹이 쌓여 있고 밝게 빛나는 꽃무늬 벽돌은 마노를 깔아놓은 듯하구나.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온통 궁궐의 화려한 전각들이요, 남쪽과 북쪽을 둘러봐도 끝없이 펼쳐진 보물 같은 누각과 정자뿐이라. 천왕전에서는 노을빛이 뿔어져 나오고 호법당 앞에서는 보랏빛 불꽃이 타오르네. 불탑은 위엄 있게 서 있고 우발화(優鉢花, 우발라·청련) 향기가 가득하니, 이곳은 땅의 경치가 하늘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구름은 한가로워 낮이 길게 느껴지는구나. 속세의 번뇌가 닿지 않아 모든 인연이 끊겼으니 만 겹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대법당이로다.

스승과 제자들은 유유자적하게 영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푸른 소나무 숲 아래에는 우바새(남성 신도)들이 줄지어 있고, 푸른 측백나무 숲 사이로는 선사(善士)들이 늘어서 있었다. 장로(당승)가 곧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자, 그곳에 있던 우바새와 우바이, 비구와 비구니들이 합

장하며 말했다. "성스러운 승려님, 예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부처님을 뵙고 나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고말고요, 어서 가십시오. 어서 높은 분을 뵈러 가야겠습니다."

그 장로(삼장법사)는 기뻐서 춤추듯 손오공 일행을 따라 뇌음사 산문 밖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네 명의 금강신이 마중 나오며 물었다. "성스러운 승려께서 오셨습니까?" 당승이 몸을 굽혀 답했다. "예, 제자 현장이 도착했습니다." 말을 마친 당승이 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금강신이 제지하며 말했다. "성스러운 승려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고를 드린 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금강신은 곧장 산문으로 달려가 이문(二門)을 지키는 네 금강신에게 당승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이문에서 다시 삼문(三門)으로 소식이 전해지며 당승이 도착했음이 알려졌다. 삼문 안에서 공양을 준비하던 신승들은 당승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대웅보전으로 달려가, 여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고했다. "대당에서 온 성스러운 승려가 이 보물 같은 산에 도착하여 경전을 구하러 왔나이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다. 즉시 여덟 보살, 네 금강신, 오백 나한, 삼천 갈제, 십일대요, 십팔가람을 불러 모아 두 줄로 늘어세웠다. 이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명을 내려 당승을 부르게 했다. 전각의 층과 칸을 거쳐 부처님의 명에 따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스러운 승려님, 들어오십시오." 당승은 법도에 따라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말을 끌고 짐을 멘 채 산문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이러하였다.

옛날에 뜻을 세워 황제의 명을 받들고, 어명을 받아 옥계에서 궁궐을 나섰네. 새벽녘 산에 올라 안개와 이슬 맞고, 황혼녘 돌에 기대어 구름 속에 누웠도다. 삼천 개의 물줄기를 건너며 선도를 닦고, 만 리 벼랑 끝을 걸으며 지팡이를 휘둘렀네. 마음속에는 오직 정과를 구하는 생각뿐이니, 오늘에야 비로소 여래를 뵈게 되었구나.

네 명의 제자는 대웅보전 앞에 이르러 여래 앞에 몸을 굽혀 절했다. 절을 마친 뒤 좌우로 다시 절하고, 각각 세 번씩 정중히 예를 올린 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관문첩(여행 허가증)을 올렸다. 여래께서는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신 뒤 당승에게 돌려주었다. 당승은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아뢰었다. “제자 현장, 동토 대당 황제의 명을 받들어 멀리 이 보물 같은 산까지 찾아왔나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진실한 경전을 구하고자 하오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래께서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당승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온 동토는 남섬부주라. 그곳은 땅이 넓고 사람이 붐비는 만큼 탐욕과 살생이 많고, 음란함과 거짓이 가득하며, 속임수와 사기가 판을 치는 곳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선한 인연을 맺지 않으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공경하지 않고 오곡의 소중함을 모르니, 충과 효가 없고 의와 인이 없구나. 마음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큰 뒷박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저울로 내주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짐승을 죽이는 등 끝없는 업보를 쌓아 죄가 가득하니, 지옥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도다. 그리하여 영원히 어둠 속에 떨어져 절구에 찢기고 갈리는 고통을 받으며 짐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털이 나고 뿔이 달린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나 그 몸으로 빛을 갇고 고기로 사람을 먹이는 형상을 하니, 아비지옥에 떨어져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모두 이 때문이라네. 비록 공자의 가르침이 있어 인의예지의 도를 세우고 제왕들이 대를 이어 다스리며 형벌로 다스린다 한들, 어찌 어리석고 무지하여 방종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다 막을 수 있겠느냐! 내 이제 삼장(三藏)의 경전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재앙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삼장이라 함은, 하늘을 논하는 법(法)의 경전이 있고, 땅을 말하는 논(論)의 경전이 있으며, 귀신을 제도하는 경(經)의 경전이 있다. 모두 서른다섯 부로 이루어져 총 만 오천 일백 사십사 권에 달하니,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자 선한 문이라 할 수 있다. 천하 사대주(四大部洲)의 천문, 지리, 인물, 새와 짐승, 꽃과 나무, 도구와 인간사 등 세상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실려 있느니라. 너희가 멀리서 왔으니 이 경전들을 모두 너희에게 주어 가져가게 하고 싶지만, 그곳 사람들은 어리석고 거칠어 진실한 말씀을 비방하고 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이구나.”

이어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 가섭아! 너희 둘은 이 네 사람을 보물 누각 아래로 안내하여 먼저 공양을 대접하거라. 식사를 마친 뒤에는 보물 창고를 열어, 내가 가진 삼장 경전 중 서른다섯 부 안에서 각각 몇 권씩 골라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이 동토에 경전을 전하여 나의 큰 은혜를 영원히 기리게 하라.”

두 존자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일행 네 사람을 아래층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이한 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공양을 올리는 여러 신선이 차려놓은 잔칫상은 온통 신

선들의 음식과 차, 과일들로 가득했는데, 그 맛과 종류가 실로 백미라 할 만큼 범속한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스승과 제자들은 부처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마음껏 음식을 즐겼다. 시로 이르되,

보배로운 불꽃과 금빛은 눈을 밝게 비추고, 기이한 향기와 진귀한 음식은 더욱 정갈하구나. 천 층의 금빛 누각은 끝없이 아름답고, 신령한 음악은 귓가에 맑게 울려 퍼지네. 좀처럼 보기 드문 신선의 꽃과 맛있는 음식, 향긋한 차와 진미를 먹으니 장생불사를 얻겠구나. 그동안 온갖 고생을 다 겪어왔으니, 오늘 이 영화로움 속에 도를 이루었도다.

이 호사가 저팔계에게는 큰 즐거움이었고, 사오정에게는 편안한 일이었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스러운 곳이었기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귀한 음식들이 저팔계의 입으로 끊임 없이 들어갔다. 두 존자가 일행의 식사를 모두 모신 뒤, 보물 창고로 들어가 문을 열고 안을 살폈다. 그곳에는 노을 같은 빛과 상서로운 기운이 겹겹이 감돌고 있었으며, 채색 안개와 상서로운 구름이 만 갈래 길을 뒤덮고 있었다. 경전 보관함과 보물 상자 곁에는 모두 붉은 표식이 붙어 있었고, 정갈한 글씨로 경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목록은 이러했다.

《열반경》 748권, 《보살경》 1,021권, 《허공장경》 400권, 《수능엄경》 110권, 《은의경대집》 50권, 《결정경》 140권, 《보장경》 45권, 《화엄경》 500권, 《예진여경》 90권, 《대반야경》 916권, 《광명경》 300권, 《미증유경》 1,110권, 《유마경》 170권, 《삼론별경》 270권, 《금강경》 100권, 《정법론경》 120권, 《불본행경》 800권, 《오룡경》 32권, 《보살계경》 116권, 《대집경》

130권, 《마갈경》 350권, 《법화경》 100권, 《유가경》 100권, 《보상경》 220권, 《서천론경》 130권, 《승기경》 157권, 《불국잡경》 1,950권, 《기신론경》 1,000권, 《대지도경》 1,800권, 《보위경》 1,280권, 《본각경》 850권, 《정률문경》 200권, 《대공작경》 220권, 《유식론경》 100권, 《구사론경》 200권.

아나와 가엸은 당승을 데리고 경전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더니, 당승에게 말했다. "성스러운 승려께서 동토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에게 보답할 만한 예물이 좀 있습니까? 어서 내놓으셔야 경전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승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제자 현장은 먼 길을 오느라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존자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 참으로 안타깝군요. 빈손으로 경전을 받아 세상에 전한다면, 후손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들이 말을 꾸물거리며 경전을 전해주려 하지 않자,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스승님, 우리가 가서 여래님께 고합시다! 직접 오셔서 이 손오공에게 경전을 주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나가 꾸짖었다. "떠들지 마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이리 와서 경전이나 받아라."

저팔계와 사오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손오공을 말리며 경전을 받으러 나섰다. 그들은 경전을 한 권씩 챙겨 보따리에 담아 말에 실었고, 다시 두 짐을 더 묶어 저팔계와 사오정이 짊어졌다. 일행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 뒤 문을 나섰다. 길을 가며 부처님을 뵈 때마다 두 번씩 절하고, 보살을 뵈 때마다 두 번씩 절했다.

대문에 이르러서는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재가 신도들에게도 일일이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산을 내려가 서둘러 길을 떠났다.

한편, 보물 누각 위에는 연등고불이 한 분 계셨다. 그는 누각 위에서 경전을 전하는 일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난과 가섭이 글자 없는 경전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연등고불은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동토의 승려들은 어리석고 미혹되어 글자 없는 경전의 참 뜻을 모르니, 성승이 그 먼 길을 고생하며 달려온 보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곁에 누구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백웅존자가 번쩍 나타났다. 연등고불이 명령했다. "네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날아가는 별처럼 당승을 뒤쫓아가라. 그리고 그 글자 없는 경전을 빼앗아, 그들이 다시 글자가 있는 진짜 경전을 구하러 오게 만들어라." 백웅존자는 즉시 광풍을 타고 뇌음사 산문 밖으로 굴러 나가며 엄청난 위세를 떨쳤다. 그 바람의 기세는 참으로 이러했다.

"부처님 앞의 용사가 일으킨 바람이라, 바람의 신인 손이(巽二)에 비할 바가 아니로다. 신선의 구멍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소녀의 휘파람 소리보다 훨씬 멀리 울려 퍼지네. 이 바람에 물고기와 용은 숨을 곳을 잃고, 강과 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네. 영리한 원숭이는 과일을 들고 오지 못하며, 황학은 구름을 헤치고 옛 등지를 찾아 헤매네. 단봉의 맑은 울음소리는 아름답지 않고, 금계의 울음소리만 요란하구나. 푸른 소나무 가지는 꺾이고 우발화 꽃잎은 흩날리네. 푸른 대나무는 줄줄이 쓰러지고 금련꽃은 송이송이 흔들리네. 종소리는 삼천 리 밖까지 멀리 퍼지고, 경전 읽는 소리는 만 개의 골짜기를 타고 높이 날아오르네. 절벽 아래 기이한 꽃들은 아름다움을 잃고, 길가의 보배로운 풀들은 싱싱

하던 싹이 꺾였네. 채란은 날갯짓하기 어렵고, 백록은 절벽 뒤로 숨어버렸네. 넘실거리는 기이한 향기는 온 우주에 가득하고, 맑은 바람은 구름 위까지 뚫고 올라가네."

당승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향기로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당승은 그저 부처님이 내리시는 상서로운 징조인 줄로만 알았지,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굉'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공중에서 손 하나가 쑥 내려와 말 등에 실린 경전 꾸러미를 가볍게 낚아채 갔다. 당승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고, 저팔계는 땅을 구르며 뒤쫓았으며, 사오정은 경전 짐을 지키려 애썼고, 손오공은 날 듯이 급히 뒤를 쫓았다. 백웅존자는 손오공이 거의 다 따라붙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손오공의 여의봉이 눈이 없어 순간 좋고 나쁨을 가리지 못하고 자기 몸을 쳐서 다치게 할까 봐, 얼른 경전 꾸러미를 갈기갈기 찢어 먼지 속에 던져버렸다. 손오공은 경전 꾸러미가 찢어진 데다 향기로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고는, 일단 구름을 낮게 타고 내려와 흩어진 경전을 살피느라 추격을 멈추었다. 그사이 백웅존자는 바람과 안개를 거두고 돌아가 연등고불에게 보고했다.

저팔계가 뒤쫓아가 보니 경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저팔계는 손오공과 함께 경전을 추스른 뒤, 그것을 등에 지고 당승에게 달려왔다. 당승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했다.

"제자들아, 이 극락세계에도 여전히 우리를 해치려는 흉악한 마물이 있구나."

사오정이 품에 안긴 흠어진 경전을 받아 들고 펼쳐 보았으나, 경전은 온통 눈처럼 하얗기만 할 뿐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사오정은 당황하여 당승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승님, 이 권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손오공이 다른 권을 펼쳐 보아도 역시 글자가 없었고, 저팔계가 한 권을 펼쳐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당승이 "모두 펼쳐서 확인해 보아라!" 하고 외쳤지만, 권마다 모두 백지뿐이었다. 당승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다.

"우리 동토 사람들이 과연 복이 없구나. 이토록 글자도 없는 빈 책을 가져가서 어디에 쓴단 말이나? 감히 어떻게 당왕을 뵈 수 있겠느냐. 임금 속인 죄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미 상황을 짐작한 손오공이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아나와 가엽이라는 놈들이 우리에게 사례를 요구했는데, 줄 것이 없으니 저런 백지 경전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어서 돌아가서 여래께 이 비리 행위를 고하고 엄히 꾸짖어 달라고 합시다."

저팔계도 거들며 외쳤다.

"맞습니다, 맞아요! 가서 꼭 따져 물어야 합니다!"

네 사람은 좋은 기분으로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서둘러 뇌음사로 다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문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두 손을 모아 맞이하며 웃으며 물었다. "성스러운 스님, 경전을 바꾸러 오셨습니까?" 당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금강신들도 길을 막지 않고 그를 대웅보전 앞까지 안내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소리치며 말했다. "여래시여! 저희 스승과 제자들이 수만 가지 괴로움과 천 가지 마귀를 겪으며, 동토에서 이곳까지 온갖 고생 끝에 도착했습니다. 여래께서 경전을 전하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난과 가섭이 재물을 요구하며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둘이 짜고 속임수를 써서 글자도 없는 백지 경전을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부디 여래께서 이들을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부처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그만 소란을 피워라. 그 둘이 너에게 보답을 요구한 사정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만 경전이라는 것은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되며, 아무 대가 없이 가져가서도 안 되는 법이다. 예전에 비구 성승들이 산을 내려가 사위국에 있는 조 장자의 집에서 이 경전을 한 번 읊어준 적이 있었다. 덕분에 그 집의 살아있는 이들은 평안을 얻고 죽은 이들은 해탈하였으니, 그 대가로 쌀알만 한 황금 서 말 서 되를 받아 왔다. 나는 그때 그들이 너무 값을 싸게 불러서, 나중에 후손들이 쓸 돈이 없을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너희는 지금 빈손으로 경전을 받으려 하니, 글자 없는 본을 받은 셈이 된 것이다. 하지만 글자 없는 본이라 해도 그것은 '글자 없는 진경(眞經)'이니 오히려 좋은 것이다. 너희 동토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니, 오직 이것으로써 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즉시 명했다. "아난과 가섭은 어서 글자가 적힌 진짜 경전을 가져오너라. 각 경전마다 몇 권씩 골라 그들에게 주고, 그 수를 이곳에 보고하라."

두 존자가 다시 네 명의 일행을 거느리고 보물각 아래에 이르러, 당승에게 예물로 바칠 물건이 있는지 물었다. 당승은 바칠 물건이 없었기에 사오정에게 명하여 자금발우를 꺼내게 했다. 사오정은 두 손으로 발우를 받들어 올리며 말했다.

"제자가 형편이 가난하고 길도 멀어 예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발우는 당왕께서 친히 하사하신 것으로, 제자가 길을 가는 동안 공양을 받는 데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것을 바쳐 작은 정성을 표하오니, 부디 존자께서 받아 주십시오. 나중에 대당으로 돌아가 당왕께 아뢰면 반드시 두둑한 사례를 할 것입니다. 다만 글자가 적힌 진짜 경전을 내려주셔서, 임금의 명을 받든 이의 정성과 멀리서 온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난이 그것을 받아 들더니 그저 살짝 미소만 지었다. 그러자 보물을 관리하는 역사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각을 지키는 존자들이 너도나도 얼굴을 만지거나 등을 두드리며, 손가락을 튕기거나 입술을 비쭉 거리는 등 저마다 웃으며 놀려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부끄러운 줄도 몰라! 경전을 받으러 와서 예물을 요구하다니!"

잠시 동안 두 존자는 얼굴이 화끈거리 쭈그러들 지경이었으나, 발우를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다. 한편 가섭은 각 안으로 들어가 경전을 검사하며 하나하나 당승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들아, 지난번 같은 일이 없도록 모두 잘 살펴보아라."

세 제자가 경전을 한 권씩 건네받아 살펴보니, 다행히 모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전달된 경전은 총 5,048권으로, 한 장(藏)의 온전한 수가 되었다. 일행은 경전을 잘 정리하여 말 위에 실었고, 남은 경전은 한 짐을 만들어 저팔계가 짊어졌다. 사오정은 각자의 짐을 땀과 손오공이 말을 끌고 당승은 석장을 짊으며 비로모를 고쳐 쓰고 금색 가사까지 털어 정리하니, 그제야 기쁜 마음으로 석가모니 여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시로 이르되,

대장경의 참된 맛은 달콤하고 여래께서 만드신 것은 지극히 정교하고 엄숙하구나. 현장이 산을 오르느라 겪은 고생을 알아야 하리니 돈을 밝히던 아난의 모습이 가소롭구나. 처음엔 사정을 자세히 몰랐으나 옛 부처(연등고불) 덕분이요 나중에는 참된 경전을 얻어 비로소 안심하였네. 이제 뜻을 이루어 동토로 경전을 전하니 모든 중생이 그 은혜의 단비를 입으리라.

아나와 가엽이 당승을 데려와 여래를 뵈게 했다. 여래께서 연화좌에 높이 오르시자, 항룡과 복호 두 나한에게 명하여 구름종을 울리게 했다. 이어 삼천의 제불과 삼천의 게디, 팔금강, 사보살, 오백 나한, 팔백 비구 승려, 그리고 수많은 우바새와 비구니, 우바이 등 모든 신도들을

청했다. 하늘과 동굴의 모든 신선과 복지 및 영산의 크고 작은 존자와
성스러운 승려들까지, 앉아야 할 이는 보좌에 앉고 서야 할 이는 양옆
에 서도록 했다.

순식간에 멀리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신령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하늘에는 상서로운 빛이 겹겹이 쌓이고 길한 기운이 가득했
다. 모든 부처님이 모여 여래를 알현했다. 여래께서 물으셨다.

"아나와 가엽아, 그에게 경전을 얼마나 전해주었느냐? 하나하나 날
날이 보고하라."

두 존자가 즉시 보고했다.

"현재 당승에게 전달한 경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반경》 400권 《보살경》 360권 《허공장경》 20권 《수능엄
경》 30권 《은의경대집》 40권 《결정경》 40권 《보장경》 20권
《화엄경》 81권 《예진여경》 30권 《대반야경》 600권 《대광명
경》 50권 《미증유경》 550권 《유마경》 30권 《삼론별경》 42권
《금강경》 1권 《정법론경》 20권 《불본행경》 116권 《오룡경》
20권 《보살계경》 60권 《대집경》 30권 《마갈경》 140권 《법화
경》 10권 《유가경》 30권 《보상경》 170권 《서천론경》 30권
《승기경》 110권 《불국잡경》 1,638권 《기신론경》 50권 《대지
도경》 90권 《보위경》 140권 《본각경》 56권 《정률문경》 10권
《대공작경》 14권 《유식론경》 10권 《구사론경》 10권

보관 중인 총 경전은 35부이며, 각 부에서 찾아낸 권수는 총 5,048 권으로 모두 동토의 성승인 당승에게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모든 경전은 마부의 집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으며, 오직 은혜에 보답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승과 세 제자는 말을 매어두고 짐을 내려놓은 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정중히 절을 올렸다. 여래가 당승에게 말 씀하셨다.

"이 경전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 비록 우리 불교의 지 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유교와 도교를 포함한 삼교(三敎)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네가 있는 남섬부주에 도착한다면, 모든 중 생에게 이 경전을 보여주되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몸을 깨끗 이 씻고 재계(齋戒)를 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 뒤에야 비로소 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 경전을 보배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겨라. 이 안에 는 신선이 되어 도를 깨닫는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으며, 만물을 변화 시키는 신기한 방법 또한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당승은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들어 행하기로 맹세했다. 그는 여전히 부처님께 세 번 절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으로 예를 갖추는 뒤, 경전을 받들어 들고 길을 떠났다. 세 개의 산문(山門)을 지날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성스러운 분들에게 일일이 작별의 인사를 올렸다.

여래가 당승을 보내고 나서야 경전을 전하는 모임을 마쳤다. 한편, 관음보살이 나타나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자가 예전에 금지를 받들어 동토로 경전을 구하러 떠난 이가 이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걸린 시간은 총 14년, 즉 5,040일인데, 예정된 수량보다 8일이 모자라 장경의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성스러운 승려를 속히 동토로 돌려보내 주시어, 8일 안에 경전의 수를 모두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가 받은 금지를 반납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래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마땅한 말이로다. 금지를 반납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여래는 즉시 팔대금강을 불러 명했다.

"너희는 어서 신통력을 발휘하여 성스러운 승려를 동토로 실어 나르고, 참된 경전을 전한 뒤에 곧바로 승려를 서쪽으로 인도하라. 반드시 8일 안에 경전의 수를 모두 채워야 하며,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어겨서는 안 된다."

금강들이 즉시 당승 일행을 따라잡아 외쳤다.

"경전을 구하러 온 이들이여, 나를 따르라!"

당승 일행은 몸이 가볍고 건강하여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듯 금강들을 따라 구름을 타고 날아올랐다. 이에 시로 이르되,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밝혀 부처님을 뵈었으니, 공덕을 다하고 수행을 마쳐 곧 승천하도다."

결국 동토로 돌아가 어떻게 경전을 전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9회 — 구구의 수가 다하니 마귀가 나타나다

九九數完魔{{另}}

세 번의 세 번을 다 채워 도의 근본으로 돌아가니, 원숭이는 익숙해 지고 말은 길들여져 허물을 벗듯 벗어던졌구나. 공을 이루고 수행을 마치니 참된 진리를 마주하도다.

경로는 동토로 돌아가고, 다섯 성인은 진정한 부처가 되리라.

한편, 여덟 금강이 당승을 고국으로 무사히 보낸 뒤의 이야기이다. 삼층문 아래에는 오방계제, 사치공조, 육정육갑, 호교가람 등 여러 신선이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고했다.

"제자들이 보살님의 법지를 받들어 암중으로 성승(聖僧)을 보호해 왔습니다. 오늘 성승의 수행이 가득 찼으니, 보살님께서 부처님의 금지를 확인하시어 저희의 임무를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음보살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좋다, 허락하마. 허락하마."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그 당승과 네 제자는 가는 길에 마음가짐이 어떠하였느냐?"

신들이 대답했다.

"참으로 마음이 경건하고 뜻이 지극했습니다. 보살님의 통찰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당승이 겪은 고통만큼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길에서 겪은 온갖 재앙과 난관을 제자들이 이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난관 기록부입니다."

관음보살이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니, 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계제의 명을 받들어 귀의의 뜻을 새기며, 당승이 겪은 난관의 수를 명확히 기록하노라.

금선이 쫓겨난 첫 번째 난관. 태중에서 죽을 뻔한 두 번째 난관. 보름달 아래 강에 버려진 세 번째 난관. 친부모를 찾아 원수를 갚은 네 번째 난관. 성 밖에서 호랑이를 만난 다섯 번째 난관. 수행원을 잃고 구덩이에 빠진 여섯 번째 난관. 쌍차령에서 겪은 일곱 번째 난관. 양계산에서 겪은 여덟 번째 난관. 험한 골짜기에서 말을 바꾼 아홉 번째 난관. 밤중에 불에 탈 뻔한 열 번째 난관. 가사를 잃어버린 열한 번째 난관. 저팔계를 굴복시킨 열두 번째 난관. 황풍괴에게 가로막힌 열세 번째 난관. 영길보살을 구하러 간 열네 번째 난관. 유사하를 건너기 힘든 열다

첫 번째 난관. 사오정을 얻은 열여섯 번째 난관. 사성(四聖)의 신통력을 만난 열일곱 번째 난관. 오장관에서 겪은 열여덟 번째 난관. 인삼과를 되살리기 어려웠던 열아홉 번째 난관. 손오공을 쫓아낸 스무 번째 난관. 흑송림에서 일행이 흩어진 스물한 번째 난관. 보상국에 편지를 보낸 스물두 번째 난관. 금란전에서 호랑이로 변한 스물세 번째 난관. 평정산에서 마물을 만난 스물네 번째 난관. 연화동에 매달린 스물다섯 번째 난관. 오계국에서 임금을 구한 스물여섯 번째 난관. 마물에 의해 몸이 변한 스물일곱 번째 난관. 호산(號山)에서 괴물을 만난 스물여덟 번째 난관. 바람에 성승이 휩쓸린 스물아홉 번째 난관. 손오공이 해를 입은 서른 번째 난관. 신을 청해 요괴를 항복시킨 서른한 번째 난관. 흑수하에 빠져 가라앉은 서른두 번째 난관. 차지국에서 수레를 운반한 서른세 번째 난관. 큰 내기로 승패를 다툰 서른네 번째 난관. 도사를 물리치고 승려를 흥하게 한 서른다섯 번째 난관. 길에서 큰물을 만난 서른여섯 번째 난관. 통천하에 빠진 서른일곱 번째 난관. 어람관음이 현신한 서른여덟 번째 난관. 금산에서 괴물을 만난 서른아홉 번째 난관. 온천하의 신들도 항복시키기 어려웠던 마흔 번째 난관. 부처님께 근원을 물은 마흔한 번째 난관. 물을 마시다 독을 만난 마흔두 번째 난관. 서량국에서 혼인에 붙들린 마흔세 번째 난관. 비파동에서 고생한 마흔네 번째 난관. 다시 손오공을 쫓아낸 마흔다섯 번째 난관. 미후(獼猴)를 분간하기 힘든 마흔여섯 번째 난관. 화염산에 가로막힌 마흔일곱 번째 난관. 파초선을 구하러 간 마흔여덟 번째 난관. 마왕을 잡아 묶은 마흔아홉 번째 난관. 제새국에서 탑을 청소한 쉰 번째 난관. 보물을 되찾아 승려를 구한 쉰한 번째 난관. 가시 덩굴 속에서 시를 읊은 쉰두 번째 난관. 소뇌음사에서 겪은 쉰세 번째 난관. 제천 신들이 곤경에 처한 쉰네 번째 난관. 칠시동(稀柿洞)의 더러움에 가로막힌 쉰다섯 번째 난관. 주

자국에서 의술을 펼친 신여섯 번째 난관. 병자를 구제한 신일곱 번째 난관. 요괴를 굴복시키고 왕후를 되찾은 신여덟 번째 난관. 칠정의 미혹에 빠진 신아홉 번째 난관. 다목괴(多目)에게 부상당한 예순 번째 난관. 사타령(獅駝)에 길이 막힌 예순한 번째 난관. 괴물이 세 갈래로 나뉜 예순두 번째 난관. 성안에서 재앙을 만난 예순세 번째 난관. 부처님께 마물을 거두어달라 청한 예순네 번째 난관. 비구국에서 아이들을 구한 예순다섯 번째 난관. 참과 거짓을 분별한 예순여섯 번째 난관. 송림에서 괴물을 구한 예순일곱 번째 난관. 승방에서 병으로 누운 예순여덟 번째 난관. 무저동에 갇힌 예순아홉 번째 난관. 멸법국에서 지나기 어려웠던 일흔 번째 난관. 은무산에서 마물을 만난 일흔한 번째 난관. 봉선군에서 비를 구한 일흔두 번째 난관. 병기를 잃어버린 일흔세 번째 난관. 정파(못쇠스랑)의 잔치를 벌인 일흔네 번째 난관. 죽절산에서 겪은 일흔다섯 번째 난관. 현영동에서 고생한 일흔여섯 번째 난관. 코뿔소를 쫓아 잡은 일흔일곱 번째 난관. 천축국에서 혼인에 붙들린 일흔여덟 번째 난관. 동태부에서 갇힌 일흔아홉 번째 난관. 능운도에서 탈태한 여든 번째 난관.

십만 팔천 리 길을 지나며, 성승이 겪은 난관의 기록이 이토록 분명하다.

관음보살은 난관 기록을 쪽 훑어보더니, 급히 명령을 내렸다.

"불교에서는 아홉 번의 고비를 거쳐 진리에 도달하는 법(구구귀진)이 있다. 성승이 여든 가지 난관을 겪었으니, 아직 한 가지 난관이 부족하여 그 수를 채울 수 없구나."

그리고는 계제에게 명했다.

"어서 금강들을 찾아가라. 난관을 하나 더 만들어내라고 말이다!"

계제는 명을 받들자마자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갔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달려 팔대금강을 따라잡은 계제는 그들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이러이러하니, 보살님의 법지를 받들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도록 하시오." 팔대금강이 이 말을 듣고는 획 하고 바람을 눌러 멈추더니, 당승 일행과 말, 그리고 경전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아! 참으로 이러하다.

구구(九九)의 진리를 깨닫는 길은 험난하니, 굳은 뜻을 세워야 비로소 도의 문에 들어서리. 모름지기 고통스럽게 연마해야 마를 물리칠 수 있고, 반드시 바른 법을 닦아야 돌아올 수 있느니라. 경전을 얻는 것이 쉬운 줄로만 알지 마라, 성스러운 승려도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느니라. 예로부터 이치와 조화가 한 치라도 어긋나면, 털끝만큼의 차이로도 금단을 이룰 수 없느니라.

당승은 속세의 땅을 밟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팔계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빨리 가려다 오히려 더디게 되었군요!" 사오정이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빨리 걸어오니까 여기서 좀 쉬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손오공이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열흘을 여울가에 앉아 쉬다가, 하루에 아홉 여울을 간다’고 했지." 당승이 말했다. "너희 셋은 그만 다두고, 방향을 잘 살피서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 알아보아라." 사오정이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예요, 여기! 스승님, 물 흐르는 소리를 한번 들

어보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물소리를 보니 네 고향 집 같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사오정의 고향은 유사하야지." 사오정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통천하예요." 당승이 물었다. "제자들아, 저 강 건너편을 자세히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손오공이 몸을 획 날아올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자세히 살피더니 내려오며 말했다. "스승님, 이곳은 통천하의 서쪽 기슭입니다." 당승이 말했다. "생각났다. 동쪽 기슭에 진가장이라는 마을이 있었지. 예전에 이곳을 지날 때 네가 그 집 아이들을 구해준 덕분에, 그들이 우리에게 깊이 감동하여 배를 만들어 보내주려 했으나 다행히 흰 자라가 나타나 우리를 태워주었지.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 서쪽 기슭에는 인가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속세의 사람들도 속임수를 쓰더니, 부처님 앞의 금강들도 속임수를 쓰네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우리를 동쪽으로 보내준다더니, 어찌 오는 길에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진퇴양난인데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스승님은 이미 도를 깨달으셨으니, 지난번 능운도에서 이미 속세의 몸을 벗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으실 거예요. 큰사형, 형님과 제가 법력을 모아 스승님을 모시고 건너갑시다." 손오공은 속으로 연신 웃으며 생각했다. '모시고 건널 수 없다, 건널 수 없어.' 도대체 왜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만약 손오공이 신통력을 부려 하늘로 승천하는 오묘한 이치를 펼쳤다면, 스승과 제자들은 강 천 개라도 건넌 것이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승의 수행이 구구(九九)의 수를 채우지 못해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난관이 하나 더 남아 있음을 알았기에,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이다.

스승과 제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다가 어느덧 물가에 다다랐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당승 스님, 당승 스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강가에서 커다란 흰 자라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스님, 스님을 몇 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늙은 자라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올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반갑다.” 당승과 저팔계, 사오정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늙은 자라야, 정말 우리를 맞아줄 마음이 있다면 어서 육지로 올라오너라.” 그러자 자라가 몸을 날려 강가로 기어 올라왔다. 손오공은 말을 자라의 등에 싣게 했다. 저팔계는 말 꼬리 뒤에 웅크리고 앉았고, 당승은 말의 목 왼쪽 편에, 사오정은 오른쪽 편에 자리를 잡았다. 손오공은 한 발은 자라의 목에, 다른 한 발은 자라의 머리에 딛고 서서 외쳤다. “늙은 자라야, 조심해서 잘 가보자꾸나!” 자라는 네 발을 힘차게 저으며 마치 평지를 걷듯 물 위를 나아갔다. 자라는 스승과 제자 넷에 말까지 모두 등에 싣고 곧장 동쪽 기슭을 향해 나아갔다. 이에 시로 이르되.

불법의 오묘한 진리는 문을 열어 깨닫고 온갖 마귀 물리치니 사람과 하늘을 알도다. 본래의 참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으니 모든 인연이 하나로 합쳐져 온전해졌구나. 삼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유로이 오가고 구전의 금단이 이루어져 세상을 노니네. 경전을 메고 지팡이를 짚어 수행을 마치니 다행히 다시 만나 늙은 자라를 만났도다.

자라는 일행을 등에 태우고 물결을 가르며 만나절 넘게 나아갔다. 날이 저물 무렵 동쪽 기슭이 가까워지자, 자라가 갑자기 물었다. “스님, 제가 예전에 서천에 가서 부처님을 뵈었을 때, 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쭙봐 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쭙봐 주셨습니까?” 알고 보니 당승은 서천의 옥진관에서 몸을 씻고 룡운도에서 탈태 환골하여 영산에 오른 뒤, 오로지 부처님과 여러 보살, 성승들을 뵙고 경전을 구하는 데만 온 마음을 쏟느라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자라의 수명을 물어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당승은 차마 거짓말로 속일 수 없어 한참을 망설이며 대답을 못 했다. 자라는 당승이 물어봐 주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몸을 한 번 휙 움직이더니 휙 하고 물속으로 처박혔다. 그러자 일행과 말까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다. 아! 다행히 당승은 이미 탈태하여 도를 이룬 몸이라 무사했지만, 예전 같았으면 벌써 강바닥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또한 백룡마가 용의 화신이었고 저팔계와 사오정도 수영을 할 줄 알았으며, 손오공이 가볍게 신통력을 발휘해 당승을 부축하여 물 밖으로 끌어올려 동쪽 기슭에 상륙시켰다. 다만 경전 보따리와 옷, 말의 안장과 고삐가 모두 흠뻑 젖고 말았다.

스승과 제자들이 막 강가에 상륙하여 채비를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번개와 천둥이 번쩍이며 돌과 모래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한 차례 몰아치는 바람에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고, 한 번 울리는 천둥소리에 산천이 진동한다. 번갯불은 구름을 뚫고 불꽃처럼 날아오르며, 안개는 온 대지를 뒤덮는다. 바람은 울부짖듯 포효하고 천둥은 격

렬하게 울려 퍼진다. 번쩍이는 번개는 붉은 빛을 내뿜고, 자욱한 안개는 별과 달마저 가려버린다. 바람이 일으킨 모래바람은 얼굴을 때리고, 천둥소리에 놀란 호랑이와 표범은 몸을 숨긴다. 번개에 놀란 새들은 울부짖으며 날아다니고, 안개가 가득한 숲은 그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휘몰아치니 통천하의 물결이 거칠게 요동치고, 천둥이 울리니 통천하의 물고기와 용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몸을 사린다. 번개가 번쩍이니 통천하가 대낮처럼 밝아졌다가도, 안개가 덮이니 통천하의 강가와 절벽은 어둡고 처량하기만 하다. 거센 바람은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와 소나무를 쓰러뜨리며, 사나운 천둥은 만물을 놀라게 하니 그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다. 번쩍이는 번개는 하늘을 가로질러 들판을 비추니 금빛 뱀이 기어가는 듯하고, 자욱한 안개는 온 하늘을 뒤덮어 구만리 창공마저 가려버린다.

당승은 경전 보파리를 꼭 붙들었고, 사오정은 경전 짐을 꼭 눌러 잡았으며, 저팔계는 백룡마를 붙들었다. 반면 손오공은 양손으로 여의봉을 휘두르며 좌우를 호위했다. 알고 보니 이 바람과 안개, 천둥과 번개는 모두 음마(陰魔)들이 부리는 재앙으로, 어렵게 얻은 경전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밤새도록 소란스러운 싸움이 이어지다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잤아들었다.

물에 젖은 옷을 입은 당승이 몸을 떨며 물었다. "오공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나?"

손오공이 씩씩거리며 대답했다. "스승님, 속사정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승님을 모시고 이 경전을 얻어낸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거스른 큰 공덕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만큼 오래가고

해와 달처럼 영원히 빛나며, 수명은 끝이 없고 법신은 불멸할 일입니다. 그러니 천지 신명들이 이를 시기하고 귀신들이 두려워하여, 몰래 빼앗으려 드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전이 물에 흠뻑 젖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스승님의 정법(正法)의 기운이 누르고 있어 천둥도 치지 못하고 번개도 비추지 못하며 안개도 미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순양(純陽)의 기운을 내뿜어 호위했기에, 날이 밝아 양기가 다시 성해지자 결국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그제야 당승과 저팔계, 사오정은 사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했다.

잠시 후, 태양이 높이 떠올랐다. 일행은 경전을 높은 절벽 위로 옮겨 놓고 보따리를 풀어 햇볕에 말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그곳에는 경전을 말리던 돌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들은 옷과 신발도 절벽 근처에 널어두었는데, 어떤 것은 세워두고 어떤 것은 앉혀두고 어떤 것은 띄어 놓은 듯한 모양새였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온몸에 순수한 양기를 머금고 햇볕을 향하니 음마(陰魔)들이 감히 흉악한 짓을 못 하네.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진경(眞經)은 얹드려 숨어 있으니 바람과 번개, 안개와 빛이 앞을 가로막아도 두렵지 않으리. 이로부터 평온하게 깨달음의 길로 돌아가니 이제부터는 선계에 이르기까지 안락하고 태평하리라. 경전을 말리던 돌 위에 발자취 남아 있으니 천 년 세월 동안 이곳에 마귀는 발을 못 들었네.

네 명의 제자와 당승은 경전 꾸러미를 하나하나 살피가며 햇볕에 말렸다. 그때 마침 어부 몇 명이 강가로 다가오다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발

견했다. 어부 중 한 명이 알아보고 물었다. "어르신, 혹시 재작년에 이 강을 건너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셨던 분 아십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맞소, 맞소. 당신은 어디 사람인데 우리를 알아보는 거요?" 어부가 말했다. "저희는 진가장 사람입니다."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진가장이 여기서 얼마나 멀리 있소?" 어부가 대답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20리만 가면 나옵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우리 경전을 진가장으로 옮겨서 말립시다. 거기 가면 머물 곳도 있고 앉을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잖아요. 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우리 옷가지도 좀 빨아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가지 말자꾸나. 여기서 다 말린 다음, 바로 짐을 챙겨 돌아갈 길을 찾자꾸나."

어부들이 남충을 지나가다 마침 진장을 만나 외쳤다. "어르신, 예전에 댁의 자녀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스승님께서 재작년에 돌아오셨답니다!" 진장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디서 보았느냐?" 어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바위 위에서 경전을 말리고 계십니다."

진장은 곧장 소작농 몇 명을 데리고 달려와 그들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스승님, 경전을 구하는 수행을 마치고 공을 이루셨군요! 어찌 저희 집으로 오지 않으시고 여기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어서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경전이 다 마르면 같이 가겠습니다."

진징이 다시 의아해하며 물었다. "스승님, 경전과 옷가지가 어찌 이리 다 젖었습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예전에 흰 자라가 서쪽으로 강을 건너게 해주더니, 올해는 또 동쪽으로 건너게 해주었네. 그런데 강가에 다다랐을 때, 그가 예전에 부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던 자신의 수명에 관한 일을 묻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더군. 내가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니, 화가 나서 우리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젖게 되었다네." 당승은 앞뒤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진징이 간곡히 청하니 당승도 어쩔 수 없이 경전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위 위에서 말리던 《불본행경》 몇 권이 바위에 들러붙는 바람에 경전의 뒷부분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본행경》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며, 경전을 말렸던 바위 위에는 여전히 글자 흔적이 남아 있다.

당승이 후회하며 말했다. "우리가 부주의하여 제대로 살피지 못했구나."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이 온전하지 않듯, 원래 온전했던 경전이 지금 훼손된 것 또한 온전하지 않음이 곧 온전함이라는 깊은 이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스승과 제자들은 마침내 짐을 다 챙겨 진징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무척 빨랐다. 한 사람이 말하면 열 사람이 알고, 열 사람이 말하면 백 명이 알며, 백 명이 말하면 천 명이 알게 되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진청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문 앞에 향안(香案)을 차려놓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며, 북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라고 명했다.

잠시 후 일행이 도착하자 진청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정중히 절을 올리며, 예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구해준 은혜에 깊이 감사했다. 그러고는 차와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당승은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신선한 음식과 정수를 받아먹고 범속한 몸을 벗어던져 성불한 몸이었기에, 더 이상 인간 세상의 음식에는 마음이 가지 않았다. 두 어르신이 간곡히 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그저 예의상 조금씩 맛을 보았다. 손오공은 본래부터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며 사양했고, 사오정 역시 별로 먹지 않았다. 저팔계 또한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고는 바로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손오공이 "이 멍청아, 너도 그만 먹느냐?"라고 묻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글쎄, 웬일인지 갑자기 위장이 약해진 모양이야."

그렇게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다시 경전을 구하러 갔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승은 먼저 옥진관에서 몸을 씻어 몸이 가벼워졌던 일부터, 뇌음사에 이르러 여래를 친견하고, 진루에서 연회를 베풀어준 일, 보각에서 경전을 전해 받은 일, 그리고 처음에 두 존자가 예물(人事)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못해 글자 없는 경전을 받게 된 사정 등

을 들려주었다. 이어 다시 여래께 고하여 온전한 경전의 수를 받게 된 일과, 흰 자라가 일행을 물속에 처박은 일, 음마들이 몰래 경전을 빼앗으려 했던 일까지 상세히 이야기한 뒤 작별 인사를 나누려 했다.

그 두 어르신이 어찌 온 가족을 놓아줄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말했다. "전에는 저희 자녀들을 구해 주셨으니, 그 깊은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절을 하나 세워 '구생사'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향을 피우며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예전에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자녀인 진관보와 일칭금을 불러내어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리게 했다. 또한 그들을 절로 모셔 가서 구경시켜 드렸다. 당승은 경전 보따리를 그 집 대청 앞에 잠시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보상경》 한 권을 읽어 주었다.

그 후 절로 들어서니, 진씨 일가가 이미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다시 일어나 권하였고,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또다시 일어나 권하니, 그 대접이 끊임없이 이어져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였다. 당승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대강 뜻을 표하며 살펴보니, 과연 그 절은 아주 정갈하게 잘 지어져 있었다.

시로 이르되,

붉은 단청 입힌 산문은 매끄럽고 빛나니 보시한 이의 정성 덕분이다. 누각과 대청이 이곳에 우뚝 섰고 복도와 방들이 이로부터 번성하네. 붉은 창살은 칠보처럼 영롱하고 향기로운 연기는 은하수까지 피어 오르며 맑은 빛은 허공 가득 채우네. 어린 측백나무는 물을 주어 가꾸고 커다란 소나무는 아직 무리를 이루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맑은 물이

통천하로 흘러들어 겹겹이 파도를 일으키며 밀려오고 뒤로는 높은 절벽이 버티고 서서 첩첩산중 산맥이 지룡처럼 땅에 닿았네.

당승은 감상을 마친 뒤 높은 누각 위로 올라갔다. 누각 위에는 과연 그들 네 사람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를 본 저팔계가 손오공을 잡아끌며 말했다. "형님, 형님 모습이 정말 똑 닮았네요!" 사오정이 거들었다. "둘째 형님, 형님 모습도 아주 똑 닮았어요. 다만 스승님 모습이 너무 잘생기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당승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그거 참 좋구나, 좋아." 하고는 누각을 내려왔다.

앞쪽의 전각과 뒤쪽의 복도에는 여전히 음식을 권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때 손오공이 물었다. "예전에 있던 대왕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노인이 대답했다. "그 묘는 예전에 헐었습니다. 어르신, 이 절은 세워진 이후로 매년 풍년이 들고 해마다 수확이 좋으니, 모두 어르신께서 복을 내려주신 덕분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하늘이 내린 복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이 자손 번창하고 가축들이 평안하며, 매년 날씨가 화창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앞뒤로 과일과 공양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내 신세 참 기구하네. 그때는 잘 먹었는데도 열번씩 거둬 청하는 집이 없더니, 오늘은 먹지도 못하는데 한 집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집이 청하는구나." 저팔계는 비록 배가 잔뜩 불렀어도

손을 조금 움직여 채소 요리 여덟아홉 접시를 더 먹어 치웠고, 위가 상할 지경인데도 만두 스무서른 개를 더 먹어 치웠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음에도 또 다른 집에서 권하는 바람에, 당승이 말했다. "제자가 어찌 감히 이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밤이 깊었다. 당승은 정해진 진경을 소중히 지키느라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누각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밤을 지켰다. 삼경(밤 11시~새벽 1시) 무렵이 되자 당승이 조용히 속삭였다.

"손오공, 어서 움직이자. 우리가 도를 이루어 일을 마쳤다는 것을 저들이 눈치챌지도 모른다. 예부터 '진정한 도인은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본모습을 드러내면 진정한 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너무 지체하다가는 큰일을 그르칠까 두렵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이 깊은 밤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납시다."

저팔계도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고, 사오정은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으며, 백룡마 또한 눈치를 채고 있었다. 일행은 모두 몸을 일으켜 짐을 가볍게 추스르고 땔땔을 땀다. 회랑을 지나 산문까지 나갔으나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손오공이 다시 자물쇠를 푸는 법술을 부려 작은 문과 큰 문을 차례로 열고, 길을 찾아 동쪽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팔대금강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치는 놈들, 거기 서라! 나를 따르라!"

그 장로(당승)는 향기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끼며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시로 이르되,

"단약을 완성하니 본래의 면목을 깨닫고, 몸이 건강하고 여여(如如)하니 주인을 뵈러 가는구나."

결국 당나라 왕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동토로 돌아가니, 다섯 성인 이 진정한 모습이 되다

徑回東土 五聖成真

모든 수행이 끝났으니, 도는 마땅히 근본으로 돌아가리라.

한편, 당승과 세 제자가 몸을 일으켜 팔대금강을 따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 일은 차치하자.

이야기는 다시 진가장 구생사로 돌아간다. 구생사의 많은 사람이 다
음 날 새벽에 일어나 여전히 음식을 차려 올리려 누각 아래로 내려갔으
나, 그곳에는 이미 당승이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도 묻고 저 사람도 찾
아다니며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님을 놓쳐버렸구나!"라며 울며 불며 통곡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준비해 온 제물을 모두 누각 위로 옮
겨 놓고, 종이를 태우며 제사를 지냈다. 그 후로 매년 네 번의 큰 제사
와 스물네 번의 작은 제사를 지냈다. 또한 병이 낫기를 빌거나, 안녕을
기원하거나, 혼사를 청하거나, 소원을 빌고 재물과 자식을 구하는 사

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참으로 금으로 만든 향로의 불꽃은 천 년 동안 꺼지지 않고, 옥잔의 등불은 만 년 동안 밝게 빛나리라.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팔대금강이 두 번째 향풍을 일으키자 당승 일행 네 사람은 하루도 채 안 되어 동토에 도착했고, 점차 장안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본래 당태종은 정관 13년 9월 보름 사흘 전(즉 12일)에 당승을 배웅하여 성을 나서게 한 이래로, 정관 16년에 이르러 공부 관리를 시켜 서안관 밖에 망경루를 세우고 경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 당태종은 해마다 직접 그곳을 찾곤 했다. 마침 그날, 황제가 행차하여 망경루 위에 올랐을 때, 갑자기 서쪽 하늘이 상서로운 안개로 가득 차더니 향기로운 바람이 물결치듯 불어왔다.

금강들이 공중에 멈춰 서서 외쳤다. "성스러운 승려여, 이곳이 바로 장안성입니다. 저희가 직접 내려가기는 곤란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 저희의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손오공과 나머지 두 제자도 더는 갈 필요 없습니다. 그대는 어서 가서 경전을 전하고 주군을 뵙고 오십시오. 돌아오면 제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교지를 받들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존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혼자 경전 짐을 지고 이 말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저희가 함께 가서 배웅해야 합니다. 그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중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코 늦지 않겠습니다."

금강이 말했다. "며칠 전 관음보살께서 여래께 여쭙 바로는, 오고 가는 데 여드레 안에 마쳐야 비로소 일장(一藏)의 경전 수에 들어맞는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나흘 남짓 지났으니, 혹시 저팔계가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겨 기한을 놓칠까 걱정되는군요."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이 성불하신다면 저도 성불하고 싶은 뿐이지, 어찌 부귀영화를 탐하겠습니까? 이 무례한 막말쟁이 같으니! 다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경전을 다 전달하고 나면 곧바로 돌아와 당신들과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우직한 저팔계는 짐을 짊어지고, 사오정은 말을 끌었으며, 손오공은 스승인 당승을 모시고 앞장섰다. 네 사람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망경루 곁에 내려앉았다.

당태종이 여러 관리와 함께 일행을 마주하고는, 즉시 누각 아래로 내려와 맞이하며 말했다. "어제(御弟, 황제의 친척이나 존경하는 승려를 부르는 말)께서 오셨구려!" 당승이 몸을 굽혀 절을 올리자, 당태종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다시 물었다. "이 세 사람은 누구인가?" 당승이 대답했다. "길을 가던 중에 거둔 제자들입니다." 당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시관에게 명령했다. "짐의 수레와 말을 준비하여 어제를 모셔라. 어제와 함께 조정으로 돌아가겠다." 당승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에 올라탔다.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돌리며 그 뒤를 바짝 따랐고, 저팔계와 사오정은 말의 고삐를 잡고 짐을 짊어진 채 뒤를 따르며 함께 장안성으로 입성하였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옛날 평화로운 잔치에 음악이 드높고, 문무백관은 안온하게 영웅의 기개를 떨치네. 물과 육지의 승려들은 법을 설파하고, 금빛 궁궐 위에 서는 임금이 벼슬을 내리네. 황제의 칙령으로 당승에게 은혜를 베푸니, 경전의 인연은 오행과도 같구나. 모진 고난 속에서 요괴들을 모두 물리치고, 공을 세워 이제 기쁘게 도성으로 들어오네.

당승 일행이 황제를 수행하여 조정으로 들어가자, 성안의 모든 사람이 경전을 구하러 온 이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한편, 장안에서 당승이 머물던 홍복사의 스님들은 소나무 몇 그루의 가지가 하나같이 동쪽을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괴이하구나, 참으로 괴이해! 오늘 밤은 바람 한 점 없는데, 어찌 나무 끝이 모두 이쪽으로 휘어진 것이냐?" 그때 당승의 옛 제자가 있는 스님이 외쳤다. "어서 옷을 가져오너라! 경전을 가져오시는 스승님이 오셨다!" 다른 스님들이 물었다.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그러자 옛 제자가 대답했다. "예전에 스승님께서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3~5년, 혹은 6~7년이 지난 뒤에, 만약 소나무 가지가 동쪽을 향해 있다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이지요. 스승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이니 틀림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제자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가에 이르자 이미 사람들은 "경전을 구하러 간 스님이 방금 도착하여, 폐하께서 성 안으로 맞이하러 나가셨다!"라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스님들은 서둘러 달려 나오다가 마침 당승 일행과 마주쳤다. 스님들은 위엄 있는 행차를 보고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라 궁궐 문 밖까지 뒤따라갔다.

당승은 말에서 내려 일행과 함께 조정으로 나아갔다. 당승이 용마와 경전 짐을 두고, 손오공·저팔계·사오정과 함께 옥계 아래에 섰다. 당태종이 어제(御弟)를 전하라는 명을 내려 당승을 대전으로 불러 앉혔다. 당승이 다시 은혜에 감사하며 자리에 앉은 뒤, 경전을 가져오라 일렀다. 손오공 일행이 경전을 꺼내 놓자 근시 관리가 이를 받들어 올렸다.

당태종이 다시 물었다. "경전은 모두 몇 권이며, 어떻게 가져왔느냐?"

당승이 대답했다. "신이 영산에 도착하여 부처님을 뵈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아난·가섭 두 존자께서 저희를 먼저 보물 누각으로 인도하여 공양을 베풀어 주셨고, 그다음에는 보각으로 인도하여 경전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자들께서 예물을 요구하셨으나,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했더니, 그들이 그대로 경전을 내어주었습니다. 저희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쪽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요괴의 바람이 불어 경전을 앗아갔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신통력을 발휘해 뒤쫓아 되찾았으나, 그 과정에서 경전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펼쳐 보니 모두 글자가 없는 빈 책뿐이었습니다. 저희가 크게 놀라 다시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빌며 청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이 완성될 무렵, 한 비구 성승이 산을 내려가 사위국의 조(趙) 장자 집안에 가서 경전을 한 번 읽어주어, 그 집안의 산자들은 평안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초탈하게 해주었느니라. 그러고도 쌀알만 한 황금 서 말 서 되(3두 3승)만 받았을 뿐인데, 그나마도 너무 싸게 팔았다 여겨 나중에 그 자손들이 쓸 돈이 없게 되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두 존자가 예물을 요구하는 것을 알았고 부처님께

서도 이를 분명히 아셨기에, 결국 황제께서 하사하셨던 자금 발우를 그들에게 드리고서야 비로소 글자가 있는 참된 경전을 전수받았습니다. 이 경전은 총 서른다섯 부로 되어 있으며, 각 부에서 몇 권씩을 골라 가져왔으니 모두 합하여 오천사십팔 권입니다. 이 숫자는 대개 일장(一藏)의 분량에 부합합니다."

당태종은 더욱 기뻐하며 명했다. "광록시에서 동각에 연회를 베풀어 감사의 뜻을 표하라." 그때 문득 세 제자가 계단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용모가 예사롭지 않았다. 당태종이 물었다. "훌륭한 제자들이 과연 외국 사람인가?"

당승이 엎드려 고했다. "첫째 제자는 성이 손이고 법명은 오공이며, 소신은 그를 손행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동승신주 오래국 화과산 수렴동 출신입니다. 오백 년 전 천궁을 크게 어지럽힌 죄로 여래께 의해 서번 양계산의 돌상자 안에 갇혀 있었으나, 관음보살님의 권유로 선을 행하기로 마음먹고 귀의하였습니다. 소신이 그곳에 가서 그를 구해냈으나, 이 제자를 보살피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둘째 제자는 성이 저이고 법명은 오능이며, 소신은 그를 저팔계라 부릅니다. 그는 본래 복릉산 운잔동 출신입니다. 우스장 고로장에서 요괴 노릇을 하던 중 역시 보살님의 권유로 선을 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손행자가 그를 거두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짐을 지는 힘도 좋고 물을 건너는데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셋째 제자는 성이 사이고 법명은 오정이며, 소신은 그를 사화상이라 부릅니다. 그는 본래 유사하에서 요괴 노릇을 하던 자였으나, 역시 보살님의 권유를 받아 불법을 받드는 사문의 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은 주군께서 하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태종이 말했다. "털빛이 똑같은데 어찌 하사한 것이 아니란 말이냐?"

당승이 대답했다. "소신이 사반산 응수간에서 물을 건널 때, 원래 타고 있던 말이 이 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손행자가 보살님께 이 말의 내력을 여쭙어보니, 본래 서해룡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역시 보살님의 구원을 받아 소신의 말이 되어주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그때 본래의 말로 변했기에 털빛이 똑같은 것입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넘으며 험한 길을 멀리 걸어올 때, 갈 때는 사람이 타고 왔으나 돌아올 때는 경전을 짊어지고 왔으니, 이 또한 이 말의 힘에 크게 의지한 것입니다."

당태종은 그 말을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서쪽 먼 곳까지 다녀왔으니, 도대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당승이 대답했다. "관음보살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로는 십만 팔천 리쯤 됩니다. 가는 길에 구체적인 거리를 다 세지는 못했으나, 추위와 더위가 열네 번 바뀌는 것(곧 열네 해)을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산을 넘고 고개를 넘었으며, 숲은 끝없이 깊고 물줄기는 넓고 거칠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왕들을 만났는데, 모두 확인을 마친 통행 증명서가 있습니다." 당승이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아, 통관 문첩(통행 증명서)을 가져와서 주군께 바쳐라"라고 말했다. 제자들이 문첩을 올리자 당태종이 이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정관 13년 9월 보름 사흘 전의 날짜로 발급된 것이었다. 당태종이 웃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고생하며 멀리 다

녀왔구려. 어느덧 정관 27년이 되었소." 문첩에는 보상국, 오계국, 차지국, 서량녀국, 제새국, 주자국, 비구국, 멸법국의 국인(나라 도장)이 찍혀 있었고, 봉선군, 옥화주, 금평부, 천축국의 인장도 함께 있었다. 당태종은 이를 모두 살펴본 뒤 거두어들였다.

황제의 수레를 모시는 관리가 미리 연회를 청하러 오자, 당태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갔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제자들이 예의를 아는 이들인가?” 당승이 대답했다. “제자들이 모두 산골짜기 들판에서 자라난 요괴의 몸이라, 중화 성조의 예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부디 주공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태종이 웃으며 말했다. “죄를 묻지 않겠네, 죄를 묻지 않겠어. 모두 동작으로 가서 함께 연회를 즐기세.” 당승은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리고, 세 제자를 불러 함께 각 안으로 들어가 구경했다. 과연 중화의 대국은 여느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 모습을 보아라.

문에는 화려한 비단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기이한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오고, 진귀하고 신선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호박 잔과 유리 잔은 금을 입히고 비취를 박아 장식했으며, 황금 쟁반과 백옥 그릇에는 화려한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잘 익은 채소 볶음과 달콤한 시럽을 끼얹은 토란이 올랐고, 달콤한 버섯과 신선한 해조류 요리도 있었다. 매콤한 죽순과 꿀을 곁들인 양배추 요리도 몇 차례씩 나왔다. 춘엽과 목이버섯, 두부피 요리, 석화선채와 고사리 요리도 상에 올랐다. 화초를 넣고 끓인 무 요리와 겨자를 버무린 채소채도 있었다. 채소 요리도 훌륭했지만, 몇 가지 진귀한 과일들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호두와 꽃감, 용안과 리치, 선주에서 온 밤과 산동의

대추, 강남의 은행과 토두리 배가 놓였다. 헤이즐넛과 송이, 연꽃 씨앗과 포도, 마카다미아와 수박씨, 마름 쌀도 빠지지 않았다. 올리브와 사과, 핑포와 사과, 연꽃 뿌리와 연근, 자두와 양매까지, 없는 것이 없었고 빠진 것도 없었다. 여기에 달콤한 떡과 맛있는 음식들이 곁들여졌고, 향기로운 술과 차, 그리고 기이한 진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니, 과연 중화 대국의 풍요로움은 서역의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스승과 제자 세 명은 문무백관과 함께 좌우에 늘어섰다. 당태종 황제는 중앙에 정좌하였다. 노래와 춤, 악기 연주가 질서 정연하고 엄숙하게 이어졌으며, 그렇게 온종일 즐거운 잔치가 계속되었다.

시로 이르되, "임금의 경사가 요순 시대에 비길 만하니, 진경을 얻었으니 복이 넘쳐흐르네. 천고에 전해질 이 성대한 풍경 속에, 부처님의 빛이 황제의 거처를 골고루 비추도다."

그날 밤, 은혜를 갚는 잔치가 끝나고 당태종은 궁으로 돌아갔으며 관리들도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 당승 일행은 흥복사로 돌아갔는데, 절의 승려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당승이 막 산문에 들어서자 승려들이 보고했다.

"스님, 오늘 아침에 이 나무의 가지들이 갑자기 모두 동쪽을 향했습니다. 저희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 밖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과연 스님께서 도착하셨군요."

당승은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방장실로 들어갔다. 이때 저팔계는 평소처럼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손오공

과 사오정 또한 모두가 의젓하고 침착했다. 도를 깨쳐 과보를 얻었으니
자연히 마음이 평온해진 덕분이었다. 그날 밤, 일행은 평온하게 잠자
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종이 조회를 열고 신료들에게 말했다.

"짐이 아우(당승)의 공로를 생각하니 그 깊고 큼이 헤아릴 수 없어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
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몇 마디 말을 읊어 보았으나 아직 글로
옮기지는 못했다."

태종이 명령했다.

"중서관은 이리로 오라. 짐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
도록 하라."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찍이 듣건대, 천지(二儀)는 형상이 있어 덮고 싣는 것을 드러내어
만물을 품어 기르고, 사계절은 형체가 없이 추위와 더위를 운행하여 만
물을 변화시킨다 하였다. 이렇듯 하늘을 살피고 땅을 비추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도 그 단서를 알 수 있으나, 음양의 이치를 밝혀 그 수를 다
헤아리는 것은 현명한 자라도 좀처럼 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천지가 음
양을 품고 있으면서도 알기 쉬운 것은 그것이 형상을 지녔기 때문이요,
음양이 천지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체가 드러난 것은 어리석은 자라도

미혹되지 않으나, 형체가 숨어 보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도 미혹되기 쉽다.

하물며 불도(佛道)의 가르침은 텅 비어 고요한 곳에 머물며, 만물을 넓게 구제하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위로는 더없이 높고 아래로는 끝없이 넓으며, 우주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작은 먼지 하나에도 갇혀 있다.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영원토록 이어지고,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온갖 복을 운반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니, 그 오묘한 도는 깊고 깊어 그 끝을 알 수 없고, 법의 흐름은 고요하고 맑아 그 근원을 가늠하기 어렵다. 어찌 어리석은 범인들이 그 뜻을 접하고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위대한 가르침이 일어난 바탕은 서천에 있다. 한나라 궁궐에 솟아오른 밝은 꿈이 동쪽 땅에 비추어 자비의 흐름을 만든다. 옛날에 형체와 자취를 점치던 시절에는 말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 하였고, 늘 나타났다 늘 숨던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덕을 우려보며 그 가르침을 따를 줄 알았다.

그리하여 그림자를 거두고 참됨으로 돌아가 세상을 옮겨 넘어간 뒤로는, 금빛 얼굴이 그 빛을 감추니 삼천 세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그림으로 펼쳐지나 사팔(四八, 서른두 가지) 성스러운 모습을 헛되이 드러낼 뿐이다. 이에 미묘한 가르침이 널리 퍼져 중생을 삼악도(三途)에서 건져내고, 남겨진 가르침이 멀리 전해져 모든 생명을 십지(十地)로 인도한다.

부처님께는 경전이 있어 대승과 소승의 차이를 나누고, 법이 있어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가린다. 우리 현장 법사는 바로 그 법문의 우두머리라 할 만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찍이 삼공(三空)의 도리를 깨달았고, 자라서는 신령하고 맑은 성품으로 사인(四忍)의 수행을 갖추었다. 소나무 바람과 물에 비친 달로도 그 청아함을 다 비길 수 없고, 선계의 이슬과 밝은 구슬로도 그 맑고 운택함을 다 비길 수 없다. 그리하여 지혜로써 번뇌를 끊고 신령한 힘으로 형체 없는 이치를 헤아리니, 육진(六塵)을 초월하여 멀리 벗어나 천고에 그 향기를 전할 것이다.

마음을 안으로 모아 바른 법의 쇠퇴를 슬퍼하고 현문(玄門)에 뜻을 두니, 그 문에는 거짓과 오류가 많았다. 이를 갈래지어 가리고자 정토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고 지팡이를 짚어 외로운 여정을 떠났다. 새벽에는 눈이 날려 길에서 방향을 잃었고, 저녁에는 모래바람이 일어 하늘 밖으로 하늘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만 리의 산천을 안개와 노을을 헤치며 나아갔고, 백 번의 추위와 더위를 서리와 비를 겪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정성이 무겁고 수고로움을 가버이 여기며 깊은 진리를 구하여 통달하고자 하여, 서천을 주유한 지 십사 년이 되었다.

이국땅을 살살이 거치며 바른 가르침을 구하였다. 쌍림(雙林)과 여덟 줄기 물줄기를 지나며 도를 음미하고 풍교를 마셨고, 녹원(鹿苑)과 취봉(鷲峰)을 보며 기이함을 우러렸다. 선성(先聖)의 지극한 말씀을 받들고 어진 이들에게서 참된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오묘한 문을 탐구하여 깊은 학업을 끝까지 궁구하니, 삼승육률(三乘六律)의 도리는 마음속에 달리고 일장백협(一藏百篋)의 문장은 바다 어귀의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그가 거쳐 온 나라는 끝이 없으나 구한 경전은 정해져 있었다. 마침내 대승의 요체를 담은 서른다섯 부, 총 오천사십팔 권의 경전을 얻어 이를 번역하여 중화 땅에 퍼내니, 이는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다. 서쪽 끝에서 자비의 구름을 끌어오고 동쪽 끝에 법의 단비를 내리니, 끓졌던 성스러운 가르침이 다시 온전해졌고 죄를 지은 중생들이 복을 되찾게 되었다. 불타는 집의 마른 불길을 식혀 함께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금빛 물결의 혼탁함을 맑혀 다 함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니, 이로써 악은 업으로 인해 떨어지고 선은 인연으로 인해 오름을 알 수 있다. 오르고 내림의 끝은 오직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계수나무가 높은 고개에서 자라 구름을 뚫고서야 그 꽃에 이슬이 맺히고, 연꽃이 푸른 물결에서 나와도 날리는 먼지가 그 잎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연꽃의 성품이 본래 깨끗하고 계수나무의 바탕이 본디 곧아서가 아니라, 그 의지한 바가 높으면 미물이 해치지 못하고, 그 기댄 바가 맑으면 탁한 것들이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지각 없는 풀과 나무도 선함에 힘입어 선해지는데, 하물며 식견을 지닌 사람이 어찌 경사스러운 인연을 통해 경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이제 이 경전이 널리 퍼져 해와 달과 더불어 다함이 없고, 큰 복이 멀리 퍼져 하늘과 땅과 더불어 영원히 크기를 바랄 뿐이다."

글을 다 쓴 태종은 즉시 성스러운 승려를 불렀다. 이때 당승은 이미 조경 문밖에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부름을 듣고 급히 들어가 엎드려 절을 올렸다. 태종은 그를 전각 안으로 들여보내고 글을

건네주었다. 당승이 글을 다 읽고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며 아뢰었다.

"폐하의 문장이 고전적이고 그 이치가 심오하옵니다. 다만 이 글의 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나이다."

태종이 말했다.

"짐이 밤에 읊조려 아우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만든 것이니, 그 이름을 《성교서》라 하였는데 괜찮겠느냐?"

당승은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태종이 다시 말했다.

"짐의 재주는 보석에 미치지 못하고 말솜씨는 금석(金石)에 비하면 부끄럽다. 더욱이 내전(內典, 불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밤에 읊은 글이라 참으로 보잘것없고 졸렬하다. 귀한 글에 먹물을 묻히고 진주 숲에 기와 조각을 세운 격이니, 스스로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칭찬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 공연히 감사의 수고만 끼쳤구나."

당시 수많은 관리들이 모여 성스러운 가르침이 담긴 황제의 글에 절을 올리니, 그 소식이 안팎으로 널리 퍼졌다. 당태종이 말했다. "아우님, 그 귀한 경전을 한 번 낭독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당승이 대답했다. "폐하, 만약 경전을 낭독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부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보배로운 전각은 경전을 읊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당태종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마차를 관리하는 관원에게 물었다. "장안성 안에서 어느 사찰이 가장 깨끗하고

정갈하냐?" 이때 관리들 사이에서 대학사 소우가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다. "성안에 안탑사가 매우 깨끗하고 정갈합니다." 당태종이 즉시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경전을 정성스럽게 몇 권씩 받들어 들고 짐과 함께 안탑사로 가자. 아우님이 그곳에서 경전을 논하도록 청할 것이다."

여러 관리들이 각자 물건을 받쳐 들고 당태종을 모셔 절 안으로 들어갔다. 당태종은 높은 단을 세우고 모든 것을 정갈하게 차려놓았다. 당승이 다시 명령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백마를 끌고 짐을 정리하거라. 손오공은 내 곁을 지켜라." 이어 당태종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진실한 경전을 천하에 널리 전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 부를 필사하여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원본은 소중히 간직하여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당태종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우의 말이 참으로 옳소, 아주 옳소." 그러고는 즉시 한림원과 중서성의 관리들을 불러 경전을 필사하게 했다. 또한 성 동쪽에 '등황사'라는 이름의 절을 새로 세웠다.

당승이 경전 몇 권을 받쳐 들고 대 위에 올라 막 낭독하려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바람이 휘감기더니 허공에서 팔대금강이 모습을 드러내며 크게 외쳤다. "경전을 읊는 자는 경전을 내려놓고, 우리를 따라 서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아래에 있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백마까지 평지에서 등실 떠올랐다. 당승 또한 경전을 내려놓고 대 위에서 구만리 상공으로 솟구쳐 올라 그들과 함께 허공을 타고 사라졌다. 이 광경을 본 당태종과 대신들은 당황하여 허공을 향해 절을 올렸다.

시로 이르되, 성스러운 승려가 애써 경전을 구하려 노력하니, 서천의 법이 온 세상에 흐른 지 열네 해로다. 고난 가득한 여정을 지나며 온갖 재난을 겪고, 수많은 산과 물을 넘으며 굶이굽이 고생하였네. 공덕

은 다 채워져 다시금 더해지고, 삼천대천세계에 발자취 가득하구나.
깨달음의 귀한 글을 품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오늘날까지 동토 땅에 영
원히 전해지리라.

당태종과 대신들이 절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고승들을 선발하여 안
답사에서 수륙대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대장경의 참된 경전을 낭독하
게 하여 저승의 죄 많은 귀신들을 구제하고, 널리 선한 경사를 베풀게
하였다. 또한 필사한 경전들을 천하에 널리 전파하게 하였으니, 그 공
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한편, 팔대금강은 향기로운 바람을 일으켜 당승과 제자들, 그리고
말 다섯 마리를 이끌고 다시 영산으로 향했다. 이들이 오고 가는 데 걸
린 시간은 채 여드레가 되지 않았다. 이때 영산의 여러 신선은 모두 부
처님 앞에 모여 법문을 듣고 있었다. 팔대금강이 스승과 제자 일행을
안으로 인도한 뒤 여래에게 아뢰었다.

“제자들이 이전에 받은 금지(명령)를 받들어, 성스러운 승려 일행을
무사히 당나라에 데려다주고 경전도 잘 전달하였기에, 이제 그 명령을
받들어 보고하나이다.”

말을 마친 팔대금강은 당승 일행을 가까이 불러 직위를 받게 했다.
여래가 말씀하셨다.

“성스러운 승려여, 그대는 전생에 본래 나의 두 번째 제자인 금선자
였다. 그대가 법문을 듣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대
의 참된 정신을 깎아 동토로 태어나게 했었다. 그러나 이제 기쁘게 귀
의하여 나의 가르침을 받들고, 나의 교단에 들어와 참된 경전을 가져왔

으니 그 공덕이 매우 크다. 이에 높은 직위와 정과(正果)를 내려, 그대를 전단공덕불이라 하노라.

손오공아, 너는 천궁을 크게 어지럽혔기에 내가 깊은 법력으로 오행산 아래에 눌러 두었으나, 다행히 하늘의 뜻에 따라 불교로 돌아왔구나. 또한 악을 멀리하고 선을 드높였으며, 여정 중에 요괴를 물리치며 공을 세워 처음과 끝을 모두 잘 마쳤으니, 높은 직위와 정과를 내려 너를 투전승불이라 하노라.

저팔계야, 너는 본래 천하의 물을 다스리는 신인 천봉원수였다. 복숭아 잔치에서 술에 취해 선녀들을 희롱한 죄로 하계에 떨어져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었지. 다행히 내가 본래의 마음을 기억하여 복릉산 운잔동에서 죄를 지었으나, 다시 나의 교단에 귀의하여 승려가 되어 성스러운 승려를 보호했구나. 다만 여전히 고집스럽고 색욕을 버리지 못한 면이 있으나, 짐을 짊어지고 길을 안내한 공이 있으니 직위와 정과를 내려 정단사자로 삼노라.”

그러자 저팔계가 입을 뻐죽거리며 투덜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처가 되는데, 왜 저만 정단사자인가요?”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말만 앞서고 몸은 게으르며 식탐이 많아 배가 아주 넓기 때문이다. 천하의 사대부주에서 나의 가르침을 우러러보는 이가 얼마나 많은데, 제단에서 음식을 깨끗이 관리하는 정단사자라는 직책은 충분히 누릴 만한 품계이니 어찌 좋지 않겠느냐?

사오정아, 너는 본래 권렴대장이었다. 먼저 복숭아 잔치에서 유리잔을 깨뜨린 죄로 하계에 떨어져 유사하에 머물며 사람을 해치고 죄를 지었었지. 그러나 다행히 나의 교단에 귀의하여 진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성스러운 승려를 보호하며, 산을 오르고 말을 이끈 공이 크니 직위와 정과를 내려 금신나한으로 삼노라.”

이어 백마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본래 서양 대해 광진룡왕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의 명을 어겨 불효를 저질렀다. 다행히 법에 귀의하여 나의 승려가 되었고, 매일 성스러운 승려를 등에 업고 서쪽으로 오며, 또한 경전을 등에 업고 동쪽으로 돌아갔으니 이 또한 공이 있다. 이에 직위와 정과를 내려 팔부 천룡마로 삼노라.”

스승과 세 제자, 그리고 백마까지 모두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감사드렸다. 그러자 여래는 게디에게 명하여 말을 영산 뒷절벽의 화룡지(용이 되는 못)로 인도하게 한 뒤, 말을 못 속으로 밀어 넣었다. 잠시 후, 말은 몸을 한 번 크게 떨더니 곧 털을 벗어 던지고 머리에는 뿔이 돌아나며 온몸에 금빛 비늘이 돌아났다. 턱밑에는 은빛 수염이 자라났고, 온몸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으며 네 발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서렸다. 말을 한 마리 용으로 변해 화룡지에서 날아오르더니, 산문 앞에 우뚝 솟은 화표주를 휘감고 올라갔다. 이에 모든 부처가 여래의 위대한 법력을 찬탄하였다.

한편, 손오공이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이제 저도 스승님처럼 부처가 되었는데, 성불하고 나서도 여전히 머리에 금고아를 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저를 조이는 긴고주를 외우려 하시는 거예요? 얼른 머리테를 풀어주는 주문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 테를 벗겨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보살님이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당승이 말했다. “그때는 네가 워낙 다스리기 어려워 그런 법으로 너를 제어했던 것이란다. 이제는 부처가 되었으니 당연히 사라질 터인데, 어찌 아직 네 머리에 남아 있겠느냐? 네가 직접 만져 보려무나.” 손오공이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니, 과연 금고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때 전단공덕불, 투전승불, 정단사자, 금신나한이 모두 각자의 정과를 얻어 본래의 자리를 찾았고, 백룡마 또한 스스로 참된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를 증명하는 시가 있다.

시로 이르되, "한 몸의 참된 진리 세상에 내려와 네 가지 형상을 합쳐 다시 몸을 닦았네. 오행의 색과 공은 다시 고요해지고 온갖 요괴의 헛된 이름은 모두 논할 것도 없구나. 정과를 얻은 전단은 큰 깨달음으로 돌아가고 품계를 완성하니 고통의 바다를 벗어났도다. 경전의 가르침은 천하에 은혜의 빛을 넓게 펼치니 다섯 성인은 높은 곳에 앉아 불이(不二)의 문에 머무네."

다섯 성인이 과보를 받는 순간,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 성스러운 승려와 나한, 제자들, 그리고 각 산과 동굴의 신선과 신들, 하늘의 관리와 사찰을 지키는 신령들, 땅의 신들, 그리고 도를 얻은 모든 스승과 신선들이 처음부터 모두 모여 법문을 듣더니,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보라.

"영취봉 꼭대기에는 노을빛이 모여들고, 극락세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드네. 금룡은 편안히 누워 있고 옥호는 고요히 머무는데, 까마귀와 토끼는 자유로이 오가고 거북과 뱀은 그 곁을 맴도네. 붉은 봉황과 푸른 난새는 정답게 노닐고, 검은 원숭이와 흰 사슴은 기쁘게 뛰노네. 여덟 가지 기이한 꽃과 사계절의 신령한 과일들, 높이 솟은 소나무와 오래된 측백나무, 푸른 삼나무가 우뚝 서 있구나. 오색 매화는 피었다 맏히기를 반복하고, 만년 복숭아는 익었다 새로워지기를 거듭하네. 수많은 과실과 꽃들이 앞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내니, 하늘 가득 상서로운 안개가 어우러져 있도다."

모든 대중이 합장하며 귀의하여 다음과 같이 염송하였다.

"나무 연등상고불, 나무 약사유리광왕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 나무 청정희불, 나무 비로시불, 나무 보당왕불, 나무 미륵존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무량수불, 나무 접인귀진불, 나무 금강불괴불, 나무 보광불, 나무 용존왕불, 나무 정진선불, 나무 보월광불, 나무 현무우불, 나무 파류나불, 나무 나연불, 나무 공덕화불, 나무 재공덕불, 나무 선유보불, 나무 전단광불, 나무 마니당불, 나무 혜거조불, 나무 해덕광명불, 나무 대자광불, 나무 자력왕불, 나무 현선수불, 나무 광장엄불, 나무 금화광불, 나무 재광명불, 나무 지혜승불, 나무 세정광불, 나무 일월광불, 나무 일월주광불, 나무 해당승왕불, 나무 묘음성불, 나무 상광당불, 나무 관세등불, 나무 법승왕불, 나무 수미광불, 나무 대혜력왕불, 나무 금해광불, 나무 대통광불, 나무 재광불, 나무 전단공덕불, 나무 투전승불, 나무 관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문수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청정대해중보살, 나무 연지

해회불보살, 나무 서천 극락의 모든 보살, 나무 삼천 제대보살, 나무 오백 아라보살, 나무 비구이세니보살, 나무 무변무량법보살, 나무 금강대사성보살, 나무 정단사자보살, 나무 팔보금신나한보살, 나무 팔부천룡광력보살, 이와 같이 온 세상의 모든 부처님과—

이 공덕으로써 부처님의 깨끗한 땅을 장엄하고, 위로는 네 가지 큰 은혜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세 가지 고통의 길을 구제하리라. 혹여 이를 듣고 보는 이가 있다면, 모두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함께 극락세계에 태어나 이 몸의 모든 업을 다 마치게 하소서.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존귀한 보살님과 마하살들이여, 마하반야바라밀."

이로써 『서유기』는 끝이 난다.